



##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2)

— 한옥의 세계관 —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2)

— Religious Symbolism in Hanok —

이강민 Lee, Kang Min

이상민 Lee, Sang Min

엄운진 Um, Woon Jin

( a u r i

AURI-한옥-2013-8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2 : 한옥의 세계관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2 :  
Religious Symbolism in Hanok

지은이: 이강민, 이상민, 엄운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3년 12월 15일, 발행: 2013년 12월 27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20,000원, ISBN: 978-89-97468-96-6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이강민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이상민 부연구위원 엄운진 연구원
Ⅰ 연구보조원	김가람 연구인턴
Ⅰ 조사원	전관수, 이성호, 김빛나, 조현지

---

Ⅰ 연구자문위원	김영봉 연구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 서해숙 회장(호남민속학회) 윤열수 관장(가회민화박물관) 정연학 학예연구사(국립민속박물관)
----------	--



## 연구요약

본 연구는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한옥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한옥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인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즉, 한옥을 둘러싼 사람들의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을 포착하고, 이러한 가치로써 구성되는 한옥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 해에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현대한옥미학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는 그 두 번째 연구로서 한옥에 깃든 한국인의 세계관을 고찰한다. 향후 한옥의 친환경성, 기후, 입지 등을 살펴보는 한옥과 자연관, 한옥에서의 생활, 의례, 민속 등을 살펴보는 한옥과 인간관 등으로 연차적인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연구는 이처럼 한옥에서 무형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형태를 결합시키는 작업으로서, 한옥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한옥에 깃든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대상을 찾았다. 복잡다단한 세계관을 사상이나 신앙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구성요소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 형태와 가치의 결합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옥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세계관의 구현물은 가정신앙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사물들과 유교문화의 정수로서 한자로 된 글자들이다. 각각은 남녀로 대별되는 가족구성원의 차이,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는 공간구성의 차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옥을 성스럽고 기품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통적인 가정신앙은 한옥에 신성을 부여하여 모든 공간을 기원의 공간으로 정의했다. 한옥에서 가정신앙은 집을 매개로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과 관련한 신앙행위는 집에 성스러운 성격을 부여하

였고, 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탄생시켰다.

다양한 신들이 한옥에 거주했다. 성주는 집에서 가장 신성한 위치인 마루에서 집을 보호하고, 터주는 뒷마당에서 집을 보호하며, 조왕은 부엌을 관장하며, 삼신은 안방에, 조상신은 사당에서 거주한다. 이밖에도 장독대에는 장독신, 외양간에는 가축신, 우물에는 용신, 뒷간에는 측신, 대문에는 문신, 마당에는 마당신이 거주한다. 굴뚝신과 지붕신이 더 있는 경우도 있으며, 철쭉, 업신, 칠성 등이 들어와 있기도 한다. 집과 관련한 신들은 결혼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신을 모시게 된다.

이들 신앙은 주로 집안의 여자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농경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가신의 신체는 곡식의 형태나 이와 관련한 나락, 짚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신앙의 핵심은 자손의 번창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있다. 업신과 같이 재산을 지키고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신도 있지만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즉, 가정신앙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물질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정신앙이 주로 여자에 의해 신봉되어 온 것은 유교사회의 배타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성주, 조상신 등 유교적 근거를 가진 신에 대해서는 의례에 남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모성애의 구현공간으로서 한옥의 가치는 현대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교적 세계관은 한옥에 집주인과 동일한 인격을 부여하여 정체성을 만들었다. 현판과 주련, 그리고 당호로 표현되는 한옥의 세계관은 집주인의 성품과 이상을 집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궁궐건축물, 주거건축물, 재사건축물 등의 성격에 따라 추구하는 바는 다양했지만 궁극적으로 건물의 주인, 혹은 사용자의 삶의 목표가 집에 부가되었다.

예를 들어, 궁궐건축물인 연경당은 왕의 통치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사가 널리 퍼진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었다. 재사건축물인 성주 추원당은 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논어’의 ‘학이편’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칭할 때마다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에서 집의 이름인 당호는 집주인의 호이기도 했다. 집주인의 삶의 지향점이 집이름에 투영되면 사는

집과 사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집의 형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행위들 모두가 집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했다. 건물의 기둥에는 주련이라고 하는 글귀가 붙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치들을 담고 있었다.

요컨대, 한옥은 가정의 안전과 번창을 기원하는 신앙의 공간이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는 교육의 공간이었다. 현대생활에서 주택은 신앙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를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집이 품고 있던 종교적 가치와 의미들이 희박해졌다. 가족을 아끼고 자신을 수양하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오직 숙식의 편리함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옥에 깃든 한국인의 전통 세계관을 돌아보는 작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주제어 : 한국인 세계관, 가신, 당호





## 차 례

I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개요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3.	기존 연구성과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II.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가신과 당호로 본 한옥의 세계관	5
1.	연구개요	5
1)	한옥의 세계관 접근을 위한 전제	6
2)	연구의 방법	8
3)	가신 관련 선행연구 검토	9
4)	당호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5)	가신 및 당호 주요연구자 정보	13
2.	가신을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15
1)	가신의 종류와 역할	15
2)	가신이 관장하는 한옥공간의 영역	23
3.	당호를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28
1)	당호 조사	28
2)	당호의 출처와 연원	31
4.	소결	48
1)	가신, 당호를 통한 한옥의 이해	48

2) 현대주거문화에 있어서 한옥세계관의 적용방안 .....	49
3) 전통문화 콘텐츠로서의 “신”의 가능성 _관련사례 .....	51

### III [한옥문화의 세계화] 한옥의 설명방식 .....53

1. 연구개요 .....	53
2. 건축유산의 안내문안 구성과 형식 .....	55
1)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과 가치서술 .....	55
2) 국내 문화재안내문 가이드라인 .....	62
3. 주요 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 구성 분석 .....	68
1) 분석대상 .....	68
2) 한옥의 안내문안 분석을 위한 내용 분류 .....	68
3) 주요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 구성 .....	69
4. 소결 .....	78

### IV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79

1. 연구성과 및 한계 .....	79
2. 향후 진행방향 .....	80
1) 연구 추진방향 .....	80
2) 콘텐츠 서비스 기획 : 웹서비스 및 홍보물 제작 .....	82

참고문헌 .....	85
------------	----

부록1. 주요 단행본 및 보고서를 통해 본 가신 .....	90
부록2. 당호분석 기초자료 .....	102
부록3. 국가지정문화재 안내문안 분석 기초자료 .....	162

## 표 차례

[표 2-1] 한옥의 세계관 분석의 틀 .....	6
[표 2-2] 선행연구검토 - 가신에 대한 개괄서 .....	9
[표 2-3] 선행연구검토 - 가정, 마을, 무속영역으로의 구분 .....	10
[표 2-4] 선행연구검토 - 각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	11
[표 2-5] 선행연구검토 - 민속분야에서의 공간적 해석 .....	11
[표 2-6] 선행연구검토 - 현판과 주련 관련 (궁궐, 누정, 사찰) .....	12
[표 2-7] 선행연구검토 - 지역분야의 당호 연구(안동) .....	13
[표 2-8] 가신 및 당호 주요연구자 정보 .....	13
[표 2-9] 연구자별 가신의 분류 .....	16
[표 2-10] 가신의 종류 및 좌정공간 .....	23
[표 2-11] 한옥의 각 공간과 신들 .....	24
[표 2-12] 당호관련 기존연구 사례 .....	27
[표 2-13] 건축물이 아닌 것 (예시) .....	29
[표 2-14] 국내 지명 또는 마을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예시) .....	29
[표 2-15] 인물의 성 또는 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예시) .....	29
[표 2-16] 왕실과 관련된 명칭(예시) .....	29
[표 2-17] 당호 의미_지역 (92개소) .....	33
[표 2-18] 당호분석자료_인물(85개소) .....	38
[표 2-19] 당호분석자료_자연(81개소) .....	43
[표 3-1] 한옥의 설명방식 연구주요주제 및 방법 .....	53
[표 3-2]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키워드 .....	54

[표 3-3] 주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설명 요약 .....	56
[표 3-4]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의 주요내용 .....	61
[표 3-5] 문화재 안내문 개선에 관한 최근 연구 .....	62
[표 3-6]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 .....	65
[표 3-7] 문화재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	66
[표 3-8] 한옥안내문안 구성 .....	67
[표 3-9] 현대 건축문화재 안내문안 구성의 변모 사례 .....	69
[표 3-10] 경북지역 주거문화재 안내문의 구성과 순서 .....	71
[표 3-11] 서술요소가 나오는 순서 .....	76
[표 4-1] 가정신앙 달력 월별 가신 및 설치장소 예시 .....	84

## 그림 차례

[그림 1-1] 한옥 미학 주요 술어의 발전 과정 .....	3
[그림 1-2]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의 틀 .....	4
[그림 1-3]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 시리즈 진행 계획 .....	4
[그림 1-4] 한옥공간의 안채와 바깥채 (구례운조루 도면에 재가공) .....	7
[그림 2-1] 한옥의 공간과 신들 .....	24
[그림 2-2] 문화재급 주거용 한옥의 당호 분류 .....	31
[그림 2-3] 옛집 안방공간 상단의 가족사진 모습 .....	48
[그림 2-4] 옛집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모습 .....	48
[그림 2-5] 신과 함께 .....	49
[그림 2-6] 우리집에 사는 신들 책자 표지 .....	49
[그림 2-7] 성주신 이미지 .....	50
[그림 2-8] 가신소재 애니메이션 ‘씨나락’ .....	50
[그림 3-1] 안내문안 총 글자수의 분포 .....	74
[그림 3-2] 안내문안 구성 요소의 종류 개수 .....	74
[그림 3-3] 안내문안 서술요소의 빈도수 .....	75
[그림 3-4] 서술요소의 평균 서술순서 .....	76
[그림 4-1] 한옥포털 내 한옥의 인문학적 이해 추가 페이지(안) .....	82
[그림 4-2] 한옥포털 내 가신, 당호조사자료 제공 페이지(안) .....	82



## I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3. 기존 연구 성과 및 중장기 추진방향

### 1. 연구의 목적

□ 한옥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한 한옥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토대

본 연구는 그동안 물리적인 대상으로써만 이해되어오던 한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인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옥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한옥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가치 탐구 및 한옥활성화, 문화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본 연구는 한옥의 미래상과 세계화를 위하여 주거문화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여 미래적 가치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옥기술개발연구 사업을 통한 기술적 개발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국가한옥센터의 ‘한옥보전 및 문화육성 지원연구’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한옥의 가능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기술과 인문학이 상호 연계된 한옥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구성

### □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의 기본 구성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탐구’와 ‘한옥문화의 세계화 방안 연구’로 구성된다. 인문학적 가치발굴은 내재적인 관점에서 한옥이라는 대상을 다른 인문학 분야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한옥문화의 세계화는 외부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옥문화의 설명방식을 고민하고자 한다,

[표 1-1]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 기본구성

구성	주요내용
(PART1)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탐구	한옥의 인문학적 콘텐츠화
(PART2) 한옥문화의 세계화 방안 연구	한옥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 (세계화, 독창성 등)

### □ 2013년 연구의 구성

2013년 제2년차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과 관련하여 가신과 당호를 통하여 한옥의 세계관을 검토한다. 가신에 대한 인문학 분야의 기존성과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가신을 1차적으로 정리 후 한옥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당호에 대한 해석과 출처를 파악함으로써 당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배경을 파악하여 한옥에 대한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옥문화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한옥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한옥에 대한 설명의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을 검토하여 한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한옥의 가치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UNESCO 세계문화유산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요가치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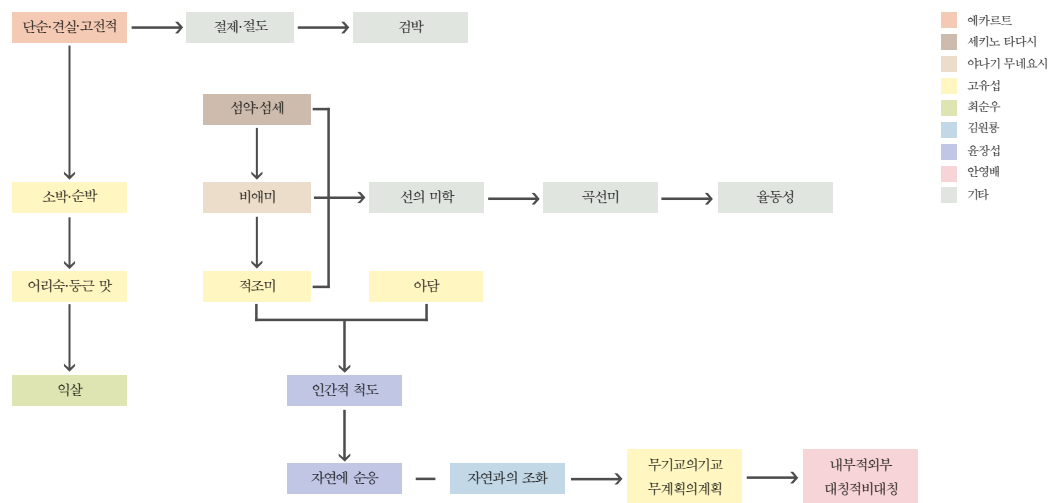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활용 및 추후 연구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이후에 지속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 3. 기존 연구 성과 및 중장기 추진방향

#### □ 기존연구의 성과

2012년에 기초연구로서 한옥미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근대 이후 한옥의 가치를 서술한 문헌을 수집하여 ‘술어’를 추출, 저자-술어-건축적 근거의 관계를 분석한 한옥미학지도 작성하였다. 한옥미학지도를 활용한 한옥미학의 기원 및 전개과정의 형식비평과 구체적 사례 검증을 통하여 한옥미학 술어의 체계를 밝히고 향후 전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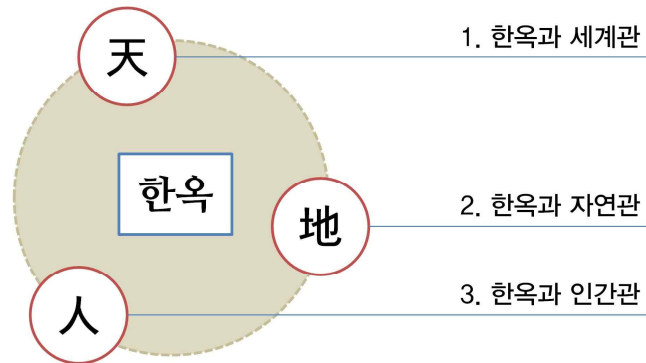


[그림 1-1] 한옥 미학 주요 술어의 발전 과정

#### □ 중장기 진행방향

2012년의 연구가 총론적인 내용으로 미학적 어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013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인문분야와 연계하여 주제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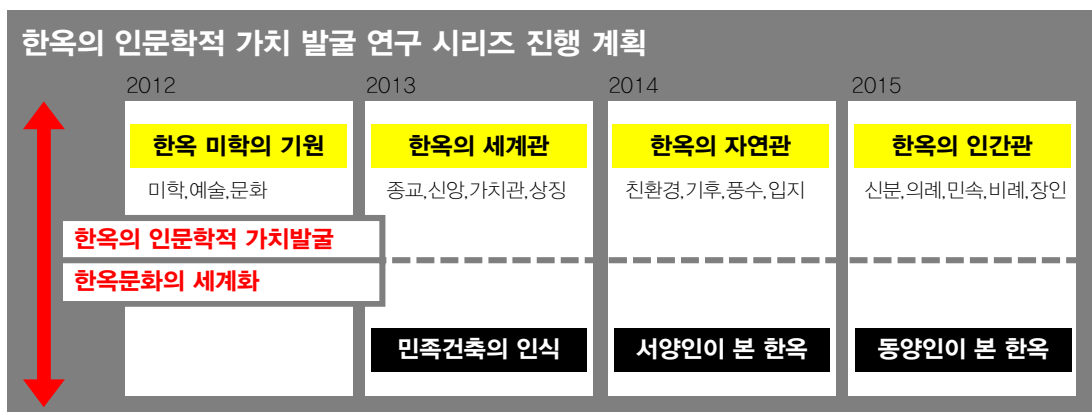
‘인문학적 가치발굴’은 ‘한옥의 세계관’, ‘한옥과 자연관’, ‘한옥과 인간관’을 주제로 2013년부터 3년간 진행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한옥의 세계관과 관련하여 한옥에 얹힌 종교, 신앙, 가치관, 상징 등 탐구방향을 설정하였다. 한옥과 자연관은 입지, 풍수 등 주변환경 및 땅에 관하여 한옥과 인간관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인품에 관한 사항, 인체와 관련한 비례, 관여했던 장인들을 살펴봄으로서 한옥에 대한 인식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림 1-2]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의 틀

‘한옥문화의 세계화’는 2013년 민족건축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 각 국가에서 자국의 전통건축을 어떻게 인식하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주거로서의 한옥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인 가치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문화권에서 한중일의 전통건축은 서로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문화적 산물로서 표현하기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후, 외국인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한옥’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서양인이 본 한옥을 2015년에는 동양인의 본 한옥의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에는 주요기관과의 연계 및 신진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하여 각 학문적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협력적 연구모형을 설정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1-3]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 시리즈 진행 계획

#### 4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2 -한옥의 세계관-

## II.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가신과 당호로 본 한옥의 세계관

1. 연구개요
2. 가신을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3. 당호를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4. 소결

### 1. 연구개요

세계관이란 간단하게 세계에 대한 관점을 뜻한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만큼이나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지역, 인종, 문화 등에 따라서 공유되기도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우주관, 종교(유교, 불교, 도교), 문자이전의 구전과 관련한 신화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건축은 이러한 세계관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산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찰건축물은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고, 서원은 유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다. 쓰임에 따라서 궁궐건축물은 통치와 관련한 세계관을 관아건물은 행정과 관련한 세계관이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을 살펴보기 위한 대상으로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주거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두 개의 관점에서 주거건축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가신으로 대표되는 ‘가정신앙’과 당호로 대표되는 ‘글자문화’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당시의 세계관이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문제와 동시에 지금의 문화적 배경에서 당시의 건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파악, 해석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1) 한옥의 세계관 접근을 위한 전제

□ 한옥을 둘러싼 세계관의 두 가지 측면 : 안채와 바깥채, 가정신앙과 문자문화, 여성과 남성

한옥의 세계관은 다른 표현으로는 한옥이라는 한국의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문화를 검토하는 바탕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하나는 가정신앙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민속학’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문화를 중심으로 한 집의 이름과 관련한 ‘한문학’적 접근이다.

인문학적 연구는 기존의 인문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연구성과를 한옥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공간적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옥의 공간을 안채와 바깥채로 나누었을 때, 각 공간은 여성과 남성, 비문자 문화와 문자 문화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였다. 안채를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정신앙으로 고려하였다. 동시에 사랑채에 대응되는 남성의 공간에서는 ‘글자’로 대응되는 문자문화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1] 한옥의 세계관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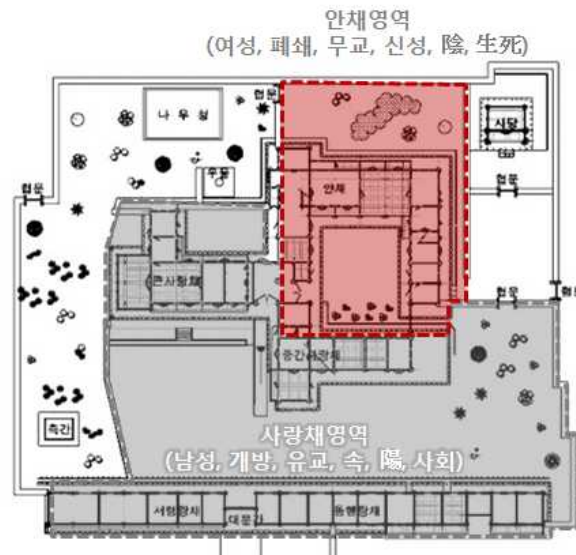
공간영역	바깥채	안채
주체	남성	여성
요소	당호	가정신앙
	유교	무속
연관학문	한문학	민속학
문자여부	문자문화	비문자문화
목적	개인의 수양,	기복 및 가정의 안녕
개방여부	개방	폐쇄
외부인의 접근	가능 (접객의 공간)	불가능 (가족을 위한 공간)

## □ 한옥과 마을, 가정신앙과 마을신앙(무속신앙)

한옥은 독립적인 대상으로도 인식될 수 있지만 그곳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마을 속에서의 한옥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가정신앙의 경우도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어온 신앙체계라기 보다는 큰 범위로는 무속신앙, 작은 단위로는 마을신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관은 세상 모두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이해의 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우선 작은 세계인 한옥 한 채와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을 통하여 점차 확대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주거용 한옥, 가정집의 가정신앙과 당호를 통하여 한옥 한 채에 담겨진 세계관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 □ 실체적 대상인 한옥을 통하여 비실체적인 개념의 영역인 세계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

특정시기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한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한옥에 미쳤던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과정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옥이라는 존재하는 대상에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4] 한옥공간의 안채와 바깥채  
(구례운조루 도면에 재가공)

출처 :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운조루, 문화재청

## 2) 연구의 방법

### □ 인문학 분야와 건축도시분야의 연계를 위한 공유의 장으로서 : 한옥인문학강연회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 분야의 주요연구자에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개인 연구자와 동시에 인문학적 가치발굴과 관련하여 협력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과 주요 연구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진 연구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실제 강연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 □ 가신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다양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가신의 종류와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에 선행하여 한옥의 각 공간과 연계하여 가신의 의미와 형태를 파악하였다. 가신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한옥을 이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가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형화된 한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가신들을 배치하였다. 다만, 가신들에 대한 민속학적 자료의 특징은 한국의 가신으로 단일화된 것으로 묶이기 보다는 각 지역별, 혹은 각 마을, 각 주거별로 다르게 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국을 다룬 가신에 대한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지역별 특수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 문화재급 주거 한옥의 당호관련 DB마련

추후의 성과물로 ‘한옥 이름짓는 책’이라는 단행본을 구상하였다. 한옥에는 건축물이나 집주인의 품성 등에 어울리는 이름을 짓는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한옥들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고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목록은 문화재 목록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만, 이름의 유래와 출처에 대해서는 한문학자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한옥과 관련하여 각종 기문들이나 추가적인 문헌들이 상호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옛 고문헌에서 차용되는 경우 출처가 파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3) 가신 관련 선행연구 검토

많은 부분의 선행연구는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가정신앙에 대한 민속조사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주변 문화권과의 비교연구, 신앙의 기원에 대한 연구 등이 민속학 분야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 ① 민속분야의 개괄서

##### □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1)

민속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된 자료로 각 용어들에 대해서 다양한 필진들이 참여하여서 진행되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을 위한 장기계획(2023년 완료)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로 한국민속신앙사전은 각각 무속신앙, 마을신앙, 가정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분야의 자료를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자료에 나타난 각 신에 대한 1차 정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신을 정의하고 이를 한옥의 각 공간단위(마당, 뒷마당, 안마당, 문, 부엌 등)별로 대응시켜서 이해한다. 건축분야에서 가신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속분야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던 내용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표 2-2] 선행연구검토 - 가신에 대한 개괄서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민속분야의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필진들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다시 원로학자들이 검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가신	정연학(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의 원형과 관련하여 집과 관련한 문화사적 접근
한국의 집지킴이	김광언(2000), 다락방	민속학자인 김광언의 가신관련하여 정리 각 공간별(터주, 나무, 문, 성주, 사당, 삼신 등)의 가신관련 자료
한국의 주거민속지	김광언(1988), 민음사	집터의 풍수, 가신, 건축을 종합적인 검토

## ② 주요연구 동향

무속분야의 주요연구의 경우, 논문은 민속학의 특성상 특정지역에 대한 민속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에 보고하는 형식의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속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들도 단행본으로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민속자료에 대한 기록적 차원이 강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응용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 □ 영역별 구분인 ‘가정’, ‘마을’ 과 일반적인 신에 대한 사상으로서의 ‘무속’

민속의 관점에서는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민속박물관에서 간행된 한국민속신앙사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을민속신앙사전은 3개 부문-마을, 가정, 무속-으로 구분하여 각각 발간되었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 군락으로서의 ‘가정’, 가정이 집합된 형태로서의 ‘마을’, 그리고 장소 혹은 공간, 영역별 기반을 가지지 않는 ‘무속’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표 2-3] 선행연구검토 - 가정, 마을, 무속영역으로의 구분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민속분야의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필진들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다시 원로학자들이 검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신앙사전의 마을신앙 관련 자료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민속신앙대백과사전 발간계획의 일환으로 2002-2007년까지 한국세시풍속사전 이후의 한국민속신앙사전 시리즈 중 하나

### □ 각 지역별 민속적 차이에 관한 연구

가신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해져 오면서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속이라는 것이 동일한 문화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라는 지역적 관점에서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2-4] 선행연구검토 - 각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호남의 가정신앙	서해숙(2012) 민속원	호남일대의 가신관련 민속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 정리
한국의 가정신앙 - 각 도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9)	한국 남한의 9개도를 대상으로 가정신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 보고서 *제2차 민속종합조사보고의 일환으로 진행
한국의 가정신앙	김명자외(2005), 민속원	하권은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 경기도 동북부, 안동지역, 강화도, 한강유역, 강원도 산간, 섬진강유역, 충남 연기군, 남한강 유역, 충청지역, 부산지역, 경주지역 등

#### □ 민속분야에서의 공간적 해석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민속분야의 연구성과를 공간별로 이해하고자하는 연구는 일부가 진행<sup>1)</sup>된바 있으나 본격적인 학문간의 연계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영진(2007)의 연구는 공간문화의 원형인 신화에서부터 마을, 주거 단위에 이르는 공간단위를 각각 풍수지리, 주거민속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비교민속학회에서는 ‘민속과 주거’라는 연구를 통하여 주거문화와 민속을 연결하려는 이해를 시도하여 집에 대한 다양한 민속학적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바 있다.

[표 2-5] 선행연구검토 - 민속분야에서의 공간적 해석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공간과 문화 : 우주·마을·집의 공간문화론적 접근	이영진(2007), 민속원	신화, 풍수지리, 주거민속 등을 통해 우주, 마을, 집으로의 공간개념의 확장과 각 공간별 구성체계, 영역화 부문으로 진행
비교민속학 제32집 민속과 주거	비교민속학회(2006), 비교민속학회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주거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 진행

1) 천득염외, ‘한국전통주거에 나타난 가택신앙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0권 4호, 통권 28호, 2001.12, p43

서해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 제7집, 남도민속학회, 2001

이영진, ‘주거민속을 통해 본 주거공간의 영역화’, 비교민속학 32, 2006.8, p73-89

#### 4) 당호 관련 선행연구 검토

당호 및 현판, 주련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주로 단행본 형식으로 소개하는 책자들이 다수 발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광범위한 연구대상과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고, 국문학(혹은 한문학), 철학분야, 미술학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호에 따라서 주거공간이 다르게 규정되기 보다는 사는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배경 정도로 다루어진 영향이 크다. 현판과 주련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고문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분야 연구에 한계가 있다.

##### □ 궁궐, 누정, 사찰에 대한 현판과 주련에 대한 해제작업

궁궐을 대상으로 한 현판과 주련에 대한 연구는 2006년 진행된바 있다. 다른 건축물들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현판에 대해서는 누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으며 불교건축물은 별도로 종합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된바 있다. 이 외에 ‘한옥문화’ 계간지에 한옥의 주련에 대하여 연재가 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전통주거에 대한 민속조사를 하면서 개별 건축물별로 연구는 있었으나, 종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는 않았다.

[표 2-6] 선행연구검토 - 현판과 주련 관련 (궁궐, 누정, 사찰)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궁궐의 현판과 주련	수류산방(2007)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칠궁에 있는 현판과 주련에 대한 종합적인 해제작업을 진행 (*2006년 문화재청에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의뢰하여 진행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단행본 제작 발간)
한국의 누와 정 : 선비 마음을 다스리다	허균(2009)	전국의 50여개의 누정에 대한 명칭의 어원과 유래, 배후사상, 주변환경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술
서울의 누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12)	서울에 남아있는 88개의 누정의 역사, 문화, 일화, 누정과 관련한 한시 등을 소개
산사의 주련	한민(2010)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대한불교진흥원 (2000)	사찰건축물의 편액과 주련에 대한 해제

#### □ 지역분야의 당호 연구 (안동지역)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안동에 남아 있는 ‘안동의 명현당호’를 1999년, 2002년 2번에 걸쳐서 출간하였다. 조사대상은 호 가운데 집과 관련된 당(堂), 재(齋), 현(軒), 암(菴), 와(窩), 정(亭), 실(室), 각(閣)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문헌자료는 지역 향토지와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안동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한 당호와 관련 인물,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유래나 출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못하였다.

[표 2-7] 선행연구검토 - 지역분야의 당호 연구(안동)

단행본	출판사항	내용
안동의 명현당호	안동민속박물관 (1999, 2002)	안동지역의 당호에 대한 정리

#### 5) 가신 및 당호 주요연구자 정보

[표 2-8] 가신 및 당호 주요연구자 정보

성명	직급	주요저서 및 연구	분야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중장기민속자료수집계획)	삶과생명의공간, 집의문화-가신 중국북경사범대학문학박사	민속
신영순	국립중앙과학관	한국민속신앙사전 -조왕(부역신)	민속
임근혜	안성맞춤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성주(가신의 최고신)	민속
서해숙	전남대, 남도민속학회	호남의 가정신앙	민속
김명자	안동대 교수(민속학)	한국의 가정신앙	원로
정명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과장)	한국민속신앙사전 발간 (마을신앙(2010)-무속신앙(2009)),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위원(민속검직) *건축전공	민속-건축
이영진	경북과학대학 문화재과 교수	공간과 문화 : 우주 마을 집의 공간문화론적 접근, 민속원	민속-공간

성명	직급	주요저서 및 연구	분야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계회도 연구자, 조선궁궐의 그림(왕실문화총서) 등 발간	미술-한국학
최석영	전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	한국 근대 민속인류학 자료 대계(조선위 취락, 조선의 풍수 등 해제), 박물관학 전문가	근대-민속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한문학관련 다양한 단행본 발간	국한문학자
이종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의 문화공간, 사의당지	국한문학자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숙천제아도, 문학의 공간 옛집, 한국 무속국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국한문학자
김영봉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궁궐의 현판과 주련, 국역 승정원일기 등, 한옥문화에 현판과 주련 연제 중	현판 및 당호
전관수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서작 수집고서 해제, 옛집현판번역 작업 진행 중	현판 및 당호
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가능 * 계간지 한옥문화 발간	기획자
김광언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한국의 집 지킴이, 송석헌, 바람 물 땅의 이치,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 한국의 주거민속지	원로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한국전통건축장식의 비밀,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한국의 누와 정, 허균의 우리민화 읽기 * 장식, 그림 등을 통해서 표상하였던 상징세계에 대한 저서 서술	미술
정정남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기록을 바탕으로 한 한국건축사에 대한 작업 진행	인문학-건축
자현 스님	동국대학교 교양 교육원	불교건축에 대한 인문학적 단행본 다수 발간	불교건축

## 2. 가신을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가정신앙은 집을 매개로 가족들의 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과 관련한 신앙행위는 집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성스러운 성격을 부여하며 오랜시간 전해져 오면서 문화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집과 관련한 신들은 결혼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곳에서 새롭게 신을 모시는 행위 등을 통하여 집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도 한다.

집은 또한 가족이라는 1차적인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규정하게 된다. 주로 가정신앙이라는 것은 집안의 여자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농경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가신의 신체(무형의 대상이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는 곡식의 형태나 이와 관련한 나락, 짚 등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그림이나 부적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정신앙은 남성이 주도하는 유교적인 제사와는 차이가 있다. 남녀의 구분이라는 것도 유교적 질서에 의한 구분이므로 이전부터 전승되어온 것에 의해서 특별한 구분이 없기도 하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옛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을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해하여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1) 가신의 종류와 역할

#### □ 개요

가신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과 전승된 집안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신은 집과 관련한 신을 통칭하는 의미로 마을신앙, 무속과 동시에 다양한 민속, 종교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가신의 종류나 구분의 방식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sup>2)</sup>

일제강점기에 이능화(1927)는 성주신, 토주신, 제석신, 업왕신, 조왕신, 수문신으로

---

2) 이번 장에서 설명되는 각 가신에 대한 이미지의 모든 출처는 국립민속박물관(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재인용했음을 밝힌다. 그 외에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경우 이미지 하단에 출처를 밝혀놓았다.

구분하여 각각의 어원, 신체, 봉안 장소, 지역적 차이, 문헌의 근거들을 제시하였다.<sup>3)</sup> 김광언(2000)은 가신을 ‘집지킴이’로 표현하며, 가신을 각 공간(지붕, 외양간, 장독간 등)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름(성주, 삼신, 업, 조왕 등)으로 구분했다.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민속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있고, 서해숙(2012)은 11개로, 정연학(2010)은 가신을 10개로 구분하여 중국의 가신과 비교하여 정리하기도 했다.

민속학 분야에서도 가신의 종류나 정의를 하나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적 특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학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가기관에서 진행된 주요연구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된 ‘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가 가신에 대한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1차 자료로 준용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단위로 진행된 ‘한국의 가정신앙(2005~)’ 연구를 통하여 각 지역별 차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고하였다.

[표 2-9] 연구자별 가신의 분류

이능화(1927)	김광언(2000)	정연학(2010)	서해숙(2012)	본 연구
성주신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조왕신	조왕	조왕	조왕	조왕
—	사당	조상신	조상	조상
—	삼신	삼신	삼신	삼신
업왕신	업	업	업	업
토주신	터주	터주	철룽(터주), 지신	철룽, 터주
—	뒷간	뒷간신	축신	뒷간신
수문신	문	문신	문신	문신
—	외양간(마구간)	가축신	—	가축신
제석신	—	제석과 칠성	칠성	제석과 칠성
—	기타(장소) <sup>4)</sup>	—	—	지붕신, 굴뚝신
—	—	—	영등	

3) 이능화, 「계명」 19(계명구락부, 1927), 이재곤 역,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4) 김광언(2000)의 연구에서 집, 나무, 지붕, 장독간, 샘(우물), 마룻대(상랑), 집들이로 설명하고 있는 가신은

## □ 성주

- 개요 : 가신의 최고의 신으로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신이다.
- 유래 및 특징
  - 성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의 주인인 성주를 신으로 받을던 것, 집을 짓는 성조, 즉 목수의 신을 모시는 것, 하늘의 신 상주(上主)를 모시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실증적인 것은 아니다.<sup>5)</sup>
  - 성조신(成造神)으로도 불리며 집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모셔지기도 한다. 상량식을 할 때 신체(명태, 한지 등)를 매달아서 성주가 모셔지도록 하였다. 대청마루는 생활공간의 중심공간임과 동시에 주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성주는 대청이나 경우에 따라서 안방에 모셔지기도 하였지만,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지는 마루에 보통 모셔졌다. 성주가 안방에 모셔지는 경우, 성주, 조상신 등이 위계가 다소 혼란스럽게 모셔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성주는 집을 지을 때도 제일 맞아들이는 신이며, 지역에 따라 해안가에서는 배에도 성주를 모시기도 한다.



성주 경북 상주시 하동면 판교1리 2002.3.28, 코리아루트  
성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2리 2002.6.1., 코리아루트



성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황현만



성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황현만

본 연구에서 기타 장소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지붕의 경우 기와 등에 나타나는 상징물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가신이기 보다는 집 지킴이로 표현하였을 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주, 한국학중앙연구원

## □ 조왕(竈王)

- 개요 : 조왕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으로 왕으로 인식된다.
- 유래 및 특징 :
  - 부엌은 음식을 만들과 동시에 불을 지피는 곳이기 때문에 불을 관장하는 신이 기도 하다. 조왕은 조왕중발이라고 하여 부뚜막에 물을 떠올려 놓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주로 제작되어 모셔지기도 하며 글로 대신하기도 한다. 아직도 사찰에는 모셔지는 경우가 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6리 양리마을, 2006.1, 코리아루트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황현만

## □ 조상신

- 개요 : 유교적 제사를 통하여 모셔지는 조상과 다르게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서 조상 중 한명을 신으로써 모시는 것이다.
- 유래 및 특징
  - 조상신에 대한 명칭으로 세존(석가모니를 줄여서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 제석으로도 불린다. 제석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인제석을 기원으로 한다.



조상단지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동마을, 2004.7.21. 서해숙



조상단지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 2002 서해숙



## □ 삼신(三神, 産神)

- 개요 : 산신은 출산, 육아, 성장,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 유래 및 특징
  - 삼신은 세 명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산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설이 있지만, 태를 의미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주로 아이가 자라는 안방에 모셔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여자를 조상이 모셔지기도 한다.



삼신 김명자



삼신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2007 백민영

## □ 업

- 개요 :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주로 뱀업, 족제비업, 두꺼비 등 동물로 상징했다.
- 유래 및 특징
  - 업은 재물과 관련하기 때문에, 뒤들, 장독대를 비롯하여 광이나 공간에 모셔지기도 하였다. 터주와 달리 업을 모시는 업가리는 재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새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덮는 방식을 취한다.



업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010.1.10, 윤동환



업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010.1.12, 윤



업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010.7.22, 윤동환

## □ 철룽, 터주

- 개요 : 땅을 돌보는 신으로 집터를 관장하고 집안의 액운을 걷어주고 재복을 주는 신이다. 호남지방에서는 철룽, 영남지방에서는 용단지로 불린다.
- 유래 및 특징
  - 집 뒤의 울타리 안이나 장독대 옆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터주항아리 충북 제천시 오티리  
2003.2.14. 김태우



터줏가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2001.7.15. 김태우

## □ 문신

- 개요 : 문을 지키는 신이다.
- 유래 및 특징
  - 특별한 유래는 없다. 문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제주도나 양반가옥을 제외하고는 대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다른 신에 비하여 비교적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리 마전마을,  
2003.11.16. 서해숙



전북 완주군 봉동읍,  
2004.6.29., 서해숙

## □ 가축신

- 개요 : 집 안의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다 .
- 유래 및 특징
  - 이에 대한 별다른 유래는 없으며, 민속박물관에서 발간된 민속신앙사전에서도 가축신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소를 신성시하여 다루어져온 전통을 생각하였을 때, 외양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 □ 제석과 칠성

- 개요 : 자손의 점지나 출산을 도와주고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칠성은 복두칠성을 의미한다.
- 유래 및 특징
  - 제석은 삼신과 유사하지만, 불교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제석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본 수미산의 정상인 도솔촌에 거주하는 천주(天主)로 알려져 인간의 선악을 주재한다. 삼국유사에서도 환인을 제석으로 보기도 하였다. 칠성은 중국의 도교에서 시작하였고, 정화를 올리는 것을 신의 신체로 인식한다.



가축신\_

소삼신으로 달아맨 구멍 뚫린 돌(경기 양주)

\* 출처 : 김광연(1988)



칠성\_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10.1.16. 윤동환

\* 출처 : 민속문화사전(2011)

## □ 뒷간신

- 개요 : 뒷간, 변소에 있는 신으로, 정확하게는 귀신으로 잡신으로 다루어진다.
- 유래 및 특징
  - 측신은 악한 신으로 다루어져서 별도로 모시지는 않고 뒷간에 빠지는 경우 등에만 특별하게 모셔졌다. 특히, 뒷간이라는 공간이 꺼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각성을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측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2리, 2002.4.28,  
김태우

## 2) 가신이 관장하는 한옥공간의 영역

###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분

한옥의 공간은 내부공간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성격이 규정되는 곳으로 안방, 마루(마리), 작은방, 부엌정도이며 대문, 지붕신, 굴뚝신에 대한 언급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외부공간으로는 같은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앞마당과 뒷마당이 각각 구분되며, 장독대, 우물 등이 있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다만, 문의 경우 양반가옥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없는 경우도 많다.

### □ 가신의 위계별 구분

신들 간에는 명확한 위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하다. 한옥에서 가졌던 공간간의 위계가 가신들의 위계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외부보다는 내부로 바닥보다는 지붕쪽이 위계가 높다. 김태곤(1982)의 연구에서 가신을 3개의 위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가신은 天神, 人神, 雜神이라는 성격상 크게 상위신, 중위신, 하위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상위신에 속하는 성주신과 하위신에 속하는 삼신, 조왕신, 조상신, 측간신 그리고 하위신에 속하는 우마신, 도장지신, 수문신, 철룻신, 용왕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6)</sup>

가정신앙은 생활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조상보다는 호주가 높은 위상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

6) 천득염 외, 한국전통주거에 나타난 가택신앙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0권 4호, 통권28호, 2001.12, p42 에서 재인용

[표 2-10] 가신의 종류 및 좌정공간

위계	성격	가신	좌정공간	비고-거주자
상	천신	성주신	대청마루	호주
중	인신	삼신	안방	안주인
		조왕신	부엌	안주인
		조상신	사당	조상
		측간신	측간	첩
하	잡신	우마신	축사	소와 말
		도장지신	곳간	곡식
		수문신	대문	문
		철룡신	장독대	장
		용왕신	우물	물

\* 출처 : 김태곤(1982),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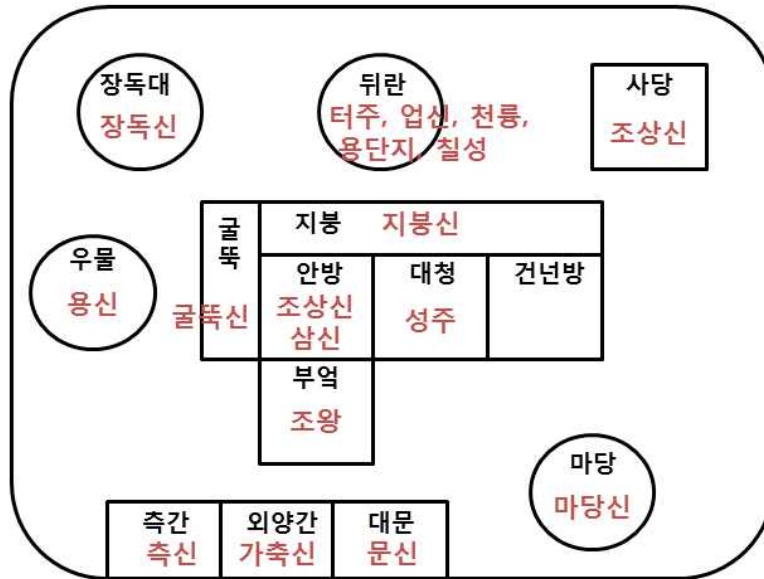
#### □ 한옥의 각 영역과 신들

성주는 집에서 가장 신성한 위치인 마루에서 집을 보호하고, 터주는 뒷마당에서 집을 보호하며, 조왕은 부엌을 각각 관장하며, 조상신, 삼신도 각각 안방과 사당을 관장한다. 대부분 집안의 안녕과 자손의 번창과 관련한 것이다. 업과 같은 재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존재가 크지 않았다. 각 공간별 신을 대응하여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타 신으로는 우물에 위치하는 용신 등을 들 수 있다.

[표 2-11] 한옥의 각 공간과 신들

구 분	공 간	구 분
성주	마루, 안방	내부공간
조상신	안방, 사당	
삼신	안방, 뒤뜰	
뒷간신	측신	내부·외부공간
조왕	부엌, 우물	
업	뒷마당	
터주	뒷마당	외부공간
문신	대문	
가축신	외양간(마굿간)	
제석과 칠성	-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그림 2-1] 한옥의 공간과 신들

즉, 내부공간의 중심인 마루와 안방에는 성주가 자리 잡고, 안방과 사당에는 조상신이 있다. 삼신은 안방에도 자리 잡지만 뒤뜰에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부엌이나 우물에 조왕이 있고, 뒷간신 혹은 측신이 화장실에 있다. 삼신, 조왕, 측신은 실내외 공간에 모두 모실 수 있다. 한편 뒷마당에는 업과 터주가 자리잡으며, 대문에는 문신이, 외양간에는 가축신이 있고, 그밖에 제석과 칠성이 모셔지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공간에 신들이 관여하고 있다.

□ 성주 : 상량식, 기둥, 대청 -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상징

성주는 안방의 다락, 대청의 대량이나 기둥 혹은 기둥상부 등으로 위치한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상량식은 구조체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에 성주가 좌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주고사는 성주신을 모시는 의식으로서 소나무를 통하여 신을 강림하며 소나무의 상징을 통하여 집의 기복을 기원한다.

“상량제는 전통사회의 건축 조영 과정에서 텃고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공정이자 제의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종도리가 올려지는 순간인 상량 때 목조 건물의 구조체가 완성되면서 집도 다 지어지고 동시에 성주가 탄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집의 생일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길일을 택하고, 집을 짓는 과정을 그 공정에 맞게 진행하였다...(중략)...상량(上梁)은 전통목 구조에서 종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를 말한다. 종도리는 목 구조의 최상단부에 위치하는 주요 구조재로서, 종도리를 설치하면 건물의 구조체가 완성된 것으로 여긴다. 상량제는 종도리를 설치하면서 구조체의 완성을 축하하고 축원하는 의식이다. 가정신앙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은 거주자를 위한 소우주로서 신격화되었으며, 건축과정은 집이 신격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상량은 구조체의 완성인 동시에 성주신의 탄생으로 이해되었다.”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2011), p291-293

“성주고사는 앞으로 집을 지켜줄 성주신을 모시는 의례이다. 주인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 시월상달에 날을 받아 지내며 의례는 무당이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당은 중간에 백지 한장을 잡아맨 소나무(이를 성주대라고 한다.)를 들고 마당에 서서 성주신의 강림을 기원하며 성주대가 흔들리면 신이 내린 것으로 여긴다. 신령(성주대에 잡아맨 종이)을 깨끗한 곳에 모신 뒤에 무당은, 뿌린 솔씨가 재목으로 자라고 이것으로 집을 지으며, 또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과거에 급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의 '성주풀이'를 읊조린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p772



□ 안방 : 한옥에서 안방은 여성이 거주하는 생활영역, 가사의 주요 권력을 상징

안방공간은 실내공간에서 여자가 머무르는 제일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중요한 신들인 안방에 좌정하고 있으며, 안방을 물림과 차지를 통하여 집안에서 여성의 최고 권한이 결정되게 된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삼신은 주로 안방에 모셔지며 이를 통하여 안방은 생명이 탄생을 기원함과 동시에 탄생의 장소이자 육아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안방은 외부 남성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자들까지도 출입이 제한되는 주부의 전용공간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안방물림'과 '안방차지'다. 한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시어머니가 안방을 물리고,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함으로써 주부권(主婦權)의 양도와 수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안방의 물림과 차지를 통해 성주신을 비롯한 조상신, 터주신, 조왕신 등의 가신들의 봉사를 포함한 가사 전반의 관할권이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곳간의 관리 또한 안방을 물려받은 새로운 주부가 도맡아야 할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주부권의 양도를 가리켜 '곳간 열쇠를 물리다'라고도 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 한국민속학회(남근우), 민간신앙 1 : 곡령신앙론, 민속원(2008), p367

“삼신은 출산 전 기자(祈子)의 대상이 되며,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현재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보살펴주는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삼신은 생명의 탄생과 아이의 수명, 가족의 건강까지 보살펴주는 신으로서 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삼신은 주로 여신으로 상정되어 가정에 따라 집안의 돌아가신 여자 조상을 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중략)…삼신의 신체는 지역에 따라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편고리, 지양동우, 등 형태가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 신체 없이 건궁 삼신, 공중 삼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신체를 상정하는 경우 대개 신체 안에 햇곡식, 한지, 실타래 등을 봉안한 뒤 안방 한쪽에 시령을 만들어 모시거나 안방 장롱 위에 모신다.”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2011), p255

### 3. 당호를 통해 본 한옥의 세계관

#### 1) 당호 조사

본 연구의 활용가치를 먼저 생각해볼 때, 한옥가치의 현대적 활성화를 위해 일종의 주거운동으로서 전개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부분 신축한옥의 용도는 주거가 차지하고 있으며, 각 집뿐만 아니라 개개의 단위실에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의 미숙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과거 한옥들의 집이름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재급 주거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했다.<sup>7)</sup> 문화재급 건축물의 경우, 처음 지어진 이후로 집 주인이 바뀌면서 당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2] 당호관련 기존연구 사례

당 호	출 처	원문 해석
	개요 및 배경	
추월한수정 (秋月寒水亭)	중국 남송의 대유학자 주자의 시 “재거감흥”의 한 구절	공손히 생각건대, 성인의 심법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차가운 물에 비치는 가을 달빛이라 (秋月照寒水)
	공자의 도학을 주자가 다시 조명 이황의 도학을 후학들이 기려 세운 정자	
근암정 (近庵停)	중용의 구절	높은 곳에 오르는 자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먼데를 가는 자는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한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노둔했지만 불군의 노력으로 학문에 대성 퇴계의 학맥을 이은 근암 류치덕의 정자	
초간정 (草澗亭)	당나라 시인 위응물 “저주서간”의 시	홀로 물가에 자라는 우거진 풀 사랑하노니 “송나라 주돈이가 창 앞에 자라는 풀들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보며 천지의 기운이 생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뜻과 같다”
뇌룡정 (雷龍亭)	장자의 재유편	사동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용처럼 광채가 나타나고 말없이 고요히 침묵하여도 덕은 우레 소리와 같아 사람을 감동시킨다.
	남명 조식의 정자	

이갑규, 한국의 훈 누정, 민속원 : 누정을 대상으로 당호, 출처, 배경, 원문을 해석

7)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궁궐건축물이나 누정건축물 유형에 대해서 연구가 선행된바 있다. 이는 당호의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궁궐건축물 : 궁궐의 현판과 주련 (문화재청, 수류산방)

- 누정건축물 : 한국의 훈 누정 (이갑규, 민속원)

## □ 분석항목 및 양식

기초정보, 관련인물, 해석, 분류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초정보는 문화재유형 및 지정번호, 당호(한글, 한자), 지역, 지정일을 관련 인물에는 인물, 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 해석에는 의미, 출처, 분류에는 원문, 의미로 구성한다.

일련번호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지정번호	85호
명칭(한글)	묵재고택	명칭(한자)	默齋古宅
지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장태골길 39	지정일	1989. 05.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blog.daum.net/shgh1225/8762080">http://blog.daum.net/shgh1225/8762080</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본관은 안동, 자는 찬선(繼先).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의 후손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봉사(奉事)를 지냈음. 이 집은 사당채의 기와에 조각된 기록으로 보아 1516(중종 11)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함.			
의미해석			
의미	침묵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 □ 분석대상 한옥선정

문화재급 한옥의 1차 목록 선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의 유형분류 검색 이용하였고 두 번째로 유적건조물 중 ‘주거생활’ 관련 목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 1,205개의 건조물을 추출하였고, 이 중 중복지정 된 문화재 260동의 건조물을 제외하여 945개 대상으로 추렸다.

이를 다시 건축물이 아닌 우물, 굴뚝 등을 제외하고, 국내 지명 또는 마을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하였다. 다만, 명소 및 자연물의 이름은 포함하였다.

[표 2-13] 건축물이 아닌 것 (예시)

지정번호	문화재명	주소		지정일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慶州 蘿井)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1975-11-20
보물 제810호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 (景福宮 慈慶殿 十長生굴뚝)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1985-01-08

또한, 인물의 성 또는 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하였으며 왕실과 관련한 명칭도 제외하였다. 최종적인 분석대상은 337채를 선정하였다.

[표 2-14] 국내 지명 또는 마을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예시)

지정번호	문화재명	주소		지정일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왕곡마을(高城旺谷마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2000-01-07
중요민속문화재 제90호	하회 남촌택(河回 南村宅)	경북 안동시	풍천면 남촌길 60-5	1979-01-26
중요민속문화재 제181호	의성김씨 율리종택(義城金氏栗里宗宅)	경북 안동시	풍산읍 밤가골길 13-5	1984-01-14
중요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권씨소등재사(安東權氏 所等齋舍)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동골길 94-26	1984-12-24

[표 2-15] 인물의 성 또는 이름이 문화재명으로 사용된 것(예시)

지정번호	문화재명	주소		지정일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安東 義城金氏 宗宅)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1949-9 (천전리)	1967-06-23
중요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가옥 (高城魚命驤家屋)	강원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삼포리)	1984-01-14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榛接呂卿九家屋)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강로961번길 25-14 (내곡리)	1984-01-14

[표 2-16] 왕실과 관련된 명칭(예시)

지정번호	문화재명	주소		지정일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궁집(宮集)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 9 (평내동)	1984-01-14
보물 제1532호	여주 효종 영릉재실 (驪州 孝宗 寧陵齋室)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2007-11-29

## □ 조사내용

관계된 인물의 역사적 기록물을 조사하고 현판 및 편액에 사용된 문구의 원문을 해석하여 숨겨진 뜻을 밝혀서 당호의 근거가 되었던 출처를 정리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즉, 문화재급 주거건축물의 당호를 분석하여 그 출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337채의 주거용 한옥을 대상으로 당호에 대한 의미와 출처를 바탕으로 원문과 의미를 분류하였다.<sup>8)</sup> 당호의 의미파악을 위하여 한문학 전문가(연세대학교 전관수)가 의미, 출처,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출처는 중수기 등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건물과 관련한 인물의 호나, 옛 고문헌(경서)<sup>9)</sup> 등으로 파악되는 경우 기록하였다. 분류항목은 지역, 인물, 자연, 윤리, 인문, 역사, 고사, 생활, 유교사상, 건축, 교육, 민속, 애국, 은일사상, 학문, 국가, 농경, 역사 및 자연, 유교, 전원, 충성, 풍속 등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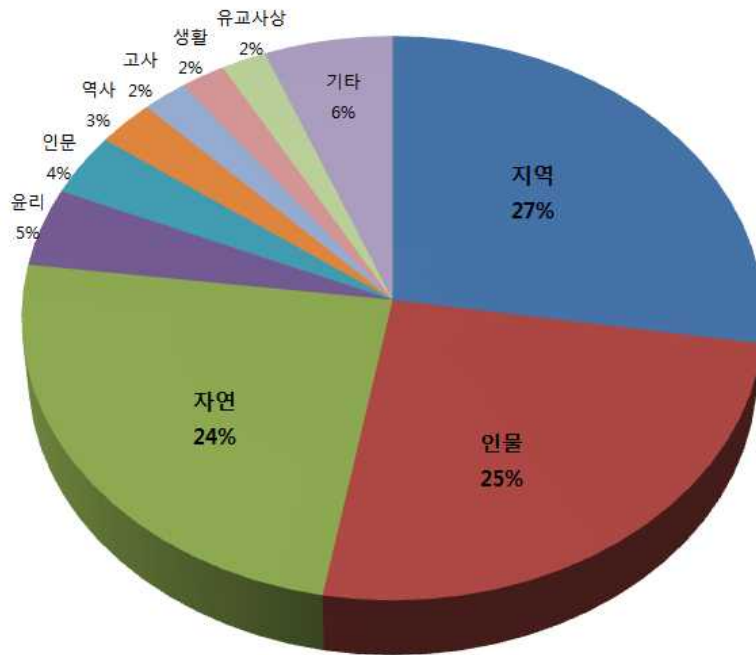
## 2) 당호의 출처와 연원

분석결과 주거의 당호는 ‘지역’, ‘인물’, ‘자연’이 각각 27%, 25%, 24%로 전체의 76%, 약 260여채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조상숭배, 효도와 우애, 심신수련과 관련한 ‘윤리’, 조상숭배, 가족안녕, 단결, 과거시험 등의 ‘인문’, 인물숭배, 왕 ‘역사’와 관련한 것이 일부 파악된다.

- 윤리(조상숭배) : 영양 유우당 - 효도와 우애를 지켜가는 집의 의미로, 『서경(書經)』 『군진편(君陳篇)』에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한다.[惟孝友于兄弟]” 라고 한데서 유래한다.
- 인문(과거시험) : 강릉 계련당 - 계수나무와 연꽃의 집이라는 의미로, 소과(小科)인 생원과 진사에 급제한 것을 연방(蓮榜), 대과(大科)에 급제한 것을 계방(桂榜)이라고 한데서 유래한다.
- 역사(군왕) : 강화 용흥궁 - 용은 임금을 상징한다. 철종은 임금이 되기 전에 이곳에 살다가 임금이 되었음.

8) 추가내용은 부록 2 당호분석 기초자료 참고

9) 경서(經書) :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 《역경》·《서경》·《시경》·《예기》·《춘추》·《대학》·《논어》·《맹자》·《중용》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그림 2-2] 문화재급 주거용 한옥의 당호 분류

당호는 주변의 지역명을 따라서 부르거나, 건물과 관련한 인물을 따르다는 것과 풍류와 은거와 관련한 자연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에서 국내지명이나 마을이름 들어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배제하였으나 해석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옛 명칭이나 자연지형에서 차용하는 등의 경우가 나타났다.

당초에는 옛 문헌 등에서 많은 출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이는 1차적으로 집의 의미는 해석되었지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나 출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처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선행연구로 검토하였던 ‘궁궐의 현판과 주련’의 경우에는 궁궐건축의 특성상 많은 기록자료들이 남아 있고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알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향후, 문화재기록물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인물, 자연의 당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역

지역은 한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한 지명, 지형의 특징을 당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문학적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건물을 통하여 주인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일부 당호에서는 며느리의 출신지역을 따서 붙여지기도 하는데 00택으로 불리는 경우이며, 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주로 재실건축의 경우 건물의 성격상 지역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한 지명, 지형의 특징)

- 의령 입산리 고산재 : 허전(許傳)의 『성재선생문집속편(性齋先生文集續篇)』 「제고산 재강록(題高山齋講錄)」에 보면 집안 대대로 학문을 닦고 쉬는 집을 ‘고산재’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산은 지명.  
[其奕世藏修之室曰高山齋]
- 구미 쌍암고택 : 두 개의 바위라는 의미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집 앞에 있던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 청송 사남고택 : 사양천(泗陽川) 남쪽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를 의미한다.

(기타 : 재실건축)

- 안동 자태사공 성곡재사 : 성곡에 위치한 재사라는 의미
- 성주 효곡재사 : 효곡에 있는 재사라는 의미이다. 효곡은 효곡재사가 있는 곳의 이름. 그가 사는 마을 소곡(所谷)을 효곡으로 부르게 된 것은 1584(선조 17) 이후부터 라고 한다.
- 군지촌정사 : **큰 못이 있는 마을**의 정사라는 의미로, 이 정사가 있는 마을은 군지촌으로 불리며 여기서 못은 **집 앞으로 흐르는 섬진강**을 가리킨다.

(기타 : 00택)

- 군위 상매택, 영덕 천적택, 영덕 번호택, 김천 성산여씨 하회택, 영해 주곡택, 영해 구계택, 청송 초전택 등
  - 영덕 천전택 : 천전(川前)은 이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의 고향인 듯하다. 대개 천전은 우리말로 앞내로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앞내인지는 미상.

[표 2-17] 당호 의미\_지역 (92개소)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성락원	성 안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동산	사적	378호
강릉선교장	배다리[선교(船橋)] 집. 옛날에는 집 앞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중요민속문화재	5호
양동두곡고택	두곡(杜谷)의 옛집	중요민속문화재	77호
하회빈연정사	빈연(賓淵)의 정사	중요민속문화재	86호
하회옥연정사	옥 같은 물이 흐르는 정사	중요민속문화재	88호
구미쌍암고택	두 개의 바위	중요민속문화재	105호
군지촌정사	큰 못이 있는 마을의 정사	중요민속문화재	155호
청운동성천덕	별내	중요민속문화재	172호
하회동하동고택	하회마을 동쪽에 있는 옛집	중요민속문화재	177호
안동 학암고택	학바위	중요민속문화재	179호
안동 귀봉종택	거북 봉우리	중요민속문화재	267호
안동 번남덕	번남의 집	중요민속문화재	268호
달성 도곡재	도자기 굽는 골짜기	대구광역시시 도유형문화재	32호
고령 만남재	만대산(萬代山) 남쪽에 있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48호
영주 우금촌 두암고택	말바위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81호
예천 대지재사	대지에 있는 정사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173호
포항 용계정	용계(龍溪)에 있는 정자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43호
상주 효곡재사	효곡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56호
창녕 금호재	금호(琴湖)에 있는 집	경상남도시도 유형문화재	262호
영주 종릉재사	종릉(鍾陵) 고개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78호
포항 남성재	남성(南城)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302호
거창 모리재	모리(某里)에 있는 재사	경상남도시도 유형문화재	307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영천 금산당	금산(琴山)에 있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333호
안동 의성김씨 학봉종택	학봉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12호
봉화 개암종택	입 벌린 바위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38호
안동 자태사공 성곡재사	성곡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55호
울진 대동헌	순풍을 기다리는 집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65호
안동 서부동 송곡고택	소나무 골짜기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호
안동 토계동 계남고택	시내 남쪽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호
안동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작산(鵲山)의 정사/가창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21호
안동 태장재사	태장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26-2호
안동 남흥재사	남흥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28호
안동 전주유씨 삼산종택	세 개의 산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36호
대산동 월곡택	월곡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6호
강진 효정재	효정의 집	전라남도시도 민속문화재	47호
봉화 도암정	도암의 정자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54호
지례동 양동택	양동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58호
망천동 임당택	숲가의 연못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59호
영천 양계정사	양지쪽 개울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8호
봉화 빈동재사	빈동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7호
예천 연곡고택	연곡의 고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03호
영양 원리 주곡고택	주곡의 고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14호
안동 풍산유씨 수동재사	수동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27호
성주 대산리 도동택	도동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32호
포항 달전재사	달전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43호
안동 송석재사	송석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45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청송 사남고택	사양천(泗陽川)의 남쪽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54호
청송 기곡재사	기곡의 재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55호
성주 대산리 하회덕	하회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76호
진주 동산재	동쪽 산에 있는 집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14호
구미 수남위종택	낙동강 남쪽 자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51호
보은 고현재	고현의 재실	충청북도문화 재자료	72호
송천 세례고택	송천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86호
영천 지산고택	지초(芝草)가 자라는 산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99호
부여 팔각정	팔각형의 우물	충청남도문화 재자료	103호
예천 미산고택	미산의 고택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37호
봉화 무진장재	간직한 것이 다함이 없는 재실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52호
합천 덕암정사	덕암의 정사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168호
괴시동 대남택	대남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97호
산청 송계재	송계의 제사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199호
귀위 광석재	광석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14호
안동 두릉구택	두릉의 옛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59호
청도 운남고택	운강의 남쪽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70호
청송 기곡재사	기곡산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91호
고성 소산정사	소흘산의 재사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293호
경주 덕봉정사	덕봉의 정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13호
화지재	화지에 있는 재실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25호
대산리 하회덕	화회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26호
산천 이사재	공자의 고향에 있는 사수(泗水)에 있는 재실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328호
청송 사남고택	사양천(泗陽川) 남쪽에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40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군위 상매덕	상매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57호
영덕 천전덕	천전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78호
영덕 번호덕	번호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79호
영덕 대봉재사	대봉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81호
김천 성산여씨 하회덕	하회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88호
영해 주곡덕	주곡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93호
영해 구계덕	구계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96호
괴시리 괴정	괴시에 있는 정자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97호
각리 언곡재	언곡의 재실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98호
포항 월동재	월동의 재실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06호
전주류시 호암재사	범바위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09호
영덕 화재 및 육영루	화전(花田)에 있는 재사/영재들을 기르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16호
창녕 우천리 반곡고택	반곡의 고택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420호
청송 초전덕	초전덕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21호
청송 덕양재	덕양의 재실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29호
예천 석문종택	돌문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92호
영양 주강정 및 사고종택	기둥이 있는 강가에 있는 집/물가 언덕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499호
의령 입산리 고산재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517호
의령 전화리 의동정	의령의 동쪽에 있는 재사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519호
의령 전화리 윤곡재	구름 덮인 골짜기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520호
의령 내재리 소강재	소산(昭山) 언덕에 있는 재실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523호
안동 진성이씨 두솔원재사	두솔원에 있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588호

## □ 인물

주인의 호를 당호로 사용한 경우이다. 주인의 호는 옛 문헌인 맹자, 예기 등에서 출처를 가져오며 주인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비교적 집 주인의 세계관의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장흥 존재고택 : 마을을 보존하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존재는 위백규의 호인데 존재라는 호는 그의 스승인 윤봉구가 써준 존존재(存存齋)에서 유래한다.  
또한 『맹자』 「이루(離婁)」에서는 “군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마음은 보존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仁)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 마음을 보존한다고 했다.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 영동 규당고택 : 규(圭) 모양의 집. 지극히 빈한한 집이라는 뜻이다. 규당은 송복헌의 호 『예기』 「유행(儒行)」에 “선비는 가로 세로 각각 10보(步) 이내의 담장 안에서 거주한다. 좁은 방 안에는 사방에 벽만 서 있을 뿐이다. 대를 쪼개어 엮은 사립문을 매 달고, 문 옆으로 규 모양의 쪽문을 내었다. 썩대를 엮은 문을 통해서 방을 출입하고, 깨진 옹기 구멍의 들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라고 했다.  
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簞門圭窬 蓬戶甕牖
- 봉화 오구당구택 : 의로움 다섯 가지를 갖춘 집이라는 의미이다. 조대비의 병을 고쳐주고 인술만 아니라 의리도 높다고 하여 고종이 내려준 호인데, 고종은 다섯 가지 의로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미상. 대개 은고(恩高: 은혜가 높음), 지고(志高: 뜻이 높음), 지고(智高: 지혜가 높음), 수신고(修身高: 수신의 정도가 높음), 수분고(修分高: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높음)를 말한다는 설도 있다.

[표 2-18] 당호분석자료\_인물(85개소)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양동 사호당고택	사호당(沙湖堂)의 옛집	중요민속문화재	74호
하회 겸암정사	겸손을 지키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89호
청도운강고택및만화정	구름 낀 언덕/만 가지가 화목한 정자	중요민속문화재	106호
영동 소석고택	작은 돌	중요민속문화재	132호
영동 규당고택	규(圭)모양의집.지극히빈한한집이라는뜻이다	중요민속문화재	140호
장흥 존재고택	마음을 보전하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161호
해저 만회고택	느즈막에 후회함	중요민속문화재	169호
거촌리 쌍벽당	두 그루 푸른 나무가 서 있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170호
울현동물체당	어긋남이 없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174호
영천만취당	저물녘 푸른빛이 드리우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175호
가일수곡고택	나무가 있는 골짜기에 자리한 옛집	중요민속문화재	176호
만운동 모선루	조상을 흠모하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180호
함양 일두고택	한 마리 졸벌레	중요민속문화재	186호
안동 송소종택	소나무에 깃들여 사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203호
합천묘산묵와고가	침묵하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206호
의성 소우당	소박함을 지키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237호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남쪽 산	중요민속문화재	248호
안동송소종택	소나무 바람 소리	중요민속문화재	203호
나주 남파고택	남쪽 언덕	중요민속문화재	263호
장흥 신와고택	새 움집	중요민속문화재	269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난초가 자라는 언덕	중요민속문화재	271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장흥 오헌고택	오동나무가 있는 집	중요민속문화재	270호
광주 송렬전	열(烈)을 숭배하는 집	경기도시도유형 문화재	2호
안동 탁청정 증가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정자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6호
강릉 임경당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집	강원도시도 유형문화재	46호
강릉 상임경당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집	강원도시도유형 문화재	55호
영동 사로당	네 명의 노인들이 공부하는 집	충청북도시도 유형문화재	151호
영동 영모재	조상님을 길이 추모하는 집	충청북도시도 유형문화재	176호
영덕 덕후루	두터운 덕을 이어가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34호
영덕 경수당 종택	오래 살기를 경축하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297호
영양 취수당	취하여 자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340호
영주 사현정	네 분의 현인들의 우물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69호
화순 학포당	배움의 발을 일구는 집	전라남도시도 기념물	92호
안동 백하구려	장백산[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의 예집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37호
전주 학인당	참음을 배우는 집	전라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호
안동 토계동 향산고택	메아리 들리는 산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호
광진 도정궁 경원당	도정(都正) 벼슬을 한 사람의 집/ 경원군(慶原君)의 집	서울특별시시도 민속문화재	9호
안동 원촌동 치암고택	부끄러움을 아는 바위	경상북도시도민 속문화재	11호
영천 완귀정	물가에 거북이가 노니는 것을 즐기는 정자	경상북도시도민 속문화재	20호
송보사	성현을 숭배하고 보답하는 집	서울특별시시도 민속문화재	21호
상주 우복 증가	어리석게 누워지냄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31호
담양 미암사당	눈썹바위	전라남도시도 민속문화재	36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안동 세덕사	대대로 덕을 주는 사당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37호
주곡동 옥천종택	옥같이 맑은 시내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2호
성주 응와종택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은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4호
장흥 방촌리 근암고택	공부에 힘쓰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6호
안동 이우당종택	두 개의 어리석음을 지켜가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9호
봉화 오고당구택	의로움 다섯 가지를 갖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52호
고령 점필재종택	글을 읽기만 하고 뜻을 모르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62호
영양 회곡고택	회곡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79호
포항 오덕리 사우정고택	사우정의 고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1호
안동 묵재고택	침묵하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5호
성주 수성리 종매택	종매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6호
청도 운곡정사	운곡의 정사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0호
영양 석계고택	석계의고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1호
영주 해우당고택	바닷가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집	경상북도시도민 속문화재	92호
영주 만족재고택	저물녘 대나무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3호
청송 서벽고택	푸른 빛 속에 굶들어 삶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01호
예천 춘우재고택	봄비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02호
봉화 만산고택	저물녘의 산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21호
영덕 곡강고택	곡강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23호
안동 수졸당 및 재사	질박함을 지키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30호
안동 원주변씨 간재공종택 및 간재정	간략함을 지키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31호
안동 죽헌고택	대나무가 있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46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안동 소산동 동야고택	동쪽 들판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47호
영주 평은리 양지암	지초(芝草)를 키우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52호
상주 의암고택	의암의 고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53호
울진 평해항씨 해월종택	바닷가에 뜬 달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161호
성주 극와고택	아주 작은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77호
강릉 보진당	참됨(본성)을 보전하는 집	강원도 문화재자료	6호
통영 백운서재	흰 구름의 서재	경상남도문화재 자료	9호
수성 야수정	가야 땅 늪은이의 정자	대구광역시문화 재자료	14호
안동 지촌종택	지촌의 종택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44호
안동 운천재사	운천의 재사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48호
구미 임하댁	마음을 닦는 집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53호
구미 호고와종택	옛것을 좋아하는 작은 집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57호
장흥 무계고택	안개 낀 시내	전라남도문화재 자료	161호
성주 완정고택	마음을 씻어내는 정자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163호
칠곡 묵헌종택	침묵하는 집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245호
청도 도일고택	도일의 옛집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271호
영덕 대은종택	대은의 종택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278호
영덕 사암재	사암(思庵)의 재사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306호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숨어사는 집	경상남도문화재 자료	345호
안동 한산이씨 대산종가	대산의 종가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408호
봉화 기헌고택	기헌의 고택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419호



## □ 자연

의미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주인의 호이거나, 옛 문헌에서 출처를 가져오기도 한다.

- 달성 태고정 : 태고의 산수를 찾는 정자라는 의미이다.
- 광주 빙월당 : 얼음처럼 맑은 달을 맞이하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고봉집』 「치제문(致祭文)」에 보면, 효종이 을미년(1655, 효종 6) 4월 을묘삭 2일에 예조좌랑 원격(元格)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글에 “물 속의 달과 얼음으로 만든 호로병[수월빙호(水月氷壺)]”이라고 했고, 후손인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송사집(松沙集)』 「빙월당중수상량문(氷月堂重修上梁文)」에서도 같은 말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곧 고봉 기대승의 고결한 인품을 형용하는 말이다.  
일찍이 『송사(宋史)』 「이동열전(李侗列傳)」에서 주자(朱子)의 스승인 이동(李侗)의 인품을 “얼음으로 만든 호로병과 가을달 [빙호추월(氷壺秋月)]과 같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니 우리들이 미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 안동 삼소재 : 세 가지 소박한 일을 갖춘 집이라는 의미이다.  
『삼소재집』 「삼소재기(三素齋記)」에서 친구인 김기언(金耆彦)이 찾아와 편액의 이름을 ‘삼소(三素)’로 지어 주면서 “본분대로 행동하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소산(素山)에 산다.”라고 했다.  
行素履 食素餐 居素山
- 합천 사의정 : 네 가지가 마땅한 정자라는 의미이다.  
이곳이 온전히 경치를 구경하기 위한 정자라면, 네 가지 마땅한 것은 대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뛰어난 경치를 즐기기 마땅하다는 말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곳이 재사에 딸린 정자라는 점에서 보면, 선조들의 묘소가 가까이 있어 제사를 지내기에 마땅하고, 일가들이 이곳에 살아서 모이기 마땅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자제들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마땅한 일이 더해져서 4가지가 마땅한 것이라는 식으로 달리 볼 수 있다.(조경섭(趙兢燮)의 『암서선생문집(巖棲先生文集)』 「사의정기(四宜亭記)」). 그러나 이곳 사의정의 경우 네 가지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는 미상.

[표 2-19] 당호분석자료\_자연(81개소)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안동 소호헌	소호리에 있는 집	보물	475호
달성 태고정	태고의 산수를 찾는 정자	보물	554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녹우(綠雨 : 보슬비)가 내리는 집	사적	167호
강릉 임영관	영주(瀛洲)에 있는 집	사적	388호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매산(梅山)의 옛집/산수를 가까이 하는 정자	중요민속문 화재	24호
양동상춘헌고택	봄을 즐기는 집	중요민속문 화재	75호
송석헌	소나무와 돌이 있는 집	중요민속문 화재	249호
영주 괴헌고택	회화나무가 가득한 집	중요민속문 화재	262호
논산 백일헌 종택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	중요민속문 화재	273호
석파정 별당	바위 언덕	서울특별시시 도유형문화재	23호
괴산 애한정	한가함을 사랑하는 정자	충청북도시도 유형문화재	50호
영양 월담헌 및 사월종택	달이 잠긴 물가에 지은 집/모래가에 뜨는 달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52호
경산 난포고택	난초 밭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80호
영천 호수종택	물가에 사는 늙은이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90호
종로 침류각	물을 베개 삼은 집	서울특별시시 도유형문화재	103호
청주 망선루	신선을 바라보는 누각	충청북도시도 유형문화재	110호
거창 만월당	달빛이 가득한 집	경상남도시도 유형문화재	370호
성주 예산리 만산댁	저물녘의 산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389호
광산 빙월당	얼음처럼 맑은 달을 맞이하는 집	전라남도시도 기념물	38호
괴산 수월정	물 속에 잠긴 달의 집	충청북도시도 기념물	74호
고령 죽유고택	대나무로 만든 바라지창	경상북도시도 기념물	139호
안동 목계서원 및 안동김씨 목계종택	고요히 흐르는 골짜기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9호
안동 태고정	태고의 산수를 찾는 정자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27-2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안동 구봉종택	거북바위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35호
대산동 한주종택	찬 모래톱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45호
안동 의성김씨 운암종택	구름 낀 바위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50호
인량리 용암종택	용바위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61호
영양 학초정 및 정집	흰머리의 나무꾼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64호
영주 괴현고택	회화나무가 가득한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65호
안동 삼소재	세 가지 소박한 일을 갖춘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66호
상주 수암종택	수바위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70호
포한 오덕리 애은당고택	은거를 좋아하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80호
경주 귀래정	돌아와 은거하는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94호
영덕 면운재고택	구름가에 누워 잠을 자는 집	경상북도시도 유형문화재	96호
봉화 서설당	상서로운 눈이 내린 집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04호
안동 산수정	산과 물을 가까이 하는 정자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22호
안동 제산종택	맑게 개인 산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29호
안동 삼벽당	세 가지가 푸른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73호
창원 월영대	달 그림자의 누각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1호
광주 지수당	연못 물의 집	경기도문화재 자료	14호
수정재	수정암의 재사	대전광역시문 화재자료	30호
월송재	달이 걸린 소나무의 집	대전광역시문 화재자료	31호
안동 국탄덕	국탄의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5호
구미 삼가정	세 그루 개오동나무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50호
안동 수애당	물가의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56호
영양 약산당	약산의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81호

이 름	의 미	유형	지정 번호
청원 백석정	흰 돌이 있는 정자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82호
합천 사의정	네 가지가 마땅한 정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03호
보성 취송정	푸른 솔이 있는 정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36호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해월의 종택	경상북도시도 민속문화재	156호
안동 죽헌고택	대나무가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64호
영양 가곡동 월잡고택	달이 뜬 봉우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95호
괴시동 해촌고택	바닷가 마을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199호
영덕 만괴헌	저물녘의 회화나무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09호
장성 이진화가옥 사랑채 [야은재]	들판에 숨어사는 사람의 집	전라남도문화 재자료	242호
안동 반구정재사	갈매기와 함께 노는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58호
청도 섬암고택	섬계(剡溪)에 있는 바위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68호
밀양 만운재	수많은 구름	경상남도문화 재자료	272호
안동 금곡재	금곡의 재사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72호
칠곡 해은고택	바닷가에 숨어 살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275호
봉화 백암재사	잣나무가 있는 바위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03호
안동 남천고택	남천의 고택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24호
인금리 월오헌 고택	달이 비치는 마을에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30호
상금곡 사괴당고택	네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37호
봉화군 해와고택	바닷가의 작은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38호
영덕 강파헌정침	강가 언덕에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58호
의성 운곡당	구름 낀 골짜기의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74호
의성 소계당	작은 시냇가에 있는 집	경상북도문화 재자료	376호

이름	의미	유형	지정 번호
의성 서계당	서쪽 시냇가에 있는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77호
성주 기국정	구기자와 국화꽃이 있는 정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82호
봉화 남호구택	남쪽의 호수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85호
오촌리 갈암고택	흙덩굴의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99호
영양 월잠종택	달이 뜨는 봉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30호
안동 천전리 추파고택	가래나무가 있는 언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32호
영양 하담고택	연꽃이 있는 연못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41호
산청 안봉리 수월정	물 속의 달이 비치는 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54호
의령 벽계리 청금정	거문고 소리를 듣는 정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84호
봉화 옥류암	옥 같이 물이 흐르는 암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531호
봉화 해은구택	멀리 바닷가에 숨어사는 사람의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560호
성주 죽백고택	대나무 잣나무가 있는 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602호
영양 석간고택	돌이 있는 골짜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603호

## 4. 소결

### 1) 가신과 당호를 통한 한옥의 이해

한옥의 공간은 자기반성과 가정의 안전과 번창을 기원하는 신앙의 공간이며 교육의 공간이었다. 앞서 살펴본, 가신을 통해 본 한옥과 현판과 주련 등은 각각 집안의 안정을 기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을 걷는 10월말과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가신을 다시 모시는 행위들이 이루어졌지만, 기복의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다. 동시에 ‘당호’는 자신의 개인적인 호로도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왔다. 한옥의 각 공간과 장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온 것이다.

#### ① 가신을 통해 본 한옥

한옥의 각 공간은 가신이라는 요소로 살펴보았으나 그 공간에서 행하여 졌던 행위와 의미들은 그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집이라는 영역은 바깥의 나쁜 기운과 차단되는 영역이며 이곳은 터주, 성주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역이다. 입구의 대문에는 액운이 들어올 수 없는 상징이 부여된다, 마당은 집의 영역이지만, 개방되어있고 방문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뒷마당의 영역은 쉽게 외부인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의 기본적인 장류들이 있는 장독대가 있으며 산줄기 등과 연계되는 공간으로 의미를 가진다. 실내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방은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 집안을 관장하거나 조상이 모셔지는 곳으로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서의 위계를 가짐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집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엌에서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청결함이 요구되는 곳이다. 가정신앙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에 조왕이 위치한다. 측간은 무서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화의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쁜 요소들이 이곳을 통하여 정화된다.

## ② 당호를 통해 본 한옥

당호는 집 주인이 자신의 집이 어떻게 불리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붙여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호는 집주인의 호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개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를 집에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집의 의미와 개인의 정신적 가치가 동일한 위상에 있음을 드러낸다. 주거용 한옥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지명, 인물, 자연에 유래한 것이 75%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건물이 위치한 지명에서 유래를 찾거나 건물과 연계된 사람에서 당호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집주인의 호와 당호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에서 유래한 경우, 자연에서 따르고 싶은 모습을 당호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호는 주인에 따라 변하기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판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현대주거문화에 있어서 한옥세계관의 적응방안

현대주거에서는 더 이상 신앙의 공간을 집 안에 마련하지 않으며 집을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신앙의 공간은 별도의 교회, 사찰건축에서, 교육의 공간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집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점차 집 밖의 다른 공간을 통하여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옥문화의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에서 집과 공간의 의미들을 재현하여 현대주거문화에 되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 □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

현대주거에서 기복, 자기반성 공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다. 굳이 이러한 공간을 찾자면, 남자의 경우 ‘서재’, 여자의 경우,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으로 대체되거나 ‘욕실’ 정도일 것이다. 혹은 거실공간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집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공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 보다는 휴식과 안락의 공간을 늘리는 일에 힘써왔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결한 마음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적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가미다나(神棚)’ 혹은 ‘부츠단(佛壇)’을 설치한 주택이 많다. 가미다나를

통해서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러한 공간은 신성한 곳임을 상징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밧줄을 붙인다. 부츠단은 불단으로 그 성격은 가미다나와 유사하다. 주저 내에 위치한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정기적인 의례행위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반성하고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옛집을 방문하게 되면 마루나 안방에 가족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행위이다. 기존의 가신의 숭배방식은 아니지만,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사진이라는 형태로 대체하여 지속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렇듯 가족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기원하는 행위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속되어 왔으며, 현대적 세계관에 맞추어 새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림 2-3] 옛집 안방공간 상단의 가족사진 모습  
(출처: <http://blog.daum.net/sarahseo/1402>)



[그림 2-4] 옛집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모습  
(출처: <http://wed1204.blog.me/130016658386>)

#### □ 집이름으로 인생관을 드러내는 방식

건축물과 실내공간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은 개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인생의 각오를 다지고 진력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 한옥건축이 부각되면서 다시금 집에 이름을 짓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당호는 단순히 건축물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의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건축물과 공간에 이름 짓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성찰을 전제로 한다. 또한 여러 실내공간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임으로써 공간의 성격과 그 안에서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호는 우리 건축문화가 한 층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당호는 한옥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3) 전통문화 콘텐츠로서의 “신” 의 가능성

전통문화 중 가신 및 신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문화산업이 결국은 독창적인 스토리의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문화에 기반을 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림이라는 쉬운 매체를 통하여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옥을 설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 신과 함께 (주호민, 2010, 애니북스) : 신을 소재로 한 웹툰, 단행본

네이버를 통하여 웹툰 형식의 ‘신과 함께’는 신화, 저승, 이승의 시리즈를 통하여 한국의 신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화로 제작하였다. 최근에는 영화화 작업이 진행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 □ 우리집에 사는 신들(이유정, 2010, 상)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신 단행본

가신을 소재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다. 가신 대부분이 신체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해를 위하여 각 공간별로 가신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가신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2-5] 신과 함께  
책자 표지



[그림 2-6] 우리집에 사는  
신들 책자 표지

□ 오방대제와 한국의 신들을 찾아서(한국콘텐츠진흥원)<sup>10)</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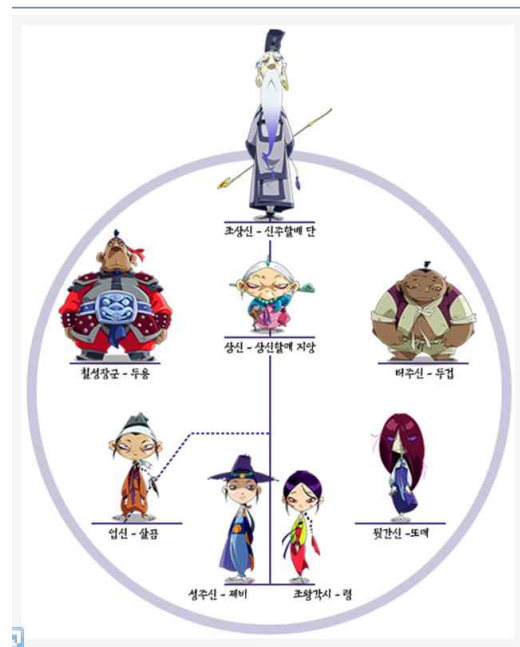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한국에 존재하였던 여러 신들을 126신으로 정리하고 각 신 별로 설명자료와 이미지화 작업, 오방대제 계통도, 분류에 따른 신(문헌신, 불교신, 무속신)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씨나락 (동우에니메이션, 2005)) : 가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sup>11)</sup>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씨나락 : 천년고택이야기”도 기획된 바 있다. 집지킴이들이 현대 인간들과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는 각각 이미지(일러스트, 포토), 동영상, 텍스트(시놉시스, 해설, 시나리오)로 제공된다.



[그림 2-7] 성주신 이미지



[그림 2-8] 가신소재 애니메이션 ‘씨나락’

10)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내 ‘오방대제와 한국의 신들을 찾아서’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224&index\\_id=cp02240001&content\\_id=cp022400010001&search\\_left\\_menu=1](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224&index_id=cp02240001&content_id=cp022400010001&search_left_menu=1)

11)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 내 ‘씨나락’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531](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2&cp_code=cp0531)

### Ⅲ [한옥문화의 세계화] 한옥의 설명방식

1. 연구개요
2. 건축유산의 안내문안 구성과 형식
3. 주요 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 구성 분석
4. 소결

#### 1. 연구개요

##### □ 필요성 및 목적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옥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거문화를 형성하여 오고 있으며, 그 고유한 가치는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상호 교류되고 전파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의 설명방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한옥 자체의 설명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눈으로 본 한옥의 모습과 외부인이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옥의 설명방식을 고찰하는 목표는 한옥의 가치가 설득력있게 서술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 □ 연구주제 및 방법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는 2012년에 현대한옥미학의 주요어휘를 살펴보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근대 이후 주요 단행본, 기사에서 한옥의 미학을 설명하는 주요 서술어를 추출하여 관계를 분석했다. 2013년에는 보다 대중적이고 접근가능성이 높은 문화재 안내문안을 수집했다. 특히 현대한옥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주거용 한옥문화재 설명문안의 특성과 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서 UNESCO

세계문화유산 선정기준 및 주요 유산의 설명문안을 검토했는데, 보편적인 가치로서 민족건축을 서술하는 형식을 참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해외 단행본 중 민족건축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을 수집 및 정리했는데, 2013년에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목록화하는 것으로 작업을 정리했고, 추후 본격적인 분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근대기 한국 기행문 등에 나타난 한옥의 인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옥의 첫인상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내재적인 특성만을 탐구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표 3-1] 한옥의 설명방식 연구 주요주제 및 방법

주요주제	연구방법
한옥을 설명하는 주서술어	근대 이후 주요 단행본, 기사에서 한옥의 미학을 설명하는 주서술어를 추출하여 관계를 분석 (2012)
한옥 문화재 안내문안 분석	주거용 한옥문화재 설명문안의 특성과 구성을 분석 (2013)
외국인이 서술한 한옥의 특성	근대기 한국 기행문 등에 나타난 한옥의 인상의 특징을 분석 (2014 예정)
민족건축의 가치	UNESCO 세계문화유산 선정기준 및 주요 유산의 설명문안 분석 (2013)
민족건축의 설명방식	해외 단행본 중 민족건축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을 수집 및 정리 (2013 목록화)

## □ 민족과 민족건축

민족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민족이란 “한 지역에 오랜 기간동안 어울려 살면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집단 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집단의 최대단위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가리키는 말”<sup>12)</sup>이다. 한옥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주거로서, 일종의 민족건축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시기 서구의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자결주의 등 실천적 맥락에서 새로 형성된 개념이다. 따라서 민족이라는 관점만으로 기존의 주거문화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경 안의 건축물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모두 민족의 소유권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1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건축유산의 안내문안 구성과 형식

### 1)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과 가치서술

####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건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내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I 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 □ 세계유산 등록기준

-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 보호 및 관리 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표 3-2]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키워드

구분	기 준	사례	주요항목, (키워드)
문화유산	I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b>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b>	호주 오페라 하우스	<b>창의성</b>
	II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b>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b>	러시아 콜로멘스 코이 성당	<b>인간가치</b>

구 분	기 준	사 례	주요항목, (키워드)
III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b>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b>	태국 아유타야 유적	<b>독자성</b>
I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b>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b>	종묘	<b>역사성</b>
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b>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b>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b>정주성</b>
VI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b>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b>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b>연관성</b>

#### □ 세계유산 등록방법 및 가치설명의 사례

세계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카테고리 중 2개 이상의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가치를 서술하여 신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섯 가지 기준은 각각 창의성, 인간가치, 독자성, 역사성, 정주성, 연관성의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안서에 면밀하게 서술하여 위원회를 설득시켜야 한다.

- 한국의 양동마을은 등록기준이 세계문화유산의 3과 4 기준에 해당<sup>13)</sup>
  - 3 ;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 4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전 세계의 문화권을 크게 유럽(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아시아(이슬람,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메리카(중미, 남미)로 구분하고 주요 유산을 각각 왕족/ 귀족관련, 종교관련, 도시/마을관련 3가지로 선정한 후 서술을 분석하였다.

[표 3-3] 주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설명 요약

국가명	문화유산	1 창의성	2 인간가치	3 독자성	4 역사성	5 정주성	6 연관성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 Acropolis, Athens (1987)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건축이 자연의 현장에 적응된 최상의 표현물이다.	전 세계의 신교전주의적 기념물들은 모두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신화에서부터 관습화된 숭배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종교를 독특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천년 이상 되는 그리스 문명을 예증한다.		아크로폴리스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절대 잊혀지지 않고 역사의 흐름과 연관되어 왔다.
그리스	밋새의 아폴로 에피큐리우스 신전 / Temple of Apollo Epicurius at Bassae (1986)	밋새의 신전은 고대 그리스풍의 건축 양식을 통해 독특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신전은 그 자체로 그리스와 로마 문명, 그리고 이후의 문명들에서 세워진 모든 '코린트식 기념물'들의 원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located in a rural setting. 밋새의 신전은 고립된 전원지역에 건축되어 외부로부터 잘 보존되어 있다.			
포르투갈	토마르의 그리스도 수도원 / Convent of Christ in Tomar (1983)	이 유산은 초기 템플기사단의 교회는 물론 르네상스 건축물에 기준을 제공한다.					사실상 투마르 수도원은 원래 레콘키스타의 상징 기념물이라고 인식되지만, 마누엘 시대부터는 정반대의 상징이 되었다. 포르투갈이 외부 문명에 문호를 개방했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다.

13) 한국유네스코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heritage/wh/korwh\\_villages.asp](http://www.unesco.or.kr/heritage/wh/korwh_villages.asp)

국가명	문화유산	1 창의성	2 인간가치	3 독자성	4 역사성	5 정주성	6 연관성
터키	이스탄불 역사지구 / Historic Areas of Istanbul (1985)	비잔틴제국과 오스만제국 시절의 독특한 건축 결작으로 인정받는 기념물을 포함한다.	역사를 통해 이스탄불에 있는 기념물 모두는 건축, 기념비적 미술과 공간 구성의 발전에 있어 유럽과 근동 (Near East, 발칸 반도 또는 오스만제국 영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스탄불은 비잔틴과 오스만 문명에 독특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인류 역사의 매우 뚜렷한 시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축과 기술적 앙상블이며 탁월한 기념물 세트이다.		
이집트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 Ancient Thebes with its Necropolis (1979)	아몬 신의 도시 테베는 카르낙과 룩소르의 영광을 가리는 인상 깊은 유적이 있는 사원들로 유명하다. 거대한 이 건물군은 여러 차례 확장되었고, 그 속에 고대의 뛰어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념물은 이집트 고대 문명을 잘 증언하고 있으며, 테베의 기념비적 건축물의 독특하고 명확한 성격을 보여준다.			테베의 사원과 무덤, 왕궁 같은 기념비적이고 고고학적인 유적은 장인과 예술가의 조각, 비문, 수많은 화려한 재현물과 함께 미학적인 뿐만 아니라 문헌학적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서와 회화는 시리아, 히타이트, 에게 문명은 물론 누비아, 폰트, 리비아 같은 이웃 국가의 주민과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다.
인도	카주라호 기념물군 / Khajuraho Group of Monuments (1986)	섬세한 건축 양식과 생명력 넘치는 성적인 조각품으로 구성된 독특한 예술 유적이다.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종교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해괴망측한 표현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카주라호 사원들은 1202년 이슬람교도의 침입 전까지 인도에서 번창한 찬델라 문화를 증명하는 탁월한 유적이다.			



국가명	문화유산	1 창의성	2 인간가치	3 독자성	4 역사성	5 정주성	6 연관성
인도	엘로라 석굴 / Ellora Caves (1983)	석굴의 양상불은 인도 중세 시대의 예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다.(본문) 수준 높은 조형적 특성과 훌륭한 설계를 바탕으로		엘로라는 600년~1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된 기념물로, 고대 인도 문명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엘로라 석굴은 불교·브라만교·자이나교가 섞여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 신전과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규모가 큰 세 종교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 강화에 기여한 고대 인도의 특징인 관용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
베트남	하노이 탕롱 황성의 중앙부 / Central Sector of the Imperial Citadel of Thang Long (2010)		탕롱의 제국주의 시대 성채 중앙 구역 - 하노이는 북쪽으로는 중국의 문화와 남쪽으로는 고대 참파 왕국의 문화가 만나서 교류하였음을 증명하는 곳이다.	하노이는 홍강 계곡 하류의 삼각주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발달시킨 유서 깊은 문화 전통을 보여 준다.			하노이는 정치적인 기능과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중요한 문화·역사적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일본	호류사의 불교기념물군 /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1993)	호류사의 불교기념물군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장식 측면에서 목조 건축의 걸작이다.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직후 세워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조물로 이후 일본의 종교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불교 건축 및 가람 배치 양식의 수용, 이후 일본 고유의 독특한 건축양식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에 불교가 유입되고, 쇼토쿠대자(聖德太子)가 불교를 장려한 정책은 이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일본	나라의 역사기념물군 /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1998)		고대 도시 나라의 역사 기념물은 중국 및 한국과의 문화 교류의 결과물로서, 일본의 건축과 예술의 발달을 훌륭하게 입증하는 사례이다. 중국과 한국은 이후의 일본의 문화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나라 시대에 일본 문화는 화려하게 꽃을 피웠으며, 이는 건축 유산에 잘 드러나 있다.	현존하는 역사 기념물의 디자인과 왕궁의 배치는 고대 아시아 국가의 수도의 건축과 설계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사례이다.		나라의 불교 사찰과 신사는 이들 종교의 지속적이면서도 영적인 힘과 영향력을 잘 드러낸 준다

국가명	문화유산	1 창의성	2 인간가치	3 독자성	4 역사성	5 정주성	6 연관성
중국	둔황 모가오굴 / Mogao Caves (1987)	실크로드의 전략적 지점에 위치한 모가오굴 492개 동굴과 석굴 사원은 불교 미술의 1,000년 역사를 보여주는 입상과 벽화로 유명하다.	모가오 굴은 북위(北魏, 386~534)에서부터 원(元, 1276~1368)의 몽골 왕조에 이르는 1,000년 동안 중 외국, 중앙 아시아와 인도의 예술적인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가오 굴의 벽화는 수(隋)·당(唐)·송(宋) 나라에 이르는 고대 중국 문명의 이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천불상 동굴은 불교 석굴 사원의 탁월한 예이다.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불교 승려가 사용했던 모가오의 바위 동굴에 있는 예술은 전통적인 수도원 정착지의 사례로서 잘 보존되어 있다.	모가오굴은 동서 문물 교류의 역사 뿐 아니라 불교의 아시아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만리장성 / The Great Wall (1987)	명나라 시기에 건축한 만리장성은 대담한 공사 수행의 특징뿐 아니라 건축학적 완벽성을 갖춘 절대적인 걸작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건설된 것 중 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춘추시대 중국인들은 북쪽 국경을 따라 방어벽을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건설 공법과 공간 구조를 확립하였다.	만리장성은 고대 중국 문명의 탁월한 증거이다. 흙을 다져 채워 넣는 방식으로 건축한 성벽은 명나라의 놀라운 면에서도 보편성을 지닌 건축술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만리장성은 복합적이고 통시적인 문화재로서 2,000년 동안 오직 전략적 목적으로 유지된 군사 건축물의 특별한 사례이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성벽의 목적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침략자들의 관습으로부터 중국인의 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었다. 성벽의 축조 과정에는 중국 백성들의 고난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중국 문화, 명나라의 소설 등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한국	석굴암과 불국사 /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5)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영한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전후의 통일신라 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단과 목조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이다.		

국가명	문화유산	1 창의성	2 인간가치	3 독자성	4 역사성	5 정주성	6 연관성
한국	종묘 / Jongmyo Shrine (1995)				종묘는 유교 예제에 따라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유교의 조상숭배관이 독특하게 결합된 한국의 사묘 건축 유형에 속한다.		
한국	창덕궁 /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1997)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창덕궁의 궁궐 배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궁궐 건축양식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 준다.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지형을 존중하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변형을 가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북한	고구려 고분군 / 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 (2004)	고구려 고분 벽화는 고구려 문화의 걸작이며, 고분의 구조는 정교한 건축 공법을 보여 준다.	고구려 문화의 독특한 매장 풍습은 일본을 포함한 인근의 다른 지역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고분은 고대 매장 양식의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문화(i)(iv), 1995), 종묘(문화(iv), 1995), 해인사 장경판전(문화 (iv)(vi), 1995), 수원 화성(문화(ii)(iii), 1997), 창덕궁(문화(ii)(iii)(iv), 1997), 경주역사유적지구(문화(ii)(iii), 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문화(iii), 2000),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자연(vii)(viii), 2007), 조선왕릉(문화(iii)(iv)(vi), 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문화(iii)(iv), 2010) 등이 있다. 이중 건축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역사성(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을 내세우는 것들이 많으며, 인간가치(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독자성(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하회와 양동)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을 내세운 건물은 석굴암과 불국사 하나뿐이다.

## 2) 국내 문화재안내문 가이드라인

### □ 문화재 안내문 개선 사업과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안내문은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궁궐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에는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출판하였다. 또 2010년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고, 2011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12년에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표 3-4]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의 주요내용

연도	주요사업	사업내용
2006	제1회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대학생 공모전 개최	06년 1회, 07년 2회 총 두 번에 걸쳐서 개최
2006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재)아름지기, 홍익대 안상수, 한예종 김봉렬, ㈜안그라픽스, 예일대 Michael Rock, 2x4디자이너사 참여
2007	화엄사 등 사찰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디자인 공모 방식 후 대상 수상자(브랜드나인) 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설계
2008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출판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적 특색을 배제하고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내판을 설치 및 보급하기 위함
2009	주요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을 완료	궁궐(4대궁·종묘), 사찰(화엄사·해인사), 왕릉(동구릉),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 서원 및 향교(소수서원)
2009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출판	08년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에서 내용과 사례집을 추가함
2010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출판	문화유산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용역’보고서 출판	문화재 해설사를 포함하여 미디어 콘텐츠 분야 등을 이용한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	2012.12.31 문화재청 훈령예규집 내 [별표2]로 안내판 관련 내용이 공시됨

문화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서적으로는 창덕궁문화재해설팀의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덕궁』(컬처북스, 2002)가 있다. 이 책에서는 창덕궁의 각 영역을 중심으로 각 건물의 기능을 해설하였고, 조선 왕조 및 조선시대 주요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창덕궁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창덕궁의 모습과 가치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각 건물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

다. 정찬종과 광영대의 『관광문화재해설』(백산출판사, 2012)는 한국의 관광문화재를 1장 정의, 2장 유형문화재, 3장 무형문화재, 4장 기념물, 5장 민속자료 로 나누어 교과서 형식으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명은 2장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부분과 4장 기념물 중 사적 부분 참고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알기쉽게 각 종류별 문화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국대학교 우정권, 서병문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문화재청, 2011)에서는 문화유산을 개별적으로 보지않고 지역적 공간과 주변 역사를 통합한 종합적 해설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들 책에서는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깊이 있는 가치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공간활용, 상호연계형, 실제공간결합형 등 문화재 해설의 전체적인 구조가 유형화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설명하는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 □ 문화재 안내문 개선에 관한 최근 연구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등록문화재 중 주거용 문화재 중심으로 등록기준과 문화재정보의 설명에 언급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의 내용적 의미를 비교해서 살펴본 연구(이민경 외, 2008), 국문학적 관점에서 대구지역 문화재 안내문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오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연구(송지혜, 2011), 전주 전동성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안내판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설명과 전문설명 등 총 4가지의 영어설명에 있는 오류를 살펴본 연구(최희섭, 2011) 등이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이 아니라 문안을 살펴 본 연구들이다. 다만 문화재 안내문의 구성에 관해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틀로써 접근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3-5] 문화재 안내문 개선에 관한 최근 연구

이민경 외1명	문화재정보에 게시된 역사적·학술적·건축적 가치의 내용적 의미 : 등록문화재 중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8
2007년 기준 등록문화재 중 주거용 문화재 중심으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과 문화재정보의 설명에 언급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의 내용적 의미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각 가치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성격의 문화재에 나타나는지 조사			

이찬 외1명	문화재시설 안내시스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조선 왕릉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2008
조선 왕릉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역사적 이미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통합적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내문의 색채, 크기, 형태 등을 제안함			
김효정	경복궁 모바일 폰 안내가이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람 콘텐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시각디자인 전공 석논	2008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 기반의 관람 가이드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고찰하여 이를 모바일 안내 가이드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로서의 모바일에 적용한 콘텐츠 디자인을 제안			
송지혜	문화재 안내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소재 지정문화재 안내문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국문학적 관점에서 대구지역 문화재 안내문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오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박정현	문화재 안내텍스트의 번역전환 양상 : 정보성을 중심으로	부산대 영문학과 석논	2011
부산지역 문화재 안내문안집을 토대로 영문학적 관점에서 안내문안이 가져야할 텍스트적인 특성에 대하여 밝히고, 한-영 번역전환 양상을 분석			
최희섭	전동성당의 영어 안내판 오류 분석	동화와 번역	2011
전동성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안내판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설명과 전문설명 등 총 4가지의 영어설명에 있는 오류를 살펴봄			
소현수 외1명	문화재 안내판의 배치와 디자인에 대한 고찰 -종로구 소재 서울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2
본 연구는 모니터링 성격으로 종로구 소재 서울 유형문화재 안내판 26개소의 설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주변 경관까지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디자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 □ 문화재 안내문 가이드라인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을 위해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바 있다.<sup>14)</sup> 가이드라인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형태와 크기, 색채와 레이아웃의 문제점들, 소재 측면에서 자연경관 및 문화재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이 어려운 문제, 설치 위치 측면에서의 문제, 중복설치의 문제 등이 지적되어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안내문안 측면에서는

14) 문화재청,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2008.08.

문안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이 많다는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되었으며, 안내판 개선의 핵심으로 안내문안의 내용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세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5개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 안내문안 작성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2008)
  - 안내문안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초등학교 3년생 이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건축구조 및 형식 등 전문적인 용어를 지양하며 학습 목적의 전문적 지식은 리플릿 등 타 매체를 통하여 보완한다.
  - 다른 매체와의 역할분담과 연계내용을 고려한 정확하고 기본적인 정보위주로 작성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흥미유발을 위하여 Story-telling기법의 가미도 고려한다.
  - 다국어 표기로 인한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안은 2개 국어(국/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외국어는 리플릿 등 타 매체로 대체
  - 최종 작성된 국어 문안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이어 발간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을 통해 문화재안내판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12년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sup>15)</sup>의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제9조 관련)에 10가지로 정리된 기본원칙이 되었다.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쉬운 단어를 이용하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며,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서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가치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 되었으며,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보다 흥미있는 설명문이 되도록 유도했다.

---

15) 제정 2012. 9.10. 문화재청 예규 제112호

[표 3-6]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2012)

1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첨가할 수 있다.
2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3	안내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4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5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6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7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8	안내문안 내에서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하도록 한다.
9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10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원칙에 의해 문화재 설명문은 일정한 서술순서를 가지게 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순서는 같은 지침의 ‘문화재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부분에 등장한다.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의 설명하는 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한옥의 건축적 가치는 대체로 개별안내판에 설명된다. 지침에서는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연혁과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순서로 안내문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건축의 특징을 묘사하는 부분은 제일 먼저 나오는 문화재의 규모와 중간의 문화재적 가치 및 주요 관람 포인트가 된다.

[표 3-7] 문화재 안내문안의 구성요소(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2012)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li> <li>•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li> </ul>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혁, 유래(관련 이야기)</li> <li>•역사적, 문화재적 가치</li> <li>•관련 설화, 전설, 민담</li> <li>•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li> <li>•주요 관람 포인트</li> <li>•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li> </ul>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li> <li>•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li> </ul>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의 특징</li> <li>•연혁, 유래(관련 이야기)</li> <li>•역사적, 문화재적 가치</li> <li>•관련 설화, 전설, 민담</li> <li>•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li> <li>•주요 관람 포인트</li> <li>•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li> </ul>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li> <li>•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li> </ul>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li> <li>•연혁, 유래(관련 이야기)</li> <li>•역사적, 문화재적 가치</li> <li>•관련 설화, 전설, 민담</li> <li>•주요 관람 포인트</li> <li>•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li> </ul>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 3. 주요 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 구성 분석

#### 1) 분석대상

한옥의 안내문안 분석은 경상북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주거건축에 한정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주거건축’ 분야에서 검색되는 문화재수는 총 1069개이다. 이중 2013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는 184개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중에는 우물, 굴뚝, 마을, 터, 연못, 사찰시설 등 한옥이 아닌 것이 22개가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건축 문화재 중 전통한옥은 162개로 압축된다.

그런데 이중 보물 11개, 중요민속문화재 58개, 총 69개가 경상북도에 위치한다. 전체 주거건축 문화재의 43%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화재의 설명문을 대상으로 안내문안의 구성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단위의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였고, 이하 분석에서는 69개의 경상북도 주거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한옥의 안내문안 분석을 위한 내용 분류

한옥의 안내문안 분석을 위하여 조영시기와 내력 등을 설명하는 ‘건립’, 건축물의 이름과 관련한 고사 및 의미를 해석한 ‘당호’, 집주인 혹은 편액 등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 주역 마을, 지형, 자연 등과 관련한 ‘입지’, 건물들의 상호관계와 관련한 ‘배치’, 공간의 구성을 설명하는 ‘평면’, 팔작지붕인지 맞배지붕인지 지붕의 형식을 언급하는 ‘지붕’, 한옥의 구조나 기타재료와 관련한 ‘가구’, 공간 및 구성물의 용도와 관련한 ‘기능’, 특별한 건축적 해법을 설명하는 ‘구성’, 담장 및 주변의 인위적 설치물 및 식물인 ‘조경’, 기타 특징을 ‘기타’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3-8] 한옥안내문안 구성

구성요소		내용	사례 예시
1	건립	조영시기, 내력	〈서백당〉이 가옥은 경주손씨 대종가로 입향조인 양민공 손소(1433~1484)가 건립하였다.
2	당호	당호 유래	〈관가정〉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뜻으로, 누마루에 올라 보면 그 이름에 걸맞게 곡식이 익는 들판과 강의 모습이 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구성요소		내용	사례 예시
3	인물	관련 인물 및 사건	〈무첨당〉 대청의 오른쪽 벽에 걸린 ‘좌해운서’라는 편액은 흥선대원군의 글씨이다.
4	입지	주변마을, 지형, 자연동식물	〈두곡고택〉 남산줄기 바로 곁에 대산향남한 남촌의 대표적 대가로서 매우 넓은 평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5	배치	건물들의 상호관계	〈서백당〉 일자형의 대문채 안에 ‘ㄱ’자형의 안채가 있고, 사랑후원 뒤쪽 높은 곳에는 신문과 사당이 배치되었다.
6	평면	개별 건물들 구성 해설	〈서백당〉 대청 6칸, 안방 3칸, 부엌 2칸이다. 아래채의 중심칸이 안대문이고 그 왼쪽은 2칸마루 고방이며, 오른쪽은 큰사랑방과 사랑대청이다.
7	지붕	지붕의 형태	〈독락당〉 이 건물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 지붕이다.
8	가구	건물 기초 및 상부 구조와 기타 재료	〈상춘헌고택〉 안대청과 사랑대청의 가운데 기둥을 둥근 기둥으로 쓴 점은 큰집들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9	기능	공간 및 구성물의 기능	〈작천택〉 안방과 사랑방 뒷벽에는 각기 벽장이 있으며 대청 뒤쪽에 큰 쌍여닫이문을 달아 여름에 문을 열어 두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다.
10	구성	특별한 건축적 장치	〈독락당〉 옆쪽 담장 살창을 달아 대청에서 살창을 통하여 앞 냇물을 바라보게 한 것은 특출한 공간구성이며
11	조경	담장 및 주변의 인위적 설치물 및 식물	〈수졸당〉 이 언덕에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어 ‘반달동산’이라 부르며, 담장을 따로 두른 사당도 이 곳에 자리하고 있다.
12	기타	기타 특징	〈무첨당〉 이곳에는 회재 선생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 3) 주요문화재급 한옥의 안내문안 구성

#### □ 현대 건축문화재 안내문안의 변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 안내문안이 정비되면서 글쓰기의 순서와 내용이 일부 변모되는 경향이 보인다. 1990년에 발간된 문화재안내문안집 경상북도편과 비교해보면 현재 사용되는 문화재안내문의 스타일이 현격하게 바뀐 모습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순서에 있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크게 작용되어, 예전에는 길게 서술되었던 목조구조(가구)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일화가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집이름(당호)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가 인상적이다. 다시 말해, 건축적 묘사가 줄어들고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이 증대되는 경향이 보인다.

[표 3-9] 현대 건축문화재 안내문안 구성의 변모 사례

명칭	1990년 안내문안 (문화재안내문안집 경상북도편)	현재 문화재 안내문안 (문화재청)
경주 양동 무첨당  보물 제411호	<p>(인물) 이 건물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이며 문신이었던 회재 이언적(1491~1553)선생의 종가택 일부로 (건립) 조선 중기에 세운 건물이다. (평면) 'ㄱ'자형 평면에 (가구) 동근기둥과 네모기둥을 세워 방과 마루를 배치하고, 간단한 초익공계 양식으로 꾸며 소박하면서도 보아지(양봉)나 파련대공 등에서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능) 별당건축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별당은 상류주택에 부속된 사랑채의 연장건물로 가장의 접객, 독서, 한유 등 다목적의 용도로 쓰여지던 곳이다. (특징) 이곳에는 회재 선생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p>	<p>(인물) 무첨당은 회재 이언적(1491~1553)의 종가 별채로 (당호) 그의 말손자인 무첨당 이의윤의 호에서 집의 이름을 따왔다. (배치) 뒤쪽에 높게 서있는 건물이 사당이고, 동쪽에 서있는 건물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이루어진 본채이다. (기능) 무첨당은 제사를 지내는 재청의 기능이 강했으며, 남성들이 독서와 휴식, 손님 접대를 하였던 큰사랑채로도 쓰였다. (인물) 대청의 오른쪽 벽에 걸린 '좌해운서'라는 편액은 흥선대원군의 글씨이다.</p>
경주 양동 관가정  보물 제442호	<p>(인물) 이 건물은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중종때 청백리에 선정, 기록된 우재 손중돈(1463~1529)과 연고가 있는 집이라 하며, (건립) 조선 중기에 지은 주택건물이다. (배치) 건물의 평면이 ㄷ형을 이루고 아담한 중정이 있으며, 안채 뒤로 맞배지붕의 사당이 있다. (가구) 안채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간소한 외관을 이루고 있으나, 사당과 누마루는 동근기둥을 세우고 초익공계의 공포를 결구하였으며, (구성) 누마루 둘레에는 길게 난간을 돌려 격식을 갖추고 있다.</p>	<p>(인물) 이 집은 조선 중종 때 청백리였던 우재 손중돈(1463~1529)이 (건립) 분가하면서 지은 것이다. (당호)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뜻으로, 누마루에 올라 보면 그 이름에 걸맞게 곡식이 익는 들판과 강의 모습이 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구성) 대청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인데, (기능) 살림집이 후대로 오면서 제사 때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변형된 것이다. (배치) 본채의 뒤쪽에 손소공을 모신 사당이 있으며, 대문과 담은 원래 없었으나 1981년에 새로 만든 것이다.</p>
양동 향단  보물 제412호	<p>(인물) 이 건물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1491~1553)선생이 (건립)경상감사로 부임하였을 당시에 지은 건물이라 한다. (배치) 두 개의 중정을 두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를 붙여 마치 전체가 일자형의 한 건물과 같이 배치하였으며, (기능) 상류주택의 격식을 갖추면서 주거 건물의 묘를 살리고 있다. (가구) 사가로서 전 건물이 동근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쪽의 사랑채는 간단한 초익공계의 양식이면서도 보아지(양봉)나 파련대공 등은 섬세하고</p>	<p>(인물) 이 집은 회재 이언적(1491~1553)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건립) 병한 중인 모친을 돌볼 수 있도록 중종이 지어준 것이다. (인물) 이언적이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동생 이언팔에게 물려준 후 여주 이씨 향단파의 종가가 되었다. (당호) 이언팔의 손자인 향단공 이의수의 호에서 집의 이름을 따왔다. (기능) 조선 중기에 지어진 살림집의 전형이라기보다는 집주인의 개성을 반영한 독특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집이다. (배치) 행랑채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는</p>

명칭	1990년 안내문안 (문화재안내문안집 경상북도편)	현재 문화재 안내문안 (문화재청)
	(지붕) 팔작지붕이 조화를 이루어 입면상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데, 1976년에 보수할 때 위로 더 올라붙어 안채와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
경주 독락당 보물 제 413호	<p>(인물) 독락당은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지은 집의 사랑채이다.</p> <p>(건립) 조선 중종 11년(1516)에 건립된 이 독락당은</p> <p>(평면) 정면 4칸, 측면 2칸의</p> <p>(지붕) 팔작집으로</p> <p>(평면) 온돌방(1칸x2칸) 대청(3칸x2칸)으로 되어있다.</p> <p>(가구) 건물의 짜임새는 5량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쇠서 하나를 둔 초익공의 공포로 꾸몄다. 대청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고 종도리를 받친 대공의 모양이 특이하다.</p> <p>(구성)(조경) 독락당 옆쪽 담장 살창을 달아 대청에서 살창을 통하여 앞냇물을 바라보게 한 것은 특출한 공간구성이며, 독락당 뒤쪽의 계정 또한 자연에 융합하려는 공간성을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p>	<p>(인물) 이 건물은 옥산서원 뒤편에 있으며 회재 이언적(1491~1553)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지은 사랑채이다.</p> <p>(건립) 조선 중종 11년(1516)에 세웠으며, 일명 옥산정사라고도 한다.</p> <p>(평면) 낮은 단 위에 세워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이 건물은</p> <p>(지붕)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 지붕이다.</p> <p>(평면) 대청은 3칸 2칸이고 나머지는 칸을 막아 1칸 2칸 온돌방으로 하였다.</p> <p>(가구) 건물은 둥근 기둥을 세우고 대청 천장은 뼈대가 모두 노출된 연등천장이다.</p> <p>(구성)(조경) 이 건물 옆쪽 담장에는 좁은 나무로 살을 대어 만든 창을 달아서 대청에서 살창을 통해 앞 계곡의 냇물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아주 특별한 공간구성이며, 뒤쪽의 계정 또한 자연에 융화시키고자 한 의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p>

#### □ 경북지역 주거문화재 안내문의 구성 분석

보물 11개, 중요민속문화재 58개, 총 69개의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글을 건립, 당호, 인물, 입지, 배치, 평면, 지붕, 가구, 기능, 구성, 조정, 기타의 12가지 요소로 나누었고, 처음 등장하는 순서를 숫자로 표기했다. 일부 요소는 중복해서 등장하지만 아래 표에서는 중복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요소별 빈도수를 분석할 때는 합산하였다. 또한 안내문안의 글자수를 세어 표시했고, 문안작성시 사용된 요소 종류의 개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평균적인 글자 수와 평균적으로 사용된 요소의 개수, 또한 각 요소의 서술빈도수와 순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10] 경북지역 주거문화재 안내문의 구성과 순서

no.	명칭	종목	인물	건립	당호	입지	배치	평면	지붕	가구	기능	구성	조경	기타	글자수	종류
1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306호	1	2			3	6	4	5					378	6
2	경주 양동 무첨당	보물 제411호	1	2		4	5	6		7	3	8		9	407	9
3	경주 양동 향단	보물 제412호	1	2			3			4		6			353	5
4	경주 독락당	보물 제413호	2	3		1		4	5	7		8			408	7
5	안동 하회 충효당	보물 제414호	1	2			3								276	3
6	안동 의성김씨 종택	보물 제450호	2	1			3			5	6	4			427	6
7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보물 제457호	1			6		3		2		5			278	5
8	안동 소호헌	보물 제475호	1	2				4	3						240	4
9	영천 송렬당	보물 제521호	2	1				3	6	4		5			393	6
10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제553호	1	2	4		3								304	4
11	상주 양진당	보물 제1568호	1	2		3	4					5			467	5
12	양동 서백당	중요민속문화재 제23호	2	1			3	4		5			6	7	453	7
13	영천매산고택 및산수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4호		1			2	4		3		5		6	475	6
14	경주교동 최씨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6	1		2	3	4				5			385	6
15	경주 김호장군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34호	2	1			3	4	7			5		10	500	7
16	양동낙선당	중요민속문화재 제73호	2	1	3		4	5				6			313	6
17	양동 사호당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74호	2	1			3		6	5	4				406	6
18	양동 상춘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75호		1			2	3		5		4	7		406	6
19	양동 근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76호	2	1			3		6	5		4			353	6
20	양동 두곡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77호	1			2	3					4	5	6	431	6
21	양동수졸당	중요민속문화재 제78호	1	2			5	6				7			434	5
22	양동강학당	중요민속문화재 제83호	2	1		3		5	4					6	437	6
23	하회 북촌택	중요민속문화재 제84호	1	2			3	4	10	5	7				40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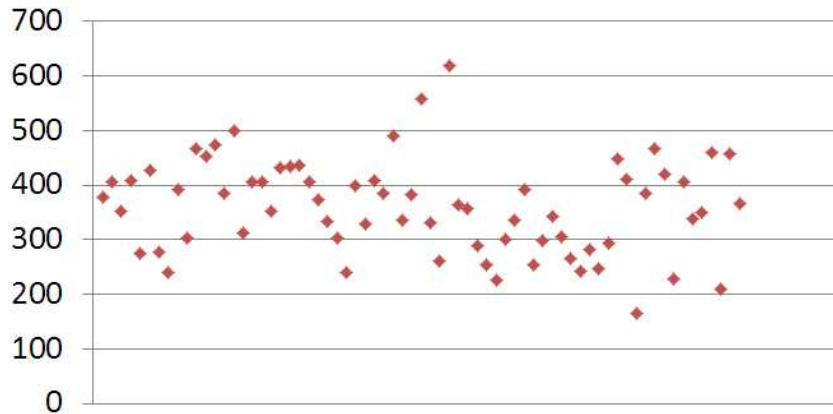
no.	명칭	종목	인물	건립	당호	입지	배치	평면	지붕	가구	기능	구성	조경	기타	글자수	종류
24	하회원지정사	중요민속문화재 제85호	1	2	3			4			5	6			373	6
25	하회빈연정사	중요민속문화재 제86호	1	2	3			4		5					334	5
26	하회풍산류씨 작천택	중요민속문화재 제87호		1			2	3			4				303	4
27	하회옥연정사	중요민속문화재 제88호	1	2	4		3								241	4
28	하회겸암정사	중요민속문화재 제89호	1	2	3		4	5			6				398	6
29	하회 남촌택	중요민속문화재 제90호		2			3	5	6		4			1	329	6
30	하회 주일재	중요민속문화재 제91호		1	6		2	5				3			408	5
31	구미쌍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1	2			4	5	7	6			3		384	7
32	청도운강고택 및 만화정	중요민속문화재 제106호	1	2			3	4						5	490	5
33	영천 정용준씨가옥	중요민속문화재 제107호		1			2	3						4	335	4
34	영덕 충효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68호		1	4		2	3	6		7			8	383	7
35	해저 만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1			2	4	5						6	559	5
36	거촌리 쌍벽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0호	1	2			4		5	6					332	5
37	청운동 성천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72호		3		1	4	2							261	4
38	창양동 후송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3호		1	7		2	3		4				9	620	6
39	울현동 물체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1			2	3				4			364	4
40	영천 만취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5호	1	2				3				4			357	4
41	가일 수곡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76호		1			2	3			4				289	4
42	하회동 하동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77호		1	2	3	4				5	6			255	6
43	하리동 일성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1	2	4		5		3					226	5
44	안동 학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1			2	3						4	301	4
45	만운동 모선루	중요민속문화재 제180호	2	1	3			4		5					337	5
46	의성김씨 율리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81호		1	2		4	6		3					391	5

no.	명칭	종목	인물	건립	당호	입지	배치	평면	지붕	가구	기능	구성	조경	기타	글자수	종류
47	의성김씨 서지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제182호	1	6		2		3			4	5			254	6
48	안동권씨 능동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제183호		2							1			3	299	3
49	안동 오류헌	중요민속문화재 제184호	1	2			3			4					344	4
50	법흥동고성이씨 탑동파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85호		1			2			3			4		305	4
51	예천권씨 초간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01호		1		2		3						4	265	4
52	안동 권성백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1			2	4					3		242	4
53	안동 송소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03호	1				2	4			3				281	4
54	안동 권씨소등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제204호		2				3			1				248	3
55	후조당	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		2	3			4				5		1	294	5
56	의성소우당	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	3	1		2	4						5	6	448	6
57	청도임당리 김씨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45호	1	2			3					4			412	4
58	봉화설매리3겹 까치구멍집	중요민속문화재 제247호				1	3							2	164	3
59	예천의성김씨 남악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48호	1	2		3				4				6	385	5
60	송석헌	중요민속문화재 제249호	1	2		3	4			5		6			468	6
61	송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1	2				5	4			3			421	5
62	울릉나리동 너와집및투막집	중요민속문화재 제256호		1				3	2	4					229	4
63	울릉나리동 투막집	중요민속문화재 제257호		1				2		3				4	405	4
64	영주 괴현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	1	2				3						5	338	4
65	안동 귀봉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1	2			3	4						5	349	5
66	안동 번남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8호		1			2	5		3	6			4	461	6
67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1							2	210	2
68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2호	3	1			2							4	457	4
69	봉화 만산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1	2	4		3								366	4



- 안내문안 총 글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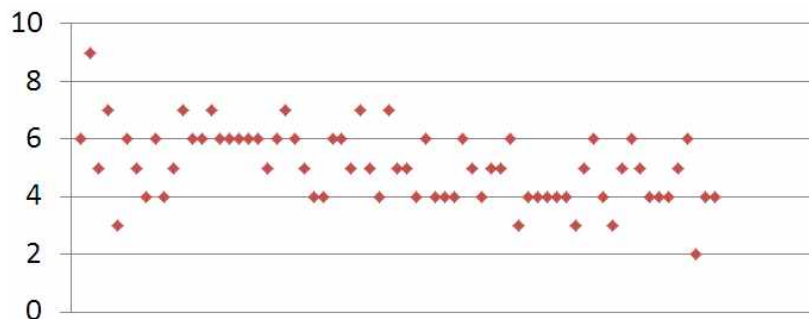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의 평균 글자수는 370.8자이며, 최대 620자(창양동 후송당), 최소 164자(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로 최대 4배 차이까지 분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로 300~400자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안내문안 총 글자수의 분포

- 안내문안 서술요소의 종류 개수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은 이 연구에서 분류한 12가지 서술요소 중 평균적으로 5.2개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요소를 사용한 경우는 9가지(경주 양동 무첨당)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가장 적은 경우는 2가지(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가 있었으며, 대체로 4개~6개의 구성요소를 선택한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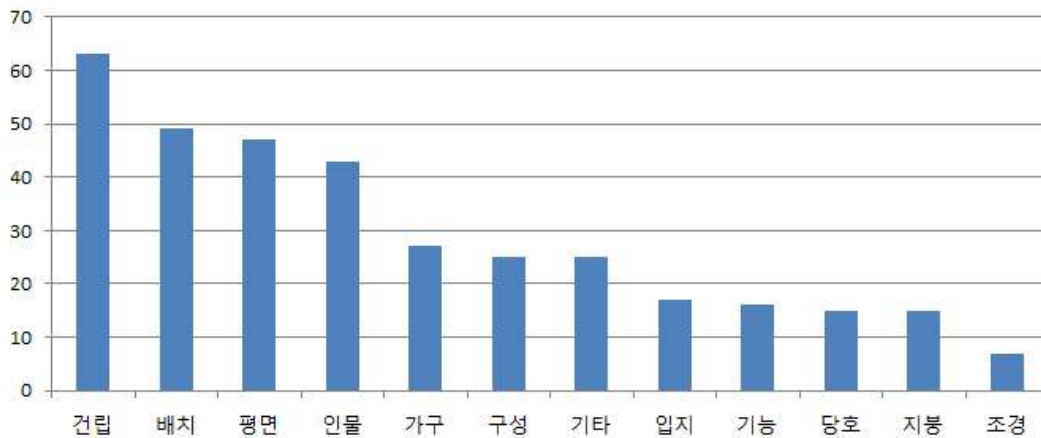


[그림 3-2] 안내문안 구성 요소의 종류 개수

- 안내문안 서술요소의 빈도수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류한 12가지 서술요소 중 건립에 해당하는 서술내용이 가장 많았다. 총 63개가 등장해서 거의 모든 안내문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술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배치(49), 평면(47), 인물(43)이 유사한 빈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가구(27), 구성(25), 기타(25)가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입지(17), 기능(16), 당호(15), 지붕(15)이 빈도수 분포에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조경(7)을 언급한 안내문안은 많지 않았다.

분석결과 12개의 서술요소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다수의 안내문에서 서술되고 있는 필수 요소로서 건립, 배치, 평면, 인물의 요소이다. 두 번째는 상당수의 안내문에서 서술되고 있는 요소로서 가구, 구성, 기타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빈도수가 크지 않고 해당 문화재의 특징에 따라 선택되는 입지, 기능, 당호, 지붕형식, 조경의 요소이다.



[그림 3-3] 안내문안 서술요소의 빈도수

- 서술요소의 서술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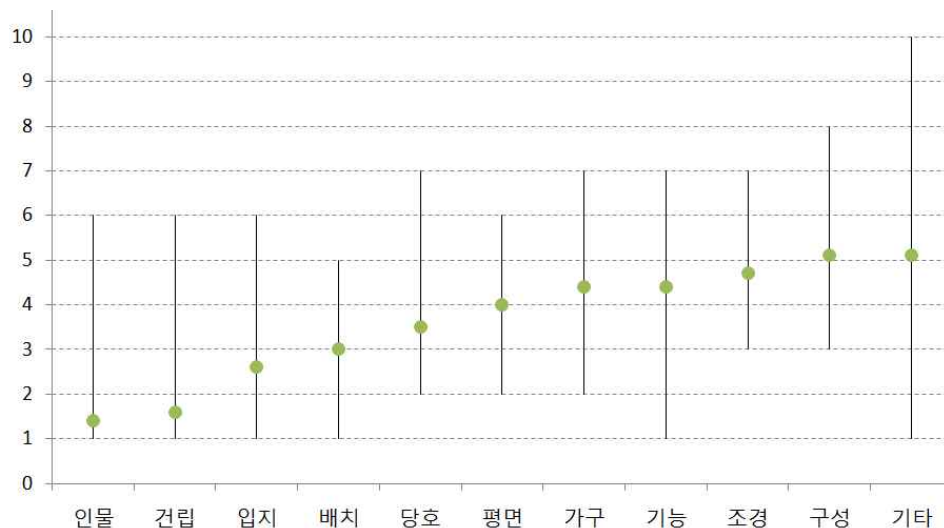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에서 이 연구에서 분류한 12가지 서술요소의 평균 서술순서를 계산해 보았다. 각각의 요소의 서술순서를 빈도수로 곱한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 서술 순서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배치 요소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15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20건,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11건,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2건으로서 이를 합해 총 개수인 49로 나누면 평균서술순서로 3이 도출된다.

[표 3-11] 서술요소가 나오는 순서

순서	인물	건립	입지	배치	당호	평면	가구	기능	조경	구성	기타	지붕
최고	1	1	1	1	2	2	2	1	3	3	1	2
최저	6	6	6	5	7	6	7	7	7	8	10	7
평균	1.4	1.6	2.6	3	3.5	4	4.4	4.4	4.7	5.1	5.1	5.4

이에 따르면, 주거용 문화재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인물과 건립에 해당하는 서술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입지, 배치, 당호 등이 서술되며, 평면, 가구, 기능 등 구체적인 건축물의 설명이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경과 구성은 평균서술순서도 4.7과 5.1로서 상당히 후반부에 위치하는 동시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서술된 사례도 없어서 필수적인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설명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서술요소의 평균 서술순서

#### 4. 소결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 한옥 문화재의 안내문을 통해 그 설명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의 내용 중 안내문안 작성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지방의 주거문화재 69건에 대한 문화재 안내문을 분석하여 개략적인 분량과 서술요소의 종류와 빈도, 서술순서 등을 검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창의성, 인간가치, 독자성, 역사성, 정주성, 연관성의 가치에 맞추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등재된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역사성과 인간가치, 독자성을 주요한 근거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2000년대 후반에 진행된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은 안내문안을 간결하고 이해가 쉽도록 조절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재의 건축적 형태와 구조 내용이 축약되고, 대신에 유래나 당호가 보강되어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이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안내문안 분석은 문안을 건립, 당호, 인물, 입지, 배치, 평면, 지붕, 가구, 기능, 구성, 조경, 기타의 12개의 서술요소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안내문안의 평균 글자수는 370.8자였고, 문안에 사용된 서술요소의 종류는 평균 5.2개였으며, 건립, 배치, 평면, 인물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반면, 입지, 기능, 당호, 지붕, 조경의 요소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요소는 대체로 서술에서도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인물과 건립에 대한 요소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입지, 배치, 당호 등이 서술되는 순서를 취하고 있었다. 다만 조경과 구성은 앞부분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고 평균서술 순서도 다섯 번째 이후라서 안내문안 서술의 일반적인 서술요소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 안내문은 한옥의 고유한 가치를 가장 간략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물의 형상을 학술적인 용어로 자세히 묘사하던 초기의 안내문 형식이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으로 대체되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옥의 고유한 미학을 설명하는 부분이 새로 생겨나지 못하고 주변 배경의 설명으로만 확장될 우려가 있다.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을 통해 보다 풍부한 한옥미학이 문화재안내문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 IV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연구성과 및 한계
2. 향후 진행방향

### 1. 연구성과 및 한계

#### □ 가신관련 연구, 당호관련 연구

2013년 한옥의 세계관과 관련한 인문학적 가치탐구에서 ‘가신관련 연구’는 기존연구 및 조사자료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1차적으로 정리하여 건축적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총130여권의 총서, 단행본, 논문 등을 통하여 가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496건의 중요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텍스트에는 가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각 지역별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동시에 이것을 건축의 공간들로 배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옥의 각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위상들을 가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민속학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에 대한 건축적인 해석 작업은 일부 연구(이영진(2009, 민속원), 천득염외(2004, 경인문화사))가 있었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를 통해 기초DB를 구축한 점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었다.

‘당호관련 연구’는 ‘(가칭)한옥 이름짓는 책’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개별적으로 알려졌던 당호들을 수집하여 당호의 출처와 당호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한옥의 설명방식, 안내문안

한옥문화의 세계화와 관련하여서 진행한 ‘한옥의 설명방식’은 기존의 한옥관련 문화재 안내문안이 가지고 있는 서술방식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내문안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한옥분야의 안내문안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향후 한옥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 학문간 연계를 위한 노력과 한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강 등을 통하여 민속학, 한문학 등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략적인 전문가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공동연구의 가능성이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제 간 연계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이해가 전제되거나 동일한 대상을 각자의 역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의 성과가 한옥에 대한 가치를 확장하여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한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2. 향후 진행방향

### 1) 연구 추진방향

#### □ 주거건축물에서 다양한 용도로 범위 확장

주거건축물은 특성상 주거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생활문화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다. 한옥은 주거건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건축유형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범위이다. 다만, 당해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의 주요 추진방향이 주거건축에 맞추어져 있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비교적 그 수가 적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거 이외의 전통건축이 더 이상 많이 지어지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이 꼭 특정 건축유형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더욱이 현재에도 지어지고 있는 사찰, 교육시설, 회의공간 등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 □ 민화, 병풍 등 대상 자료의 확대

한옥의 각 공간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각 공간을 꾸미는데 사용되었던 민화, 병풍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이라는 형식은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의 내용은 주로 민간신앙에 기초한 길상적인 의미를 담은 도상들이며, 한편 ‘문자도’와 같이 유교의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있다. 그 그림들은 각기 상징하는 의미가 있으며 일정한 장소적 기능에 따라 연출되었다.<sup>16)</sup>

많이 알려진 산수화의 경우에는 주로 사대부들의 감상을 위한 것이었으나, 민화는 생활에 필요한 그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이 방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분위기 연출을 위한 장치로서 병풍을 주로 사용하였고, 병풍에 실려진 민화는 각 공간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안방은 주로 화조도, 문자도, 산수도가 사랑방에는 책거리, 평생도 등을 세웠다.

### ※ 1900년대 주거공간에서의 민화와 현판 (그림출처 : elizabeth keith의 수채화)

1900년대에 elizabeth kiss의 그림 중에는 주거공간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

이 그림에서 기둥에는 현판이 걸려있고, 문에는 다양한 글자들이 쓰여있고, 문지방 위에는 그림이 걸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0년대에는 근대화과정은 주거내에 민화, 주련 등은 주거공간의 다양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 개별 주거에서 마을단위로 확장

올해 연구는 주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와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 바로 마을이라는 공간단위이다.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공통의 신앙적 행위가 존재하여 왔기 때문이다. 2014년에 진행되는 ‘자연관’에서도 풍수지리, 숭산사상 등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마을이라는 공간단위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연구를 통하여 개별주거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온전한 이해가 가능

16) 하수경, 동아시아의 공간관 - 한국민화의 공간 연출, 경인문화사, 2007

할 것이다. 민속분야의 선행연구에서도 가정신앙, 마을신앙을 구분하여서 다루어왔고 특정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무속신앙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을이나 읍성단위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인문학에서의 민속학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대상으로 서양의 도시학에 대한 연구분야와 같은 경제, 사회분야 및 지리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콘텐츠 서비스 기획

### ① 웹서비스 : 국가한옥포털 내 서비스 (<http://www.hanokdb.kr>)

현재 포털에서 구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추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 가신 및 당호관련 자료

- 한옥의 각 공간별로 가신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 한옥이론 내 ‘한옥의 인문학적 이해’ 페이지 추가하여 관련 콘텐츠 서비스
  - 향후, 중장기 인문학연구 성과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콘텐츠화 작업을 통하여 서비스
- 주요 한옥을 대상으로 가신관련 조사자료, 당호 조사자료 결과를 게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적 해석이 연계된 한옥설명 자료 제공
  - 한옥분포 정보 내 ‘심층정보’에 생활조사 내용 항목 관련자료 추가
  - 일부 한옥의 경우, 문화재지정 준비 및 홍보를 위하여 진행한 조사보고서, 단행본을 통하여 추가자료 확보



[그림 4-1] 한옥포털 내 한옥의 인문학적 이해 추가 페이지(안)



[그림 4-2] 한옥포털 내 가신, 당호조사자료 제공 페이지(안)



## ② 홍보물1 : 한옥에 담겨진 세계관

### □ 기획의도

- 한옥을 이해하는 두 개의 관점으로, 즉 한옥의 각 공간에 위치한 ‘가신’을 소개하고 당호를 통하여 한옥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한옥이 물리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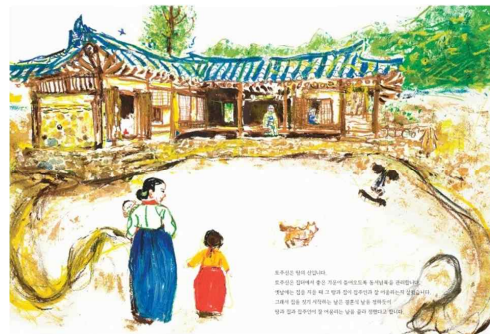
- 한옥의 공간을 안채와 바깥채로 구분하고 안채는 가정신앙으로서의 가신을 중심으로 각 공간별로 이야기를 제시하고 바깥채는 당호, 현판, 주련 등을 통하여 문자를 중심으로 세계관의 영역으로 해석함

### □ 형식 및 구성

- 크기 : a3 포스터 형식으로 양면, 칼라
- 앞면에는 한옥의 배치도, 단면도를 통하여 한옥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뒷면에 가정신앙으로 살펴본 안채와 현판과 주련으로 해석한 사랑채 공간으로 구성
  - 투시도 형태로 공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공간에 그림과 글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함

#### ※ ‘우리집에 사는 신들’(이유정, 2010, 상)

- 신들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하여 저자가 3년 동안 도서관과 한옥 답사를 통해 연구한 결과
- 원본그림은 1m정도임.



### ③ 홍보물2 : 가정신앙 달력

#### □ 기획의도

- 현대에 가신을 새롭게 모신다는 의미보다는 전통적으로 전해져왔던 신들을 이해하고 공간과 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서 오늘날의 주거공간 속에서 가정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 뒷간신은 화장실, 가축신은 현관 등
- 수집된 콘텐츠의 홍보자료로서 활용을 통하여 국가한옥센터의 사업성과 소개 및 가신의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 □ 콘텐츠

- 가신은 정형화된 모습을 나타나지 않으므로 민속조사를 통하여 촬영된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간단한 소개를 제시
- 특정시기에 가신과 관련한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달 적합한 가신과 공간이 설정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취지에서 기획됨

#### □ 형식 및 구성

- 크기 : 180\*297mm, 흑백
- 월별 가신을 선정하고 실제 가신을 모셨던 공간에 매달 달력을 이동하여 걸어놓는 방식으로 활용

[표 4-1] 가정신앙 달력 월별 가신 및 설치장소 예시

	가신	위치		가신	위치
1월	성주	안방	7월	문신	현관
2월	조왕	부엌	8월	가축신	현관
3월	삼신	작은방	9월	제석	거실
4월	업	거실	10월	칠성	거실
5월	터주	거실	11월	성주	안방
6월	뒷간신	화장실	12월	조왕	부엌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보고서

- 강영환(2013),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강영환(1992),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 국사편찬위원회(2010),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문화재연구소(2011),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사학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북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북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7),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북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민속박물관(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2003), 「1950-2000년대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 장주근박사 기증사진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 김광언(2000), 「한국의 집 지킴이」, 다락방
-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김광언, 김홍식(2008), 「송석헌」, 민속원

김명자 외(2005),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문화재청 편집부(2008), 「궁궐의 현판과 주련 2 - 창덕궁, 창경궁」, 수류산방

서해숙(2012), 「호남의 가정신앙」, 민속원

이영진(2007), 「공간과 문화-우주마을집의 공간문화론적 접근」, 민속원

이유정(2010), 「우리집에 사는 신들」, 상

장주근(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가신신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천득엽(2004),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속학회(2008), 「민간신앙 1,2」, 민속원

## 2. 학술지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 32, 2006.8, p125-151

박수호, 궁선영, “동아시아 전통사상에 근거한 주거공간의 이해”, 한국학논집, 2007, pp231-312

서해숙, “민속문화에 나타난 공간인식 연구: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를 대상으로”, 비교민속학 39, 2004.6, p155-183

서해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 제7집, 2001, p117-136

이영진, “주거민속을 통해 본 주거공간의 영역화”, 비교민속학 32, 2006.8, p73-89

임승범, “성주신앙의 지역별 양상과 그 의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9.11, p7-47

임재해,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지평”, 비교민속학 32, 2006.8, p13-72

정연학, “한중 가신 신앙의 비교 : 성주, 업과 재물신, 삼신, 터주와 토지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2, 2008.2, p131-167

정연학, “주거민속으로서 한중 대문(大門)의 비교”, 비교민속학 32, 2006.8, p153-216

정영철, “가정 신앙구조로 본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7.2, p61-73

천득엽, 나경수, 손희하, 나하영, “한국전통주거에 나타난 가택신앙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12, p45-58

## Exploring the Values of the Hanok in the Humanities 2

### - Religious Symbolism in Hanok -

Lee, Kang Min

Lee, Sang Min

Um, Woon Jin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es in the human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Hanok’ – the traditional Korean housing – comprehensively by extending its concept which is often considered as a physical object. In other words, this study was planned to discover a view of world, nature and human regarding Hanok, as well as to restructure the concept of Hanok which consists of such values.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esthetics in contemporary Hanok especially focused on the vocabularies describing the beauty of Hanok. As the second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Korean’s outlook that addressed in Hanok. Hereafter, the researches will continue to a study on a view of nature of Hanok including sustainability, climate, location, as well as the humanistic view and Hanok, such as living culture, ritual, and folklore in the Hanok housing. This is a research investigating the humanistic values for globalizing the culture of Hanok that combines both its intangible values and physical forms that will provide a fundamental groundwork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can promote Hanok.

To understand the world view of Han-Ok, the study started from the visible objects firstly, because this could be a more efficient approach to study the combination of ‘form’ and ‘value’ of Hanok from its physical components rather than categorizing all the complex world view according by philosophy or religion. In result, the world view of Hanok can be most visualized via specific objects that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as well as Chinese characters as the essence of Confucianism culture. Each component is the most significant part that gives Hanok sacred and dignified characteristics by aligning the context of structure and its spacing within the family such as male and female family members, the main house and the men’s part of a house.

Firstly,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divinizes a house; therefore it defines every place in the house as space for worship. In the traditional Korean housing,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means a praying for family members through a house as a medium. Every ritual related in housing creates a sacred atmosphere, and also redefines a house as a place where Gods are living together.

There are various types of god in Hanok. ‘Sung-Ju’ protects a house at its most holistic location, the floor; ‘Teo-Ju’ takes care of the backyard; ‘Jo-Wang’ maintains the kitchen area, ‘Sam-shin’ is in the master bedroom, and ‘Chosang-shin’ stays at Sa-dang, the family shrine. Additionally, there are ‘Jangdock-shin’ which takes care of the platform for crocks of sauces and condiments; ‘Gachook-shin’ for the stable, ‘Yong-shin’ for the well, ‘Cheuk-shin’ for the toilet, ‘Mun-shin’ for the main gate, and ‘Madang-shin’ for the garden. In some cases, there are more types of god in the house, for example, ‘Gul-ttuk-shin’ for the chimney, ‘Jiboong-shin’ for the roof and ‘Chulryung’, ‘Up-shin’, ‘Chilsung’ and so on. Since these house gods are all connected with its house, it will no longer have such power and values in case the family moves to a new place, thus the family needs to enshrine new divinities there.

This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was mainly maintained by female members of the family, to wish the peace and the happiness of a family. Also, reflecting the agrarian society culture, these house gods are often embodied in a form of crops, rice plants and straw. The core of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is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its descendant and the peace of a family. Although there is sometime a different type of house god such as ‘Up-shin’ who protects and increases the family’s wealth, it was not that significant in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Meaning,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is the embodiment of motherhood represented by materials and actions.

The reason behind this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has been inherited mainly by female members is related to the exclusive tradition of the Confucianism society. In contrast to this, male members of a family participate in rituals for gods such as ‘Sung-Ju’ and ‘Chosang(ancestors)-shin’ that originated from the Confucianism cultu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ituals these days due to modernization of the society and lifestyle, the value of Hanok as the space of embodiment of motherhood is still full of suggestion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Secondly, Confucian world view has created identities to Hanok by providing the same personality with the house owner. The world view of Hanok which was represented by ‘Hyun-pan (a name tablet)’, ‘Juryun (a verse couplet)’ and ‘Dangho (a name of the house)’ implies the efforts of the house owner to put his/her personality as well as ideals into the house. While Hanok vari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such as palace, housing, and ritual building, eventually, the key elements of Hanok are the house owner or lifestyle of the residents to shape its form.

For instance, Yeongyeong-dang, the palace architecture, was named in the meaning of ‘spreading happy occasions out’, considering it is an office for the King. Sung-Ju Chuwon-dang, the ancestral ritual architecture, has its root in ‘Hak-Yi-Pyun’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meaning the memorial house of ancestors. Such names remind people of its meaning and values when they are using those architectures and call those names. Dangho, which is a name of the house, was also a penname of the house owner. Once such philosophy of the owner is reflected in the name of the house, there is no distinction available between the house and its residents. Therefore, the form of housing as well as every event occurred within a house should be aligned with its name, Dangho. Hanok also has ‘Juryun’, a verse couplet which is posted on each pillar of the house, containing wisdom of life that the residents should keep in his/her mind.

To sum up, traditionally, Hanok used to be a ritual space where people are praying for the safety and the prosperity of their family, as well as an educational space for self-examination on the life values and meaning of a family. However,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uch ritual and educational functions that the traditional housing used to have has tarnished. Such trend results the values and the meanings of housing become faint, while it is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housing, and less consider the family’s love and educational perspective in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 meaningful work to discover the traditional outlook of Korean culture related in Hanok in today’s Korean society.

Key words: Korean world view, deity of one’s family, Dangho

## 부록 1. 주요 단행본 및 보고서를 통해 본 가신

1. 개요
2. 가신관련 책자 입력자료DB

### 1. 개요

#### □ 대상자료

- 1차 자료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된 한국민속 신앙사전을 참고, 추가적인 자료로 주요 단행본 및 보고서 22권을 검토하였음
  - 1차 연구대상 자료는 130여건의 총서, 학술논문, 보고서, 논문, 단행본을 검토하여 인용건수가 없는 자료들은 배제함

[표 부록-1] 주요대상자료

단행본명	저자	출판사	내 용	비고
한국민속 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기존의 민속분야에서 논의되었던 가신관련 자료 정리	사전류
한국의 집 지킴이	김광언	다락방	각 공간별(터주, 나무, 문, 성주, 사당, 삼신 등)의 가신관련 자료	사전류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의 원형과 관련하여 집과 관련한 문화사적 접근	사전류
한국의 가정신앙 상하	김명자	민속원	상권은 가정신앙과 관련한 역사, 무속, 인접민족 관련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자료 연구사에 대한 자료도 정리되어 있음 하권은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연구자료





## □ 성주

가옥을 주관하는 성주는 집을 보살피는 중심 신격으로서 주택의 중심에 있게 된다. 이는 상량식에 올라가는 대들보가 집을 떠받쳐 가옥의 틀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보통 기둥으로 표현되는 대들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에 비유된다. 가옥과 기둥의 관계는 한 가정(집)과 그 집 가장(대주)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비유는 성주와 그 집의 가장을 동격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집을 지탱하는 중심은 가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가신 제의에 비해 성주에 대한 의례는 대주가 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131-132

지붕에 신격을 안치하고 신앙하는 이유는 건축 구조상 지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붕은 가옥의 꼭대기 부분을 덮어 비나 눈, 햇볕, 이슬 등을 막는다. 지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건축술이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에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지붕을 하늘이나 인체의 머리에 비유할 정도로 중요시해 왔다. 집의 기단부를 땅, 지붕을 하늘, 기둥과 벽체를 사람에 각각 비유하였다. 사람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살듯 집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여긴 것이다. 민간에서 초가지붕 용마루에 성주신의 상투를 상징하는 '유지기'를 만들어 세우듯 지붕은 성주신의 머리, 기둥은 성주신의 몸통, 기단은 성주신의 다리라고 믿기도 한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631

- 가신정보
  - 내용 : 가옥을 주관, 가족간의 관계, 질서, 안녕 기원
  - 신체구성 및 공물 : 건물
- 건축정보
  - 성주의 소재가 가옥의 중심으로 인식. '가부장적인 대주 = 집에서는 대량 혹은 기둥 = 성주'로 인식하여 대청의 대량이 집안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 부재로 인식.
  - 건물에 있어 지붕을 하늘 혹은 인체의 머리에 비유시켜 중요성을 시사. '기단=땅:축부=사람:지붕:하늘'로 비유하여 입면적으로 집은 사람이 하늘아래 땅위에 산다는 소우주를 표방함
  - '기단=성주의 다리 : 축부 = 성주의 몸 : 지붕=성주의 상투'로 인식하여 건물 그 자체로 성주라고 여김

## □ 조왕(竈王)

불신[火神]으로, 부엌에서 모셔지는 신령...(중략)...**부엌은 주부가 관할하는 곳이므로 조왕은 주부, 즉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모시는 신령이다.** 민간에서는 이 신령을 조왕각시, 조왕할매, 조왕대신, 정지각시, 삼덕할망과 같이 여성 신격으로 모신다. 그러나 무가나 불교계에서는 부부 또는 남성 신격으로 모시고 있다. 이 신령은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 중에서 성주, 조상과 함께 상위에 위치한다

(중략)

조왕을 모시는 공간은 부엌이다.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신령이 내재한 신성공간이며 부정을 씻는 정화의 장소이다.** 『민택삼요(民宅三要)』에 의하면 부엌의 방향은 대문, 안방 다음으로 고려되었다. 일반적으로 동향이나 동남향을 길향으로 쳤고, 동북향이나 서남향은 귀문사상에 의해 흉하다고 하였다. 또 우물 앞이나 대청 뒤 또는 대문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도 꺼렸다. 흙도 우물을 판 흙을 사용하지 않았다...(중략)...부엌에는 조왕을 비로사하여 성주, 업, 조상, 제석, 구농, 걸립, 영등할머니 등 거의 모든 가택신령이 모셔진다...(중략)...조왕의 연원은 알 수 없지만 불의 사용과 함께 모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불씨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지키는 상징성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인격화되면서 조왕이라는 가정 신령으로 모셔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609-610

- 가신정보
  - 내용 : 불을 관장, 부엌을 관장, 집안의 길흉화복, 자손들의 안녕과 건강
  - 주택 내에서 여성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은 안방과 부엌이며 이러한 공간에서 가정신앙의 핵심인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건축정보
  - 불을 다루는 공간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조왕의 신격과 역할로 표출.
  - 주부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부의 성향과 바람을 그대로 반영한 신격으로 나타남. 가정의 안녕과 자손에 대한 주부의 염원을 신격으로 하여 표현된 것
  - 부엌은 조리의 공간, 신성의 공간, 정화의 공간
  - 부엌의 좌향은 동향이나 동남향으로 하며 동북이나 서남향은 악한 것으로 여김
  - 부엌이 우물 옆이나 대청 뒤, 대문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은 흉하여 피함
  - 불의 숭배에서 비롯된 신격으로 이해됨

## □ 조상신

조상 숭배를 위해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祖上)은 무속의 조상과 유교 이념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 다르다. 곳에서 모시는 조상은 어린 나이에 죽거나 미혼으로 죽는 등 억울하게 죽은 사령(死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은 직계존속이란 측면에서 유교의 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에 가깝지만 혈연보다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중략)...숭배의 대상인 조상의 영혼은 형태가 없지만 가정신앙에서는 조상단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교에서는 신주(神主)로 형상화되어 있고, 사당(祠堂)이라는 신성공간을 만들어 모신다.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의 신체(神體)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영남지방에서는 세존단지 또는 조상당세기, 호남지방에서는 제석오가리, 경기도지역에서는 제석주머니, 제주도지역에서는 마을의 본향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중략)...이 조상단지와 신줏단지를 모시는 장소는 흔히 마루 또는 안방의 시렁이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91-94

- 가신정보
  - 내용 : 자손의 번영
  - 신체구성/공물 : 단지(곡식)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대청, 안방
  - 유교와 무교의 조상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무교에서는 사연을 앓고 죽은 아이나 처녀 등의 혼으로 직계존속의 조상을 모시는는 유교와 다름.
  - 대청은 최상위의 위계를 갖는 공간으로 조상을 이곳에 봉하여 가신 중에서 중요성과 높은 위계를 상징.
  - 안방은 무교에서 통상 산실(아랫목)과 조상(윗목)의 공간으로 이해되는데 생명의 공간이며 조상의 혼이 보호하는 신성한 영역임.

## □ 삼신(三神, 産神)

삼신은 출산 전 기자(祈子)의 대상이 되며,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현재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보살펴주는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삼신은 생명의 탄생과 아이의 수명, 가족의 건강까지 보살펴주는 신으로서 한 가정 내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삼신은 주로 여신으로 상정되어 가정에 따라 집안의 돌아가신 여자 조상을 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중략)...삼신의 신체는 지역에 따라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편고리, 지앙동우, 등 형태가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 신체 없이 건궁 삼신, 공중 삼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신체를 상징하는 경우 대개 신체 안에 햇곡식, 한지, 실타래 등을 봉안한 뒤 안방 한쪽에 시령을 만들어 모시거나 안방 장롱 위에 모신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255

삼신은 출산·육아·성장 및 산모의 건강을 관장하는 집지킴이로 삼신탈매(할머니), 삼신바가지, 산신(産神)이라고도 부른다. 삼신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신인이라 신체는 모두 여자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신이 좌정한 안방 시령 위에 곡물을 넣은 오지그릇이나 바가지를 놓아두고 '삼신자루'라 하여 한지로 만든 자루 속에 쌀을 넣어 아랫목에 매달아 두기도 한다. 곡물은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10월 상달에 교체해 준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2010, p181

- 가신정보
  - 내용 : 아들의 잉태, 아이의 성장과 건강, 산모의 건강
  - 신체구성/공물 : 단지/바가지(곡식/한지+실타래) 건궁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안방, 아랫목
  - 집안의 여성 조상으로 인식되며 아이의 잉태와 더불어 한시적인 봉안이기보다 계속 모심으로 가정의 수호와 같은 일반적인 조상신의 양상으로 의미가 확대됨.
  - 안방은 산실이자 조상의 혼을 모시어 교류하는 곳으로 생명과 조화의 공간
  - 삼신과 조상은 별개로 인식되어 삼신은 아랫목 벽에, 조상은 윗목 벽에 분리하여 안방 내에서도 아랫목과 윗목의 성격을 분리하여 인식.

## □ 업

집안의 재운을 관장한다. 보통 **사람업(인업)**, **뱀업(긴업)**, **족제비업**, **두꺼비업** 등이 있다. 이러한 업은 집으로 들어왔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만 섬긴다. 이를 업양 또는 업영이라고 한다. 또 다른 형태로 업가리가 있다. 대개 집 뒤란에 위치한다. 모양은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은 형태이며, 주저리 안에 나무 막대기를 박아 놓아다. 막대기는 **대개 밤나무 막대기**이다. 그 안에 한 되 정도 들어가는 단지에 **콩이나 벼**를 넣어 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466

집안 사람을 늘어나게 하고 복을 지켜주는 가신의 하나. 업을 상징하는 동물은 집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구렁이나 두꺼비 · 족제비, 또는 개 등의 동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안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업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믿는데, 이를 인업이라 한다. 대체로 '업구렁이'라 하여 구렁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큰 구렁이가 나가면 기운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가거나, 구렁이가 광속의 한 구석에서 나와 나가려 할 때 머리카락을 태운다든가 고추씨를 태워 구렁이가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모두 업이 집안을 일으키고 복을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근래에 장독간 근처에 살고 있는 두꺼비에게 밥을 먹여 키운다는 이야기와 독지네와 싸워 주인을 구한 두꺼비 설화도 모두 같은 예이다.

출처 : 김용덕,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청솔, 2004, 하권p1210

- 가신정보
  - 내용 : 재복을 관장, 농사의 풍년
  - 신체구성/공물 : 구렁이, 두꺼비, 족제비, 가족, 어린아이 등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광, 곳간, 뒷산
  - 곳간 공간 자체를 재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 다른 가신과 같이 좌정한 공간이 신성하고 정결한 곳이기 보다는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곳으로 인식됨.
  - 신체는 뒤꼍이나 지붕 등 어디인가 구렁이나 두꺼비 등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 존재를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 터주

집터의 동·서·남·북·중앙에서 집터의 안전과 보호를 주관하는 신. 오방지신 중에서 중앙 신에 해당하는 신을 터주신으로 여긴다. 이 터주신은 지역에 따라 터줏대감, 토지대장, 지신 등으로 칭하면서 지신과 터주신이 혼용되기도 한다. 지신의 성소(聖所)는 마당으로 여겨지지만 집 안에서 오방지신을 이 방위에 따라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방지신의 신체(神體) 역시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지신과 터주신을 함께 모시기보다는 터주신만을 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중략)...오방지신은 집터를 관장하고 보호하는 집안의 동·서·남·북·중앙에 거하는 각각의 지신이며, 그 중앙신이 바로 터주신이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631

텃고사는 집터의 신(土地神)에게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지내는 제사이다. 집터 한가운데에 흙을 적당히 모아놓고 주위에는 왼새끼를 둘러치며, 고사 뒤에는 집터의 사방 곳곳에 술을 조금씩 부어서 여러 신들에게도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출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770-771

- 가신정보
  - 내용 : 집터를 수복, 재물, 건축의 시작, 가족의 안전
  - 신체구성/공물 : 짚, 흙, 짚주저리, 향아리(쌀)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뒤뜰, 집터
  - 지신과 관할영역의 확연한 구분으로, 터주는 집 안과 밖 구분을 명확하게 함.
  - 건물은 성주가 관할하며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쳐진 집터 전반은 터주가 관할하는 것으로 이해. 집터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밖으로 부터 구별된 내부공간이며 터주의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
  - 텃고사는 공사의 시작전에 땅의 신, 터주에게 공사가 시작됨을 알리며 제사가 끝나면 사방을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리고 나무 뿌리나 뼈, 털 따위의 잡물을 치우는 행위로 부지를 정제하고, 생땅을 원천적 토대로 인식

## □ 뒷간신(축신)

무서운 속성을 지닌 신이기 때문에 변소의 살을 거두어 줄 수 있으며,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도 변소에 두었다가 들이면 액이 제거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살을 거둘 수 있다. 이는 변소가 모든 액운을 막아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장삿길을 다녀와도 변소에 먼저 들렀다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다른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집 안으로 들이려면 변소에 두었다가 들여야 탈이 나지 않는다. 변소를 집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거나 그 좌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동토가 나는 수가 있다. 잘못된 방위에 억지로 변소를 만들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믿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678

변소는 부속건물의 하나이지만, 양택풍수에서는 집이 갖는 사주의 하나에 포함된다. 그래서 주택건축에서 변소의 위치와 방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 민간에서는 변소에는 굴왕신이라는 가신이 있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소를 지켜주고, 어둡고, 무서운 신이라고만 믿는다. 변소는 사랑채가 있을 경우 안변소와 바깥변소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안변소는 시각적, 심리적 거리가 먼 안채의 옆쪽 외진 곳에 설치하고, 바깥변소는 사랑채 옆, 담장에 붙여 만들거나 사랑채 출입구를 벗어난 외부공간에 설치하기도 한다. 변소의 구분은 유교적 내외법에 근거한다.

출처 : 이영진, 공간과 문화 : 우주마을 · 집의 공간문화론적 접근, 민속원, 2009, p222

- 가신정보
  - 내용 : 외부의 액 제거, 집안의 악한 살 완충, 해코지
  - 신체구성/공물 : 건궁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대문, 대문채
  - 측간의 좌향 선택과 집터 내에서의 입지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하며, 최초 건축이후 잘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측간의 어둡고 불쾌한 공간으로 축신이 있어 집안의 살과 액을 제거하는 요소로 활용.
  - 俗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을 측간에 두었다가 집안에 들이면 악한 기운이 소멸되는 것으로 여김.



## □ 문신

사찰에는 절을 지키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사천왕(四天王)을 만들어 좌우에 세운 문이 있다. 사천왕은 사찰의 문신인 셈이다. 사천왕이 사찰의 문을 지켜주듯 가신(家神)으로서 문신은 집의 대문을 통해 들고 나는 액살을 막아주고 때로는 복을 들여온다. 상징하는 신체(神體)는 없는 건궁이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171

당신의 아내를 사모하여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노여워 하지 않아 감동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맹세코 당신의 그림만 보아도, 문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뒤부터 신라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잡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였다 《삼국유사》 권 2 기이 2).

출처 :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2000, p63

- 가신정보
  - 내용 : 액을 봉쇄, 복을 받아들임
  - 신체구성/공물 : 건궁, 처용의 형상 그림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대문, 대문채
  - 대문은 사람뿐만 아니라 복이나 악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문신은 이것들을 출입을 통제함.
  - 속된 외부공간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대별해 내는 관문임을 대문에 처용을 붙이나 글을 쓰는 것으로 구분지음
  - 문이 가지는 의미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전환되는 곳으로 공간의 전이가 일어나는 곳으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다만, 문이라는 영역이 일부 계층에서만 설치하였던 공간으로 대부분의 민간영역에서는 별도로 문을 설치하지 않고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이곳은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을 구분짓는 곳이며 외부신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다.

## □ 가축신(우마신, 외양간신, 소삼신)

우리나라의 축사에는 소와 말의 건강과 무사를 담당하는 쇠구영신 또는 우마신이라 불리는 가신이 있다고 믿어져 이들 공간에 조차도 많은 의미와 신성성이 부여되어졌다. 이들 공간의 좌향은, 집의 좌향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 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동향에서 남향 사이에 배치되었고, 소에게 죽을 췌는 모습이 보이는 쪽을 으뜸으로 쳤다. 따라서 부뚜막 건너편에 구유를 거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외양간을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택신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닌 소와 말의 추위를 덜어주는 보호의 역할까지를 고려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출처 : 천득염 외,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2004, p186-187\

- 가신정보
  - 내용 : 소와 말의 건강과 무탈을 담당
  - 신체구성/공물 : 한지, 건궁, 돌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외양간, 마구간
  - 축사는 대체로 동향-동남향으로 배치. 양의 기운, 새끼의 탄생과 건강 등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임
  - 소에게 주기위한 죽을 췌는 모습이 보이도록 배치하여 함경도나 강원도 지방의 가옥과 같이 부뚜막 건너편에 외양간을 배치하는 것을 기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김
  - 축사에도 신성을 부과하여 신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신성시 함
  -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인 소와 말의 건강과 출산, 무탈 등을 위해 모시는 외양간신은 존재는 인정되나 신체는 잘 두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고사때나 소의 출산 등이 있을 때 외양간 앞에서 의례를 지냄으로 소와 함께 외양간 건물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성하게 보는 것으로 추정됨

## □ 제석과 칠성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성신(星神). 도교와 유교의 천체숭배사상과 영부(靈符)신앙이 조화된 신격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았다고 하여 칠성여래(七星如來), 칠아성군(七牙星君)이라고 한다. 주로 수명장수, 소원성취, 자녀성장, 평안무사 등을 비는 신이다...(중략)...칠성신을 숭배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가정에서 모시는 칠성신, 가정 밖에서 모시는 칠성신, 사찰에서 모시는 칠성신, 의례와 관련된 칠성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중략)...가정에서 칠성고사를 드리기 위해 정화수를 올려놓게 되면 물을 칠성신의 신체로 인식했다. 아울러 물과 관련된 동물인 용이나 뱀을 칠성신의 신체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편, 2011. p680-681

칠성은 뒤뜰에 칠성단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일곱 개의 돌로써 상징된다. 이 외에 집에 따라 절에 가는 경우도 있다.

출처 : 김명자, 이창식,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상권p160

- 가신정보
  - 내용 : 수명 장수관장, 자손의 건강, 재물의 수호
  - 신체구성/공물 : 짚, 칠성단, 사발, 물
- 건축정보
  - 공간구분 : 장독대, 뒤뜰
  - 주택 내에서 장독대 공간을 마을의 산신당이나 서낭당과 동급의 신성한 장소로 여기어 금기와 주의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 가정에서는 주로 뒤뜰의 장독대를 제단삼아 정화수를 떠놓고 제의를 지내는데 뒤뜰은 집안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장소로 여겼던 것으로 보임
  - 뒤뜰은 하늘에서 산맥을 타고 생명의 기운이 전해져 오는 공간으로 매우 신성시 됨

## 부록 2. 당호분석 기초자료

1. 당호 분석자료
2. 조사대상 목록

### 1. 당호 분석자료<sup>17)</sup>

001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306
명칭(한글)	안동 하회 양진당	명칭(한자)	安東 河回 養眞堂
지역	경북 안동 풍천면 하회리 724	지정일	1963. 01. 2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운용(柳雲龍)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a>
인물(호)	겸암(謙菴)		
연대	1539 ~ 1601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응현(應見). 서애 유성룡의 형이며 이항의 문인. 경학행의(經學行義)로 이름이 높아서 1572년(선조 5)에 전함사별좌(典艦司別坐), 인동현감, 풍기군수, 원주 목사 등을 역임. 저서에 『겸암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참됨(본성)을 기르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학문	의미분류	심신수련

17) 전체분석대상은 337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보고서에는 100채만 발췌하여 수록함

002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412
명칭(한글)	향단	명칭(한자)	香壇
지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21-75	지정일	1964. 1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언적(李彦迪)		
인물(호)	회재(晦齋)		
연대	1491 ~ 1553		
인물정보	1514년(중종 9)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거쳐서 좌찬성에 이르렀다. 저서로 『회재집』이 있음. 이 집은 이언적 종가의 일부로서 아버지인 이번(李蕃, 1463~1500)이 처음 터를 정하여 살았음.		
의미해석			
의미	신령에게 향을 피워 올리는 단(壇)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조상 숭배

003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414
명칭(한글)	충효당	명칭(한자)	忠孝堂
지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하회리)	지정일	1964. 1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성룡(柳成龍)		
인물(호)	서애(西厓)		
연대	1542 ~ 1607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이현(而見). 1566년 과거에 급제하고 이조좌랑, 도승지, 경상도 관찰사, 예조판서, 형조판서, 대제학 등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음. 저서로 『서애집』 등이 있음. 시호는 문충(文忠). 이 집은 서애 유성룡의 종택으로 이 집의 편액은 미수(眉壽) 허목(許穆)이 썼음.		
<a href="http://terms.naver.com/list.nhn?cid=392&amp;categoryId=392&amp;categoryType=dictionary">http://terms.naver.com/list.nhn?cid=392&amp;categoryId=392&amp;categoryType=dictionary</a>			
의미해석			
의미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충성과 조상 숭배

004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475
명칭(한글)	소호헌	명칭(한자)	蘇湖軒
지역	경북 안동시 일직면 소호헌길 2 (망호리)	지정일	1968. 12. 1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서해(徐嶰)		
인물(호)	함재(涵齋)		
연대	1537 ~ 1559		
인물정보	사우(師友)와 향당(鄉黨)의 촉망을 받았으나, 1559년(명종 14) 23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저서로 『함재집(涵齋集)』이 있다.		
의미해석			
의미	소호리에 있는 집		
출처	소호는 지명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05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521
명칭(한글)	송렬당	명칭(한자)	崇烈堂
지역	경북 영천시 송렬당길 1(성내동)	지정일	1907. 07. 2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순몽(李順蒙)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4895">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4895</a>
인물(호)			
연대	1386~1449		
인물정보	본관은 영천. 1405년(태종 5) 음직으로 벼슬길에 오르고 1417년 무과에 급제함. 1419년 우군절제사로 이종무(李從茂), 우박(禹博), 박초(朴礎) 등과 함께 대마도 정벌에 나서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냄. 시호는 위양(威襄).		
의미해석			
의미	열(烈)을 숭배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애국	의미분류	충성

006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553호
명칭(한글)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명칭(한자)	安東 禮安李氏 忠孝堂
지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령길 73(하리1리)	지정일	1971. 08. 3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홍인(李洪仁)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66&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2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66&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27</a>
인물(호)	풍은(豐隱)		
연대	1525~1594		
인물정보	본관은 예안, 자는 경회(景會). 예안이씨 16대손 근재공(近齋公) 이전(李堧, 1486~1529)의 둘째아들로 무예와 병법에 능통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풍천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했음.		
의미해석			
의미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애국	의미분류	충성과 효도

007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554
명칭(한글)	태고정	명칭(한자)	太古亭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지정일	1971. 12. 0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팽년(朴彭年)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4895">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4895</a>
인물(호)	취금헌(醉琴軒)		
연대	1417~1456		
인물정보	본관은 순천, 자는 인수(仁叟). 1434년(세종 16)에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다시 1447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다시 급제한 뒤에 우승지, 형조참판, 충청도관찰사, 집현전의 관원 등을 역임. 단종복위를 기도하려다가 실패하고 처형됨. 시호는 충정(忠正). 이 집은 원래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의 절의묘(節義廟)와 99칸 종가에 딸린 별당 건물임.		
의미해석			
의미	태고의 산수를 찾는 정자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심신수련

008	기초정보		
유형	보물	지정번호	1568호
명칭(한글)	양진당	명칭(한자)	養眞堂
지역	경북 상주시 양진당길 27-4(승곡리)	지정일	2008. 07. 1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조정(趙靖)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19&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3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19&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31</a>
인물(호)	검간(黔澗)		
연대	1555~1636		
인물정보	본관은 풍양, 자는 안중(安中).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동함. 1605년 좌랑으로 증광문과에 급제. 저서로 『검간문집』 등이 있음. 원래 이 집은 조정이 1626년(인조 4) 안동 임하천천동에 있던 처가 문중의 99간 가옥을 옮겨 지은 것임. 지금의 편액은 현대의 서예가인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이 썼음.		
의미해석			
의미	참됨(본성)을 기르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심신 수련

009		기초정보	
유형	사적	지정번호	167호
명칭(한글)	녹우당	명칭(한자)	綠雨堂
지역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연동리)	지정일	1968. 12. 1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8332&amp;cid=807&amp;categoryId=195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8332&amp;cid=807&amp;categoryId=1958</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본관은 해남, 윤선도의 4대조로 해남윤씨의 중시조임. 녹우당은 효종이 자신의 사부였던 고산 윤선도를 위해서 수원에 세워주고 이름을 지어준 집을 옮겨놓은 것임. 녹우당의 편액은 옥동(玉洞) 이서(李滉, 1662~?)가 썼음.			
의미해석			
의미	녹우(綠雨 : 보슬비)가 내리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풍년



010		기초정보	
유형	사적	지정번호	378호
명칭(한글)	성락원	명칭(한자)	城樂園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외	지정일	1992. 12. 2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심상응(沈相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861&cid=200000000&categoryId=200003812
인물(호)			
연대	1853~?		
인물정보	본관은 청송, 자는 성천(聲天). 이 집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을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李堧, 1877~1955)이 별궁으로 사용하던 곳임.		
의미해석			
의미	성 안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동산		
출처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안빈낙도

011		기초정보	
유형	사적	지정번호	388호
명칭(한글)	임영관	명칭(한자)	臨瀛館
지역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31번길 6(용강동)	지정일	1994. 07. 1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673&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96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673&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968</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해석			
의미	영주(瀛洲)에 있는 집. 영주는 강릉의 옛이름이다. 중국 신화에서 동해에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 있다고 했다.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신선 사상

012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5호
명칭(한글)	선교장	명칭(한자)	船橋莊
지역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운정동)	지정일	1967. 04. 2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내번(李乃蕃)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978&amp;cid=20000000&amp;categoryId=20000352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978&amp;cid=20000000&amp;categoryId=200003527</a>
인물(호)			
연대	1706 ~ 1781		
인물정보	지방 명문으로 알려진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李乃蕃)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여 대대로 후손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열화당(悅話堂)·안채·동별당(東別堂)·활래정(活來亭) 등 모두 4채가 있음.		
의미해석			
의미	배다리[선교(船橋)] 집. 옛날에는 집 앞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출처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13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5-1호
명칭(한글)	열화당	명칭(한자)	悅話堂
지역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운정동)	지정일	1967. 04. 1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후(李垸)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8,00050100,32
인물(호)	오은(鰲隱)		
연대	1773~1832		
인물정보	본관은 전주. 이내번의 손자. 강릉 선교장의 사랑채로 조선 순조 15년(1815)에 오은처사 이후(李垸)가 지었음.		
의미해석			
의미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가족 안녕

014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3호
명칭(한글)	서백당	명칭(한자)	書百堂
지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지정일	1970. 12.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손소(孫昭)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516">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516</a>
인물(호)	송재(松齋)		
연대	1433~1484		
인물정보	본관은 경주, 자는 일장(日章). 회재 이언적의 외할아버지.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 진주목사, 성주목사, 안동부사 등을 거쳐서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짐. 시호는 양민(襄敏). 이 집은 손소의 아들인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敦, 1463~1529)과 회재 이언적이 태어난 집으로 유명함.		
의미해석			
의미	참을 인 자를 100번 쓰는 집. 종손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기에 참을 인(忍)자를 1백번 써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음.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가족 안녕
015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4호
명칭(한글)	매산 고택 및 산수정	명칭(한자)	梅山 古宅 및 山水亭
지역	경북 영천시 삼매매곡길 356-6 (삼매리)	지정일	1970. 12.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중기(鄭重器)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93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932</a>
인물(호)	매산(梅山)		
연대	1685~1757		
인물정보	본관은 영일, 자는 도옹(道翁). 1727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정원주사, 결성현감,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 저서로 『매산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매산(梅山)의 옛집/산수를 가까이 하는 정자		
출처	매산이라는 말은 이곳의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현 소유주의 10대조인 정중기(鄭重器: 1685~1757)의 호가 매산(梅山)임.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16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3호
명칭(한글)	낙선당	명칭(한자)	樂善堂
지역	경북     경주시     양동마을안길 75-24(양동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손종로(孫宗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569
인물(호)	낙선당(樂善堂)		
연대	1598~1636		
인물정보	본관은 경주, 자는 고경(考卿). 손중돈의 현손. 무과로 급제했는데, 광해군의 인목대비 유폐사건으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그 뒤에 인조가 왕이 된 뒤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남포현감을 역임함. 병자호란 때 경상좌병사 허완(許完)이 있던 쌍령(雙嶺)으로 가서 활동하다가 전사했음.		
의미해석			
의미	선(善)을 즐기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심신수양

017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4호
명칭(한글)	사호당고택	명칭(한자)	沙湖堂古宅
지역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83-8 (양동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능승(李能升)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74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740000,37</a>
인물(호)	사호당(沙湖堂)		
연대	1827 ~ 1881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으로 진사를 지냈음. 이 집은 사호당 이능승이 1840(헌종 6)에 지어졌음.		
의미해석			
의미	사호당(沙湖堂)의 옛집		
출처	사호당은 이능승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풍류

018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5호
명칭(한글)	상춘헌 고택	명칭(한자)	賞春軒 古宅
지역	경북 경주시 양동마을안길 85-7 (양동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석찬(李錫贊)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18,0075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18,00750000,37</a>
인물(호)	상춘헌(賞春軒)		
연대	?~?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 이 집은 회재 이언적의 5세손인 동고(東皐) 이덕록(李德祿, 1677~1743)이 1730년 (영조 6)에 지은 집으로 후손인 상춘헌 이석찬의 호를 붙여 '상춘고택'이라고 불림.		
의미해석			
의미	봄을 즐기는 집		
출처	상춘헌은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석찬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심신 수련

019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6호
명칭(한글)	근암고택	명칭(한자)	謹庵古宅
지역	경북 경주시 양동리 214-1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희구(李熙久)		<a href="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10.jsp?cid=51087">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10.jsp?cid=51087</a>
인물(호)	근암(謹庵)		
연대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 태로(台老) 이정수(李鼎秀)의 5대손으로 홍릉참봉을 지냄. 이 집은 1780년경에 태로 이정수가 지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행동을 삼가는 집		
출처	근암은 이희구의 호		
분류			
원문분류	유교사상	의미분류	심신수련

020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7호
명칭(한글)	두곡 고택	명칭(한자)	杜谷 古宅
지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52-9(양동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조원(李祖源)		<a href="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10.jsp?cid=59534">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10.jsp?cid=59534</a>
인물(호)	두곡(杜谷)		
연대	1711~1777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 이언팔의 14세손. 이 집은 회재 이언적의 6대손인 이식중(李湜中)의 분문가(分門家)로 1733년(영조 9)에 세워졌다고 함. 현재 이 집에는 '두곡서재(杜谷書齋)'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두곡(杜谷)의 옛집		
출처	두곡은 지명이자 이조원의 호.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21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78호
명칭(한글)	수졸당	명칭(한자)	守拙堂
지역	경북 경주시 양동리 212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의잠(李宜潛)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78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780000,37</a>
인물(호)	수졸당(守拙堂)		
연대	1576~1635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 회재 이언적의 넷째손자. 이 집은 1744년(영조 20) 경예 회재 이의잠의 6대손인 양한당(養閑堂) 이정규(李鼎揆, 1735~?)가 사랑채를 늘려서 지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질박함을 지켜가는 집		
출처	수졸당은 이의잠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심신 수련

022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83호
명칭(한글)	강학당	명칭(한자)	講學堂
지역	경북 경주시 양동마을길 138-9(양동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연상(李延祥)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83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0830000,37</a>
인물(호)	지족당(知足堂)		
연대	고종조		
인물정보	본관은 여강으로 고종 때 대사간을 지냄. 이 집은 여강 이씨 문중 서당으로 대사간을 지낸 지족당 이연상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친 곳으로 이 마을에서 월성 손씨 문중 서당인 안락정과 쌍벽을 이루며 1867년(고종 4년) 경 지었다고 함. '강학당(講學堂)'이라는 편액 외에도 '명리재(明理齋)'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강학(講學)을 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교육

023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86호
명칭(한글)	빈연정사	명칭(한자)	賓淵精舍
지역	경북 안동시 북촌길 17-22(하회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운룡(柳雲龍)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a>
인물(호)	겸암(謙菴)		
연대	1539 ~ 1601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응현(應見). 서애 유성룡의 형이며 이항의 문인. 경학행의(經學行義)로 이름이 높아서 1572년(선조 5)에 전함사별좌(典艦司別坐), 인동현감, 풍기군수, 원주 목사 등을 역임. 저서에 『겸암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빈연(賓淵)의 정사		
출처	빈연정사 앞에 있는 부용대 아래로 흐르는 물을 빈연이라고 한다.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24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88호
명칭(한글)	옥연정사	명칭(한자)	玉淵精舍
지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솔밭길 86(광덕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성룡(柳成龍)		<a href="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amp;i=177566&amp;v=43">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amp;i=177566&amp;v=43</a>
인물(호)	서애(西厓)		
연대	1542~1607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이현(而見). 1566년 과거에 급제하고 이조좌랑, 도승지, 경상도 관찰사, 예조판서, 형조판서, 대제학 등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음. 저서로 『서애집』 등이 있음. 시호는 문충(文忠).		
의미해석			
의미	옥 같은 물이 흐르는 정사		
출처	옥 같은 물은 바로 옥연정사 앞으로 흐르는 물을 가리킴.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25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89호
명칭(한글)	겸암정사	명칭(한자)	謙菴精舍
지역	경북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81 (광덕리)	지정일	1979. 01.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운룡(柳雲龍)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6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a>
인물(호)	겸암(謙菴)		
연대	1539 ~ 1601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응현(應見). 서애 유성룡의 형이며 이황의 문인. 경학행의(經學行義)로 이름이 높아서 1572년(선조 5)에 전함사별좌(典艦司別坐), 인동현감, 풍기군수, 원주 목사 등을 역임. 저서에 『겸암집』이 있음. 이 집은 겸암 유운룡이 연구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1567년(명종 22)에 지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겸손을 지키는 집		
출처	겸암은 유운룡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신 수련



026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05호
명칭(한글)	쌍암고택	명칭(한자)	雙巖古宅
지역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	지정일	1979. 12.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최광익(崔光翊)		쌍암고택의 안내판
인물(호)			
연대	1731~1755		
인물정보	본관은 전주. 검재(儉齋) 최수지(崔水智)의 후손으로 진사를 지냄. 원래 이 집은 진사 최광익이 분가하여 1731년(영조 7)에 지은 것으로 전해짐.		
의미해석			
의미	두 개의 바위		
출처	지금은 없어졌지만 집 앞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27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06호
명칭(한글)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명칭(한자)	淸道 雲岡古宅 및 萬和亭
지역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암로 474, 외 1필지(신지리)	지정일	1979. 12.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시묵(朴時默)		<a href="https://www.kchnnews.kr:3001/?mid=kchn_inquiry&amp;page=4&amp;document_srl=15169">https://www.kchnnews.kr:3001/?mid=kchn_inquiry&amp;page=4&amp;document_srl=15169</a>
인물(호)	운강(雲岡)		
연대	1814~1875		
인물정보	본관은 밀양, 자는 휘도(輝道)로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제자. 저서로 『운강집』이 있음. 운강고택은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이 은거하며 제자들을 가르키는 집이었음. 1726년(영조 2)에 박중응이 지은 뒤로 1824년(순조 24) 운강 박시묵이 지금처럼 큰 규모의 집으로 다시 지었고, 만화정은 운강 박시묵이 1856년(철종 7)에 세워 공부하며 학문을 강의하던 곳임. '운강고택(雲岡古宅)'이라는 편액은 소암(所庵) 이병원(李秉遠, 1744~1840)이 썼음.		
의미해석			
의미	구름 낀 언덕/만 가지가 화목한 정자		
출처	운강은 박시묵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심 수련

028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07호
명칭(한글)	일심당	명칭(한자)	一心堂
지역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선원리)	지정일	1979. 12. 2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연정고택(蓮亭古宅)으로 불리며, 지금의 소유자인 정용준(鄭容俊)의 8대조가 1725년(영조 원년)에 지었다고 전하는데, 일심당(一心堂)이라는 이름은 그때 붙여진 정침의 당호라고 함.		http://www.yc.go.kr/ycCitizen/contents/contents.do?siteCode=dong008&mId=0302000000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해석			
의미	한 마음을 갖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심신 수련

029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32호
명칭(한글)	영동 소석고택	명칭(한자)	永同 少石古宅
지역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6길 26(초강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宋秉弼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8,01320000,33
인물(호)	少石		
연대	1854 ~ 1903		
인물정보	1885년(고종 22) 소석 송병필이 지었음.		
의미해석			
의미	작은 돌		
출처	소석은 송병필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신 수련

030		기초정보	
유형	중용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40호
명칭(한글)	영동 규당고택	명칭(한자)	圭堂古宅
지역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4길 9-9(계산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송복헌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18,01400000,33">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18,01400000,33</a>
인물(호)	규당(圭堂)		
연대			
인물정보	송복헌이 1885년(고종 22) 봄에 건립했음.		
의미해석			
의미	규(圭) 모양의 집. 지극히 빈한한 집이라는 뜻이다.		
출처	규당은 송복헌의 호. 『예기』 「유행(儒行)」에 “선비는 가로 세로 각각 10보(步) 이내의 담장 안에서 거주한다. 좁은 방 안에는 사방에 벽만 서 있을 뿐이다. 대를 쪼개어 엮은 사립문을 매달고, 문 옆으로 규 모양의 쪽문을 내었다. 쑥대를 엮은 문을 통해서 방을 출입하고, 깨진 웅기 구멍의 들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簞門圭竅 蓬戶甕牖]”라고 했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안빈낙도

031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55호
명칭(한글)	군지촌정사	명칭(한자)	涖池村精舍
지역	전남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4(제월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심광현(심광현)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550000,36">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550000,36</a>
인물(호)			
연대	중종조		
인물정보	'군지촌정사'는 사랑채의 이름이며, 18세기 중엽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나 안채는 19세기 초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됨. 안채에는 '제월당(霽月堂)'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큰 못이 있는 마을의 정사		
출처	이 정사가 있는 마을은 군지촌으로 불림. 여기서 못은 집 앞으로 흐르는 섬진강을 가리킴.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32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61호
명칭(한글)	장흥 존재고택	명칭(한자)	長興 存齋古宅
지역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91-32(방촌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위백규(魏伯珪)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144">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1144</a>
인물(호)	존재(存齋), 계항(桂巷)		
연대	1727~1798		
인물정보	본관은 장흥, 자는 자화(子華). 1750년(영조 26) 학행으로 추천 받음. 1751년 스승 윤봉구(尹鳳九)를 만나서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을 토론하며 학문적 계도를 받음. 선공감봉사, 기장현감, 태인현감, 옥과현감 등을 역임. 저서로 『존재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마음을 보전하는 집		
출처	존재는 위백규의 호. 존재라는 호는 그의 스승인 윤봉구가 써준 존존재(存存齋)에서 유래한다. 또한 『맹자』 「이루(離婁)」에서는 “군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마음은 보존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仁)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 마음을 보존한다.[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고 했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신 수련

033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68호
명칭(한글)	영덕 충효당	명칭(한자)	盈德 忠孝堂
지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6길 48(인량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현일(李玄逸)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511">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511</a>
인물(호)	갈암(葛庵)		
연대	1627~1704		
인물정보	본관은 재령, 자는 익승(翼昇). 1646년(인고 24)과 1638년에 초시에 합격. 1666년(현종 7) 영남 유생을 대표하여 송시열의 기년예설(耑年禮說)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 사헌부지평, 공조참의, 세자시강원찬선, 우참찬, 이조판서 등을 역임. 1694년 갑술환국 때 조사기(趙嗣基)를 신원하다가 함경도 홍원, 종성, 광양 등으로 유배를 다님. 저서로 『갈암집』이 있음. 조선 성종 때에 처음 세운 집으로 이애(李薺)가 짓고, 이황 선생의 성리학을 계승한 이현일생이 태어난 곳이라고 함. 지금 있는 건물은 뒷쪽으로 옮긴 것이고, 충효당(사랑채)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건물임.		
의미해석			
의미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조상 숭배

034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69호
명칭(한글)	해저 만회고택	명칭(한자)	海底 晩悔古宅
지역	경북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길 51(해저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건수(金建銖)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615">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8615</a>
인물(호)	만회(晩悔)		
연대	1790~1854		
인물정보	본관은 의성, 자는 공립(公立). 1830년(순조 30)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에 승문원정자, 홍문관수찬, 현풍현감, 김해부사 등을 역임. 저서로 『만회헌문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느즈막에 후회함		
출처	만회는 김건수의 호, 일찍 벼슬을 버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돌아와 사는 것이 편한 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속뜻이 담겨 있음.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35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0호
명칭(한글)	쌍벽당	명칭(한자)	雙碧堂
지역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거촌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언구(金彦球)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70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700000,37</a>
인물(호)	쌍벽당(雙碧堂)		
연대	?~1507		
인물정보	본관은 광산, 자는 대명(大鳴). 1531년(중종 26)에 식년시 생원시에 급제. 쌍벽당 김언구의 아버지 죽헌공(竹軒公) 김균(金筠)이 풍산의 구담으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와 터전을 잡으면서 지은 것이라고 함. 별당에 걸려있는 '쌍벽당중수기'에 따르면 1566년(명종 21)에 안채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음. 그 뒤 1864년(고종 1)에 남쪽 날개 3칸을 고쳤고, 1892년에도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음. 지금 '쌍벽당'이란 현판이 걸려있는 별당은 이때 건축된 것임.		
의미해석			
의미	두 그루 푸른 나무가 서 있는 집		
출처	쌍벽당은 김언구의 호. 집에 상록수인 소나무 혹은 대나무 등이 있어서 그렇게 호를 삼은 듯하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신 수련

036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2호
명칭(한글)	청운동 성천택	명칭(한자)	靑雲洞 星川宅
지역	경북 청송군 청송읍 서당길 12 (청운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임춘섭(林春燮)		http://www.cha.go.kr/korea/h eritage/search/Culresult_Db_ View.jsp?mc=NS_04_03_02& VdkVgwKey=18,01720000,37
인물(호)			
연대	고종조		
인물정보	본관은 청송. 고종 때 행장릉참봉을 지냄.		
의미해석			
의미	별내		
출처	성천은 별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37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4호
명칭(한글)	울현동 물체당	명칭(한자)	栗峴洞 勿替堂
지역	경북 예천군 유천면 울현리 142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임노운(林魯運)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24,01740000,37
인물(호)	물체당(勿替堂)		
연대	조선후기		
인물정보	현 소유주 임재원(林在原)의 7대조.		
의미해석			
의미	어긋남이 없는 집		
출처	물체당은 현 소유주의 7대조인 노운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심신 수련

038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5호
명칭(한글)	영천 만취당	명칭(한자)	永川 晩翠堂
지역	경북 영천시 금호읍 종동길 25 (오계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조학신(曹學臣)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75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750000,37</a>	
인물(호)	만취당(晩翠堂)		
연대	1732~1800		
인물정보	본관은 창녕,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 지산 조호익 선생의 7세손. 1759년(영조 35)에 추천으로 영조의 부름을 받고 사복시내승,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 만취당은 사랑채의 이름으로 편액은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 1835~1919)이 77세 때 썼음.		
의미해석			
의미	저물녘 푸른빛이 드리우는 집		
출처	만취당은 조학신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39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6호
명칭(한글)	가일 수곡고택	명칭(한자)	佳日 樹谷古宅
지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권보(權輔)		『안동의 현판』(상), 안동민속박물관, 2004.
인물(호)	수곡(樹谷)		
연대	1709~1778		
인물정보	본관은 안동, 자는 계응(繼應). 이 집은 손자인 권조(權眺)가 수곡 권보를 기리기 위해서 건립했음. 이 집에는 '수곡고려(樹谷高廬)'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나무가 있는 골짜기에 자리한 옛집		
출처	수곡은 권보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0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7호
명칭(한글)	하회동 하동고택	명칭(한자)	河回洞 河東古宅
지역	경북 안동시 증가길 45(하회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교목(柳敎睦)		『안동의 현판』(상), 안동민속박물관, 2004.
인물(호)	눌헌(訥軒)		
연대	1810~1874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경만(景萬). 183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용궁현감을 역임.		
의미해석			
의미	하회마을 동쪽에 있는 옛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41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79호
명칭(한글)	안동 학암고택	명칭(한자)	安東 鶴巖古宅
지역	경북 안동시 구수나무길 59 (오미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중휴(金重休)		『안동의 현판』(상), 안동민속박물관, 2004.
인물(호)	학암(鶴巖)		
연대	1797~1863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현도(顯道). 1837년(헌종 3) 진사가 되고 제릉(齊陵)참봉을 지냄.		
의미해석			
의미	학바위		
출처	학암은 김중휴의 호.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은거



042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80호
명칭(한글)	만운동 모선루	명칭(한자)	晩雲洞 慕先樓
지역	경북 안동시 풍산읍 평지길 422-4(만운리)	지정일	1984. 01.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전(李堧)		『안동의 현판』(상), 안동민속박물관, 2004.
인물(호)	근재(近齋)		
연대	1486~1529		
인물정보	본관은 예안, 자는 무선(茂先). 경학에 침잠하여 조광조 등과 친교가 있었음.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풍산 하리에 은거했음. 이 집은 이전을 기리는 재실로서 1591년(선조 24)에 건립되었음.		
의미해석			
의미	조상을 흠모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조상 숭배

043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86호
명칭(한글)	함양 일두고택	명칭(한자)	咸陽 一蠹古宅
지역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지정일	1984. 01. 0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여창(丁汝昌)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860000,38">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1860000,38</a>
인물(호)	일두(一蠹)		
연대	1450~1504		
인물정보	본관은 하동, 자는 백옥(伯勗). 148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90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 시강원설서, 안음현감 등을 역임. 1498년 무오사화 때 종성으로 유배되고 1504년 죽은 뒤에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됨. 저서로 『일두유집』이 있음. 시호는 문헌(文獻). 이 집은 일두 정여창의 옛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것임 사랑채는 현 소유자의 고조할아버지가 다시 지었고, 안채는 약 300년 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전함.		
의미해석			
의미	한 마리 좀벌레		
출처	일두는 정여창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4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03호
명칭(한글)	안동 송소종택	명칭(한자)	安東 松巢宗宅
지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샘골길 43-40(이상리)	지정일	1984. 12. 2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권우(權宇)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03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030000,37</a>
인물(호)	송소(松巢)		
연대	1552~1590		
인물정보	본관은 안동, 자는 정보(定甫). 1573년(선조 6)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성리학에 전념함. 1568년 경릉(敬陵)참봉에 제수되고 1589년 왕자(광해군)의 사부가 되었으나 이듬해 죽음. 송소 권우의 후손들이 사는 종택으로 조선 후기에 지었음. 권우가 지은 저택이라고 전하였지만 안대청 대들보에 1824(순조 24)에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발견됨. 현재는 '이계서당(伊溪書堂)'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소나무에 깃들여 사는 집		
출처	송소는 권우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5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06호
명칭(한글)	합천 묘산 묵와고가	명칭(한자)	陝川 妙山 默窩古家
지역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안성길 150-6(화양리)	지정일	1984. 12. 2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윤사성(尹思晟)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060000,38">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060000,38</a>
인물(호)			
연대	1606~?		
인물정보	본관은 파평, 자는 명보(明甫). 조선 선조 때 선전관을 역임.		
의미해석			
의미	침묵하는 집		
출처	묵와는 후손인 윤우(尹楸 1784~1836)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6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37호
명칭(한글)	의성 소우당	명칭(한자)	義城 素宇堂
지역	경북 의성군 산운마을길 55(산운리)	지정일	2000. 01. 2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가발(李家發)		http://people.aks.ac.kr/front/t abCon/exm/exmView.aks?ex mId=EXM_SA_6JOc_1801_02 7173&curSetPos=0&curSPos =0&isEQ=true&kristalSearch Area=B
인물(호)	소우(素宇)		
연대	1776~11861		
인물정보	본관은 영천, 자는 영숙(英叔). 1801년(순조 1) 증광시 생원으로 합격.		
의미해석			
의미	소박함을 지키는 집		
출처	소우는 이가발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7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48호
명칭(한글)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명칭(한자)	醴泉 義城金氏 南嶽宗宅
지역	경북 예천군 구계길 43-8(구계리)	지정일	2007. 01. 1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복일(金復一)		http://www.ugyo.net/tu/rin/r uins.jsp?sSiteCode=ycym043 #
인물(호)	남악(南嶽)		
연대	1541~1591		
인물정보	본관은 의성, 자는 계순(季純). 학봉 김성일의 동생. 1570년(선조 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 형조좌랑, 전주부윤, 강원도관찰사, 울산군수, 성균관사예, 풍기군수 등을 역임. 1637(인조 14) 병자호란 때 척화신으로 이름난 김복일의 종질인 불구당(不求堂) 김주(金逵, 1606~1681)가 태어난 곳으로 1981년 지붕을 고칠 때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1634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됨.		
의미해석			
의미	남쪽 산		
출처	남악은 김복일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48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49호
명칭(한글)	송석헌	명칭(한자)	松石軒
지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320	지정일	2007. 10. 1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권이번(權以番)		<a href="http://city.bonghwa.go.kr/open-content/ko/bonghwa-eup/sightseeing/nation/?id=34">http://city.bonghwa.go.kr/open-content/ko/bonghwa-eup/sightseeing/nation/?id=34</a>
인물(호)	동암(東巖)		
연대	1678~1763		
인물정보	본관은 안동으로 사복사정에 추증됨. 권이번이 아들 선암(仙巖) 권명신(權命申, 1706~1778)을 위하여 1700년대에 지어준 집임.		
송석헌 안내판			
의미해석			
의미	소나무와 돌이 있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49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50호
명칭(한글)	송소고택	명칭(한자)	松韶古宅
지역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덕천리 176)	지정일	2007. 10. 1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심호택(沈琥澤)		<a href="http://www.ugyo.net/tu/rin/ruins.jsp?sSiteCode=csjb014#">http://www.ugyo.net/tu/rin/ruins.jsp?sSiteCode=csjb014#</a>
인물(호)	松韶		
연대	1862~1930		
인물정보	본관은 청송, 자는 계오(啓五). 경주 최부자와 함께 영남의 갑부로 명성을 떨침.		
의미해석			
의미	소나무 바람 소리		
출처	송소는 심호택의 호. 소(韶)는 순임금의 태평성대한 음악을 말한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50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62호
명칭(한글)	영주 괴헌고택	명칭(한자)	榮州 槐軒古宅
지역	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875-8	지정일	2009. 10. 3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영(金瑩)		http://www.ugyo.net/tu/rin/r uins.jsp?sSiteCode=yeis059#
인물(호)	괴헌(槐軒)		
연대	1765~1840		
인물정보	본관은 연안, 자는 의겸(義兼). 1804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 중부시주부,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 저서로 『괴헌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회화나무가 가득한 집		
출처	괴헌은 김영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51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63호
명칭(한글)	남파고택	명칭(한자)	南坡古宅
지역	전남 나주시 금성길 13,일원(남대동)	지정일	2009. 12. 17.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재규(朴在圭)		남파고택 안내판 http://people.aks.ac.kr/front/t abCon/ppl/pplView.aks?pplId =PPL_7HIL_A1914_1_0031051
인물(호)	남파(南坡)		
연대	1857~1931		
인물정보	1884년 남파 박재규가 초당을 짓고 1910년대에 아래채, 1930년대에 문간채와 바깥사랑채를 지었음. 남파고택은 일제강점기 11·3 전국항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나주역사건'의 주인공인 박준채(朴準埰, 1914~2001)와 그의 사촌누나인 박기옥(朴己玉)이 살면서 광주로 통학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남쪽 언덕		
출처	남파는 박재규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52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67호
명칭(한글)	안동 귀봉종택	명칭(한자)	安東 龜峰宗宅
지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9-1	지정일	2011. 11. 0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수일(金守一)		<a href="http://www.ugyo.net/tu/rin/rains.jsp?sSiteCode=anih002#">http://www.ugyo.net/tu/rin/rains.jsp?sSiteCode=anih002#</a>
인물(호)	귀봉(龜峰)		
연대	1528~1583		
인물정보	본관은 의성, 자는 경순(敬純). 어려서 퇴계의 문하에 들었으며 1555년(명종 10) 생원시에 합격하고 유일로 천거되어 창월찰방을 지냄. 이 집은 귀봉 김수일의 종택으로 현종 1년(1660)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됨.		
의미해석			
의미	거북 봉우리		
출처	귀봉은 김수일의 호.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53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68호
명칭(한글)	안동 번남댁	명칭(한자)	安東 樊南宅
지역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길 76-5	지정일	2011. 11. 0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동순(李同淳)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68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18,02680000,37</a>
인물(호)	번남(樊南), 번암(樊庵)		
연대	1779~1860		
인물정보	본관은 진성, 자는 의경(義卿). 1807년(순조 7) 식년시 병과에 합격.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군위현감, 사헌부장령, 형조참판, 한성부좌윤, 병조참판, 호조참판, 동지춘추관사 등을 역임. 이 집은 고종 때 대원군 집정시에 그의 손자인 좌산(左山) 이만윤(李晩胤)이 창덕궁을 모방하여 99칸(지금은 55칸 정도 남아 있음)으로 직접 감리하여 지었음. 이 집의 편액은 이동순의 아들인 도운(陶雲) 이중태(李重泰)가 1857년(정사)에 썼음.		
의미해석			
의미	번남의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54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69호
명칭(한글)	신와고택	명칭(한자)	新窩古宅
지역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111-17	지정일	2012. 04. 1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위준식(魏準植)		http://www.heritagechannel.tv/Story/View.asp?htmlIdx=3430
인물(호)	신와(新窩)		
연대	1870~1947		
인물정보	현 소유주인 위재경의 고조부. 이 집은 1800년대에 현 소유주의 6대조인 위영형(魏榮馨, 1808~1855)이 터를 잡기 시작하여 신와 위준식이 완성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새 움집		
출처	신와는 위준식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55		기초정보	
유형	중요 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71호
명칭(한글)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명칭(한자)	盈德 英陽南氏 蘭阜宗宅
지역	경북 영덕군 원구리 194-2번지 외	지정일	2012. 04. 1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남경훈(南慶薰)		<a href="http://www.kchnews.kr/14826">http://www.kchnews.kr/14826</a>
인물(호)	난고(蘭阜)		
연대	1572~1612		
인물정보	본관은 영양, 성균관 진사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지냄. 이 집은 아들 안분당(安分堂) 남길(南詰, 1595~1654)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은 집임.		
의미해석			
의미	난초가 자라는 언덕		
출처	난고는 남경훈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56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70호
명칭(한글)	장흥 오헌고택	명칭(한자)	長興 梧軒古宅
지역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1길 44	지정일	2012. 04. 1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위계룡(魏啓龍)		http://www.kchnews.kr/14826
인물(호)	오헌(梧軒)		
연대	1870~1948		
인물정보	이 집은 조선말기 원취당(願醉堂) 위도순(魏道純, 1748~1816)이 처음 터를 잡고, 후손인 오헌 위계룡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함.		
의미해석			
의미	오동나무가 있는 집		
출처	오헌은 위계룡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57		기초정보	
유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273호
명칭(한글)	논산 백일헌 종택	명칭(한자)	論山 白日軒 宗宅
지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지정일	2012. 10. 26.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삼(李森)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4556
인물(호)	백일헌(白日軒)		
연대	1677~1735		
인물정보	본관은 함평, 자는 원백(遠伯). 1705년 병조판서 김구(金僞)의 천거로 무과에 급제. 정주목사, 평안도병마절도사, 함경도병마절도사, 충청도병마절도사, 한성부우윤, 어영대장 등을 역임. 1727년(영조 3) 훈련대장이 되어 이인좌의 난 때 관문을 잘 지킨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함은군(咸恩君)에 봉해짐. 1729년에 이르러 병조판서에 오름. 저서로 『관서절요(關西節要)』가 있음.		
의미해석			
의미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		
출처	백일헌은 이삼의 호. 백일은 '백일청천(白日青天)'에서 왔다.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해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질서를 의미한다.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충성



058		기초정보	
유형	경기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호
명칭(한글)	송렬전	명칭(한자)	崇烈殿
지역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로 780번길 41-20	지정일	1972. 05. 0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온조왕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020000,31">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020000,31</a>	
인물(호)	?~28		
연대			
인물정보	조선 인조 16년(1638)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음.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이서(李曙)의 위패를 함께 모셨음.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왕이 '송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송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의미해석			
의미	열(烈)을 숭배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충성

059		기초정보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6호
명칭(한글)	향사당	명칭(한자)	鄉社堂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2길 29	지정일	1975. 03. 1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해석			
의미	고을의 한량들이 모여 활쏘기와 잔치를 베푸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단결

060	기초정보		
유형	인천광역시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0호
명칭(한글)	용흥궁	명칭(한자)	龍興宮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문안길21번길 1601	지정일	1972. 05. 0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철종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21,00200000,23&amp;flag=Y">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amp;VdkVgwKey=21,00200000,23&amp;flag=Y</a>	
인물(호)	대용재(大勇齋)		
연대	1831~1863		
인물정보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재위 1849~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鄭基世, 1814~1884)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이름을 붙임.		
의미해석			
의미	용이 일어난 집		
출처	용은 임금을 상징한다. 철종은 임금에 되기 전에 이곳에 살다가 임금이 되었음.		
분류			
원문분류	역사		의미분류
			군왕

061	기초정보		
유형	서울특별시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3호
명칭(한글)	석파정 별당	명칭(한자)	石坡亭 別堂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산16-1	지정일	1974. 01. 15.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260000,11">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260000,11</a>
인물(호)	석파(石坡)		
연대	1820~1898		
인물정보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원래는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의 소유였던 것을 고종 즉위 후 대원군이 사용했음. 한국전쟁 후 고아원·병원 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개인소유임.		
의미해석			
의미	바위 언덕		
출처	석파는 흥선대원군의 아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62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6호
명칭(한글)	탁청정 증가	명칭(한자)	濯淸亭 宗家
지역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42	지정일	1973. 08.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수(金綏)		『안동의 현판』(상), 안동민속박물관, 2004.
인물(호)	탁청정(濯淸亭)		
연대	1491~1555		
인물정보	본관은 광산, 자는 수지(綏之). 1525년 생원시에 합격했음. 이 정자는 낙동강에 인접한 오천리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4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관됨.		
의미해석			
의미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정자		
출처	탁청정은 김수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63		기초정보	
유형	대구광역시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2호
명칭(한글)	도곡재	명칭(한자)	陶谷齋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육신사길 60	지정일	1995. 05. 1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종우(朴宗祐)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320000,22">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320000,22</a>
인물(호)	도곡(陶谷)		
연대	1587~1654		
인물정보	처음에는 1778년(정조 2)에 대사성인 서정공(西亭公) 박문현(朴文鉉)이 살림집으로 세운 건물이나, 1800년(정조 24) 경에 도곡 박종우의 공부방으로 사용되었음.		
의미해석			
의미	도자기 굽는 골짜기		
출처	도곡은 박종우의 호이나 지명인 듯함.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은거

064		기초정보	
유형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9호
명칭(한글)	계련당	명칭(한자)	桂蓮堂
지역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20-12	지정일	1973. 07.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390000,32">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390000,32</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해석			
의미	계수나무와 연꽃의 집		
출처	소과(小科)인 생원과 진사에 급제한 것을 연방(蓮榜), 대과(大科)에 급제한 것을 계방(桂榜)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분류			
원문분류	인문	의미분류	과거 시험

065	기초정보		
유형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46호
명칭(한글)	임경당	명칭(한자)	臨鏡堂
지역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소목길 18-26	지정일	1974. 09. 0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열(金悅)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60000,32">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60000,32</a>
인물(호)	임경당(臨鏡堂)		
연대	1506~?		
인물정보	본관은 강릉, 별칭은 김처사(金處士). 정봉(鼎峯) 김광현(金光軒)의 아들로 강릉 13향현(鄕賢) 가운데 한 사람. 울곡 이이는 집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던 김열을 위하여 「호송설(護松說)」을 지어서 그의 청빈함을 칭찬한 적이 있음.		
	임경당이 편액은 연천(淵泉)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이 1766년에 썼음.		
의미해석			
의미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집		
출처	임경당은 김열의 호. 여기서 거울은 거울처럼 맑은 물을 뜻한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66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48호
명칭(한글)	만남재	명칭(한자)	萬南齋
지역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만남재길 26	지정일	1974. 12. 1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문수(朴文秀)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8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80000,37</a>
인물(호)	기은(耆隱)		
연대	1691~1756		
인물정보	본관은 고령, 자는 성보(成甫).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30년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나가 기민의 구제에 힘쓰고 선혜청당이 되었다. 호조참판, 병조판서, 함경도 진휼사, 예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행적은 설화로 전해질 만큼 너무나 유명함. 시호는 충헌(忠憲). 이 집은 고령 박씨의 중시조인 청하공(淸河公) 묘소를 지키고, 문중 회의를 열기 위해 1670년(현종 11)에 건립되었음.		
의미해석			
의미	만대산(萬代山) 남쪽에 있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67		기초정보	
유형	충청북도시도민속문화재	지정번호	50호
명칭(한글)	괴산 애한정	명칭(한자)	괴산 愛閑亭
지역		지정일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지겸(朴知謙)		<a href="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b_A1549_1_001781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b_A1549_1_001781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a>
인물(호)	애한정(愛閑亭)		
연대	1549~1623		
인물정보	본관은 함양, 자는 맹경(孟卿). 임진왜란 때 백의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위한 공로로 별좌(別坐)에 오름. 광해군 때 낙향하여 괴산에 애한정을 짓고 살았음.		
의미해석			
의미	한가함을 사랑하는 정자		
출처	애한정은 박지겸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68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52호
명칭(한글)	월담헌 및 사월종택	명칭(한자)	月潭軒 및 沙月宗宅
지역	경북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	지정일	1974. 12. 1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조임(趙任)		<a href="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b_A1573_1_002799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b_A1573_1_002799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a>
인물(호)	사월(沙月)		
연대	1573~1644		
인물정보	본관은 한양, 자는 자중(子重). 1592년 임진왜란 때 형 조검(趙儉)과 함께 망우당 객재우 휘하에 들어가 왜적과 싸움. 병자호란 때는 청과의 화의를 반대하는 척화소(斥和疏)를 올림. 저서로 『사월선생문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달이 잠긴 물가에 지은 집/모래가에 뜨는 달		
출처	사월은 조임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69		기초정보	
유형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55호
명칭(한글)	상임경당	명칭(한자)	上臨鏡堂
지역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소목길 18-26	지정일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열(金悅)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60000,32">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460000,32</a>
인물(호)	임경당(臨鏡堂)		
연대	1506~?		
인물정보	본관은 강릉, 별칭은 김처사(金處士). 정봉(鼎峯) 김광현(金光軒)의 아들로 강릉 13향현(鄉賢) 가운데 한 사람. 율곡 이이는 집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던 김열을 위하여 「호송설(護松說)」을 지어서 그의 청빈함을 칭찬한 적이 있음. 상임경당의 편액은 추사의 아버지인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썼음.		
의미해석			
의미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집		
출처	임경당은 김열의 호. 여기서 거울은 거울처럼 맑은 물을 뜻한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70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76호	
명칭(한글)	오회당	명칭(한자)	五懷堂	
지역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78	지정일	1975. 08. 1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2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27&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812</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본관은 영일, 자는 (志遠). 숙부인 무재(無齋) 정시찬(鄭時贊)에게 배우고,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매호(梅湖) 손덕승(孫德升) 등과 교유함. 1727년 (영조 3) 관찰사 권대규(權大規 1710~?)의 후원으로 회당 정석현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영천댐 건설로 1977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김.
의미해석				
의미	다섯 형제를 생각하는 집			
출처	정석현은 형제가 다섯인데 형제의 우애를 노래한 『시경』 「상채(常棣)」에서 “아가 위 꽃이여 환하게 선명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형제만한 이가 없느니라. 죽을 고비의 두려움에도 형제들은 매우 생각을 하며 언덕이나 진펄에 시신이 쌓였을 때 형제만이 찾아나서네.[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 死喪之威 兄弟孔懷 原隰裒矣 兄弟求矣]”를 끌어들이어 자신의 집 이름을 지은 것임.			
분류				
원문분류	고사	의미분류	형제 우애	

071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77호
명칭(한글)	동린각	명칭(한자)	東麟閣
지역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964-86	지정일	1975. 08. 1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순신(李舜臣)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21,00770000,37
인물(호)			
연대	1545~1598		
인물정보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과 김완(金浣, 1546~1577)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건물로 원래는 자양면 노항동에 세웠으나, 정조 9년(1785)에 불타서 정조 11년(1787)에 다시 지었음. 1960년 성곡동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리했고, 1976년 영천댐 건설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었음.		
의미해석			
의미	동방의 기린각(麒麟閣)		
출처	기린각(麒麟閣)은 한나라 선제(漢宣帝)가 공신(功臣) 11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걸어 놓게 한 공신각이다.		
분류			
원문분류	역사	의미분류	인물 숭배

072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80호
명칭(한글)	난포고택	명칭(한자)	蘭圃古宅
지역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562-6	지정일	1975. 08. 1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최철건(崔鐵堅)		난포고택 안내판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23&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2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223&amp;cid=200000000&amp;categoryId=200003527</a>
인물(호)	난포(蘭圃)		
연대	1525~1594		
인물정보	본관은 영천. 임진왜란 당시에 70세의 고령에 손자와 증손자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아화산성(阿火山城)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움. 이 집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도사(都事)로 전주를 수호했던 난포 최철건이 살던 집으로, 1546년(명종 1)에 지었음.		
의미해석			
의미	난초 밭		
출처	난포는 최공철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73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81호
명칭(한글)	우금촌 두암고택	명칭(한자)	友琴村 斗巖古宅
지역	경북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621번길 118-20	지정일	1975. 12. 3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우익(金友益)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81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810000,37</a>
인물(호)	두암(斗巖)		
연대	1571~1639		
인물정보	본관은 1612년(광해군 4)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원군수, 해미현감, 한성부윤 등을 역임. 이 집은 김우익이 20세에 분가할 때인 1590년(선조 23)에 건립됨. 현재 이 집에는 '치암(恥庵)'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말바위		
출처	두암은 지명인 듯하고 김우익의 호이기도 함.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은거



074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90호
명칭(한글)	호수중택	명칭(한자)	湖叟宗宅
지역	경북 영천시 대전동 52	지정일	1977. 07. 15.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세아(鄭世雅)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90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0900000,37</a>
인물(호)	호수(湖叟)		
연대	1535~1612		
인물정보	본관은 영일, 자는 화숙(和叔). 1558년(명종 13) 사마시에 합격.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촌의 자제들과 의병을 일으켜서 영천성을 수복함. 병조판서에 추증. 시호는 강의(剛義). 이 집은 1613년 광해군 5)에 정세아의 장손인 해남현감 정호례(鄭好禮, 1604~1672)가 지음.		
의미해석			
의미	물가에 사는 늙은이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75		기초정보	
유형	서울특별시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03호
명칭(한글)	침류각	명칭(한자)	枕流閣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지정일	1997. 12.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경복궁 후원이었던 지금의 청와대 경내에 있는 누각건물로서 북궐(北闕)의 부속 건물로 1900년대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4109&cid=200000000&categoryId=200004028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의미해석			
의미	물을 베개 삼은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76	기초정보		
유형	충청북도시도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10호
명칭(한글)	청주 망선루	명칭(한자)	淸州 望仙樓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동 154	지정일	1982. 12. 17.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한명회(韓明澮)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7927&cid=200000000&categoryId=200003812
인물(호)	압구정(鴨鵲亭)		
연대	1415~1487		
인물정보	퇴락했던 건물을 조선 세조 7년(1461)에 목사(牧使) 이백상(李伯常)이 중수하고, 한명회(韓明澮)가 편액을 망선루라 개칭함. 그후에 목사 이첨(李詹)과 이수득(李秀得) 등이 중수하여 근세에 이르도록 유지됨. 일제침략기인 1921년 무덕전의 신축으로 헐리게 되어 1923년에 김태희의 주선으로 제일교회 동쪽으로 이전됨. 청주제일교회의 부속건물로 사용되다가, 교회 측의 기증으로 2000년 청주중앙공원으로 이전, 복원됨.		
의미해석			
의미	신선을 바라보는 누각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77	기초정보		
유형	충청북도시도민속문화재	지정번호	151호
명칭(한글)	영동 사로당	명칭(한자)	永同 四老堂
지역	충북 영동군 매곡면 내동1길 8	지정일	1986. 04. 2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수근(朴守謹)		사로당 안내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MN_6JOc_1725_008423&curSetPos=3&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B
인물(호)	농와(龔窩)		
연대	1673~?		
인물정보	본관은 충주, 자는 백공(伯恭). 1725년(영조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 등을 역임. 박수근과 그 형제들인 수인(守認), 수해(守諧), 수원(守源) 등 네 형제가 나이 80세가 되도록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1710년(숙종 36)에 세워짐. 비해당(匪懈堂)으로도 불림.		
의미해석			
의미	네 명의 노인들이 공부하는 집		
출처	네 명의 노인들이란 박수근과 그 아우 셋을 말함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수양

078		기초정보		
유형	충청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54호	
명칭(한글)	청양 영모재	명칭(한자)	靑陽 永慕齋	
지역	충남 청양군 청양면 장승리 73-1	지정일	1998. 12.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해(李滌)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436">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436</a>		
인물(호)	온계(溫溪)			
연대	1496~1550			
인물정보	본관은 함평, 자는 경명(景明). 152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로 도승지, 대사헌, 예조참판 등을 역임했고, 명종의 즉위한 뒤에는 강원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함. 시호는 정민(貞愍). 1668년(현종 9)에 함평 이씨 문중회의를 통해 지어진 청양 함평 이씨 재사임. 마룻대에 쓰여진 축문과 중수기록이 적힌 현판을 통해 1881년(고종 18)에 다시 수리한 건물임을 알 수 있음.			
의미해석				
의미	조상님을 길이 추모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역사	의미분류	조상 숭배	

079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63호
명칭(한글)	성주 백세각	명칭(한자)	星州 百世閣
지역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1길 2703	지정일	1982. 08. 0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송희규(宋希奎)		
인물(호)	야계산옹(椰溪散翁)		
연대	1494~1558		
인물정보	<p>본관은 야로(지금의 합천), 자는 천장(天章). 1519년(중종 14) 별신문과에 병과로 급제. 병조좌랑, 현풍현감을 역임. 1534년 홍해군수가 되었을 때는 옥산에 있는 회재 이언적과 왕래하며 교분을 쌓음. 윤임(尹任)을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가 명종이 즉위하면서 복직되고 다시 문과증과에 을과로 급제함. 1547년 윤원형의 전횡을 탄핵하다가 유배되었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 고산(高山)에 은거함.</p> <p><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1170">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1170</a></p>		
의미해석			
의미	백세(百世)를 이어가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역사	의미분류	

080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73호
명칭(한글)	대지재사	명칭(한자)	大枝齋舍
지역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갈길 107	지정일	1983. 09.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김양진(金楊震)		http://www.ugyo.net/tu/rin/rulings.jsp?sSiteCode=ycyh057#
인물(호)	허백당(虛白堂)		
연대	1467~1535		
인물정보	본관은 풍산, 자는 백기(伯起). 1497년(연산군 3) 별시문과에 급제. 폐비윤씨의 무덤의 이름을 정할 때 이를 반대하여 호명면 직산리 한갓으로 유배됨. 중종반정 이후로 풀려나 형조좌랑, 이조참판, 경주부윤, 황해도관찰사, 사간원사간, 동지돈녕부사 등을 역임.		
의미해석			
의미	대지에 있는 정사		
출처	대지는 호명면 직산리에 있는 한갓의 한자식 표현.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81	기초정보		
유형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76호
명칭(한글)	영동 영모재	명칭(한자)	永同 永慕齋
지역	충북 영동군 상촌면 관기길 16-3	지정일	1994. 12. 3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남주한(南周漢)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21,01760000,33
인물(호)			
연대	순조조		
인물정보	남주한의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곳으로 1828년(순조 28)에 지었으며, 1888년에 수리했음.		
의미해석			
의미	조상님을 길이 추모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조상 숭배

082		기초정보	
유형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190호
명칭(한글)	어변당	명칭(한자)	魚變堂
지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지정일	1979. 12.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곤(朴坤)		
인물(호)	어변당(魚變堂)		
연대	1391~1454		
인물정보	<p>본관은 밀양, 자는 순원(順元). 효성이 지극하여 생선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집 근처에 연못(적룡지(赤龍池))을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직접 길렀다고 함. 21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한 뒤에 이천현감, 예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 1419년 장군 최윤덕의 휘하에서 대마도 정벌하고 남해에 쳐들어오는 왜적들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움. 저서로 『어변당실기(魚變堂實記)』가 있음.</p> <p><a href="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1391_1_002772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1391_1_0027728&amp;curSetPos=0&amp;curSPos=0&amp;isEQ=true&amp;kristalSearchArea=B</a></p>		
의미해석			
의미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집		
출처	어변당의 박곤의 호. 원래 어변당 앞에 박곤이 만들었다는 적룡지(赤龍池)가 있다. 그는 이곳에다 물고기를 길러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였는데, 물고기가 효성에 감동하여 비늘을 남긴 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어변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분류			
원문분류	고사	의미분류	효도

083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34호
명칭(한글)	덕후루	명칭(한자)	德厚樓
지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숫골4길 252-1	지정일	1987. 12.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의장(朴毅長)		
인물(호)			
연대	1555~1615		
인물정보	<p>본관은 무안, 자는 사강(士剛).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한 뒤에 진해현감을 역임. 임진왜란 때 경주판관으로 경주성을 탈환하는 등 큰 공을 세움. 시호는 무의(武毅).</p> <p><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04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042</a></p>		
의미해석			
의미	두터운 덕을 이어가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조상 숭배

084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43호
명칭(한글)	용계정	명칭(한자)	龍溪亭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지정일	1989. 05.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문부(鄭文孚)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086&amp;cid=40942&amp;categoryId=33613">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086&amp;cid=40942&amp;categoryId=33613</a>
인물(호)	농포(農圃)		
연대	1565~1624		
인물정보	1588년(선조 21)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한성부참군이 됨.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이 되어 회령의 반란을 진압하고 크게 등용되어 영흥부사, 온성부사, 안변부사, 공주목사 등을 역임. 초희왕(楚懷王)에 대하여 지은 시로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였다가 신원되고 경성의 창렬사(彰烈祠) 등에 배향됨. 저서로 『농포집』이 있고 시호는 충의(忠毅).		
의미해석			
의미	용계(龍溪)에 있는 정자		
출처	용계정이 있는 덕동마을 앞으로 흐르는 용계천에서 따온 이름이다.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85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56호
명칭(한글)	효곡재사	명칭(한자)	孝谷齋舍
지역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로 365-35	지정일	1991. 03. 25.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송량(宋亮)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779">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779</a>
인물(호)	우곡(愚谷)		
연대	1534~1618		
인물정보	본관은 여산, 자는 경명(景明). 학행으로 정구(鄭逵)의 천거로 헌릉참봉이 되었고, 유곡도찰방, 한성참군, 상주목사 등을 역임. 저서로 『우곡문집』이 있음.		
의미해석			
의미	효곡에 있는 재사		
출처	효곡은 효곡재사가 있는 곳의 이름. 그가 사는 마을 소곡(所谷)을 효곡으로 부르게 된 것은 1584(선조 17) 이후부터라고 함.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86		기초정보	
유형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62호
명칭(한글)	금호재	명칭(한자)	琴湖齋
지역	경남 창원군 대합면 대동리 265	지정일	1988. 12. 2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이장곤(李長坤)		
인물(호)	금헌(琴軒), 학고(鶴臯), 금재(琴齋), 우만(寓灣)		
연대	1474~1519		
인물정보	<p>본관은 벽진, 자는 (希剛). 1502년(연산군 8)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이듬해에 거제도로 유배감. 중종반정 이후에 기용되어 홍문관부교리, 사헌부장령, 동부승지, 이조판서 등을 역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의 처형에 반대했다가 삭탈관직되자 경기도 여강과 경상도 창녕에 은거함. 저서로 『금헌집』이 있고, 시호는 정도(貞度). 이 집은 이장곤의 제사를 지내는 건물임. 원래 금호재는 용흥사의 부속 건물이었던 것을 1966년 이곳으로 옮겨 지어 이장곤 선생의 제사 건물로 삼은 것으로 보임.</p> <p><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2620000,38">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2620000,38</a></p>		
의미해석			
의미	금호(琴湖)에 있는 집		
출처	금호는 이 재사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87		기초정보	
유형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64호
명칭(한글)	추본사 명곡사	명칭(한자)	追本祠 明谷祠
지역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태리 572-2	지정일	1988. 12. 2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배지타(裴祗沱)		
인물(호)			
연대	사로국 시대		
인물정보	<p>이 집은 배씨의 시조 배지타를 비롯하여 본관이 다른 열두 분의 배씨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곳임. 1537(중종 32)에 상정에 지었으나 무너져서 1948년 현위치로 옮겼고, 1675(숙종 1)에 명곡에 명곡서원을 지었으나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헐렸다가 1938년에 상정에 명곡사로 다시 지었으며, 1948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음.</p> <p><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2640000,38">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2640000,38</a></p>		
의미해석			
의미	자신의 뿌리를 추모하는 사당/명곡에 있는 사당		
출처	명곡은 지명.		
분류			
원문분류	유교사상	의미분류	조상 숭배

088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71호
명칭(한글)	모고헌	명칭(한자)	慕古軒
지역	경북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106	지정일	1992. 07. 18.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규양(鄭葵陽)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9999
인물(호)	지수(篋叟)		
연대	1667~1732		
인물정보	본관은 오천, 자는 숙향(叔向). 퇴계학에 전념하면서 이형상, 윤증, 정제두, 정시한 등과 학문을 토론함.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의병장으로 추대되고도 했음. 저서로 『훈지문집』이 있음.		
	정규양이 1701년(숙종 27)에 지은 집으로 처음에는 '태고와(太古窩)'라 하였으나, 1730년(영조 6)에 문인들이 수리해서 모고헌이라 불렀음.		
의미해석			
의미	옛것을 사모하는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유교사상	의미분류	수양

089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77호
명칭(한글)	금대정사	명칭(한자)	金臺精舍
지역	경북 청송군 안덕면 속골길 1603	지정일	1993. 02. 25.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조수도(趙守道)/조함수(趙咸遂)/조동도(趙東道)/조함신(趙咸新)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21,02770000,37
인물(호)	신당(新堂)/?/지악(芝嶽)/?		
연대	1565~1593/?~?/1578~1668/?~?		
인물정보	함안 조씨 16대손인 조지(趙址)의 큰아들인 수도, 다섯째 아들인 동도와 손자 함수와 함신을 모시는 재실로 1736년(영조 12)에 처음 지어졌음.		
의미해석			
의미	신선이 사는 누대		
출처	금대는 원래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함		
분류			
원문분류	고사		의미분류
			은거



090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78호
명칭(한글)	종릉재사	명칭(한자)	鍾陵齋舍
지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석문리 10	지정일	1993. 02. 25.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유영순(柳永詢)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187&amp;cid=40942&amp;categoryId=3305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6187&amp;cid=40942&amp;categoryId=33058</a>
인물(호)	줄암(拙庵), 북천(北川)		
연대	1552~1630		
인물정보	본관은 전주, 자는 순지(詢之). 1579년(선조 1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우승지, 황해도관찰사, 성주목사, 정평부사, 경상도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역임. 이 집은 유빈(柳濱, ?~1509)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후손 유영순이 1606년(선조 39)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묘비와 함께 건립한 재실임.		
의미해석			
의미	종릉(鍾陵) 고개의 재사		
출처	종릉은 재사가 있는 곳의 지명.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91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297호
명칭(한글)	경수당 종택	명칭(한자)	慶壽堂 宗宅
지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길 28-13	지정일	1997. 09. 2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박세순(朴世淳)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618&amp;cid=16488&amp;categoryId=164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6618&amp;cid=16488&amp;categoryId=1648</a>
인물(호)	경수당(慶壽堂)		
연대	1539~1612		
인물정보	본관은 무안. 1599년(선조 32)에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서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지고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지냈음. 이 집은 무안박씨 영해파 입향조인 박지몽(朴之夢)의 손자인 박세순의 종택으로 1570년(선조 3)에 99칸 규모로 건립됨.		
의미해석			
의미	오래 살기를 경축하는 집		
출처	경수당은 박세순의 호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무병장수

092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02호
명칭(한글)	남성재	명칭(한자)	南城齋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남성안길 18-16	지정일	1998. 04. 1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습명(鄭襲明)		
인물(호)	형양(煥陽)		
연대	?~1151		
인물정보	영일정씨 형양공파의 시조. 묘청의 난 때 수군을 이끌고 막음. 1140년 김부식 등과 함께 시폐10조(時弊十條)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홀로 사직함. 1148년(의종 2)에 한림학사로 복귀하고 좌승선, 추밀원지주사 등을 역임. 김존중 등으로부터 비방을 받았고 병이 들어 김존중이 대직(代職)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이 집은 형양공 정습명을 모시는 재사임. 이 집의 편액은 후손인 정두화(鄭斗和, 1882~1939)가 썼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486			
의미해석			
의미	남성(南城)에 있는 재사		
출처	남성은 지명.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93		기초정보	
유형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07호
명칭(한글)	모리재	명칭(한자)	某里齋
지역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73	지정일	1995. 05. 02.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정온(鄭蘊)		
인물(호)	동계(洞溪), 고고자(鼓鼓子)		
연대	1569~1641		
인물정보	본관은 초계, 자는 휘원(輝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시강원검설서, 사간원정언 등을 역임. 영창대군이 피살되자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제주도로 위안치리되어 10년을 보냄. 인조반정 이후에 복직되어 이조참의, 대제학, 이조참판 등을 역임. 정묘호란 때 행재소로 왕을 호종했고, 당시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청과의 화의 주장을 적극 반대했음. 그 뒤 덕유산에 들어가 조를 심어 먹고 살다가 죽음. 시호는 문간(文簡).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610			
의미해석			
의미	모리(某里)에 있는 재사		
출처	정온이 만년에 이곳에 은거할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리(某里: 아무 마을)라고 했다고 전함.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94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33호
명칭(한글)	금산당	명칭(한자)	琴山堂
지역	경북 영천시 금호읍 중동길 23	지정일	2001. 11. 0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조병문(曹秉文)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475&amp;cid=1648&amp;categoryId=164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475&amp;cid=1648&amp;categoryId=1648</a> 금산당 안내판
인물(호)			
연대	1807~?		
인물정보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의 7세손인 조학신(曹學臣, 1732~1800)이 입향하여 형성된 집성촌에 장릉참봉을 지낸 조병문이 1900년에 둘째아들 조명환(趙命煥)의 살림집으로 지어준 집임. 이 집의 편액은 후손이자 현 소유주의 아버지인 금산(琴山) 조규엽(曹圭曄)이 썼음.		
의미해석			
의미	금산(琴山)에 있는 집		
출처	금산이라는 이름은 집 앞으로 흐르는 금호강(琴湖江)에서 유래하는 듯함.		
분류			
원문분류	지역	의미분류	지리
095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40호
명칭(한글)	영양 취수당	명칭(한자)	英陽 醉睡堂
지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28	지정일	2002. 08. 19.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오연(吳演)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8412">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8412</a>
인물(호)	취수당(醉睡堂), 둔재(遯齋)		
연대	1598~1669		
인물정보	본관은 함양, 자는 덕원(德源). 병자호란 때 쌍령 전투에 참여하여 포위망을 뚫고 오랑캐 추장 2명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돌아왔음. 그러나 남한산성의 비보를 듣고 칼을 버리고 낙향하여 사명단(思明壇)을 짓고 북쪽을 바라보며 지냈다고 함. 저서로 『취수당일고』가 있음. 이 집은 표은(瓢隱) 김시온(金是溫, 1598~1669)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정자를 세우고 지금의 이름을 붙였음.		
의미해석			
의미	취하여 자는 집		
출처	취사당은 오연의 호 취하여 잔다는 것에는 세상의 명리에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음.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은거

096	기초정보		
유형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70호
명칭(한글)	거창 만월당	명칭(한자)	居昌 滿月堂
지역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279-10	지정일	2001. 12. 20.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3170&amp;cid=40942&amp;categoryId=3361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3170&amp;cid=40942&amp;categoryId=33614</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1786년 증건한 가옥으로, 건립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창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곳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이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역사적인 장소임.		
의미해석			
의미	달빛이 가득한 집		
출처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풍류

097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지정번호	389호
명칭(한글)	성주 예산리 만산댁	명칭(한자)	星州 禮山里 晩山宅
지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30-2	지정일	2006. 09. 14.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만산댁 안내판 <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389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1,03890000,37</a>		
인물(호)			
연대			
인물정보			
가옥의 건립자 도문환(都文煥, 1887~1970)은 성주 지역의 선각적인 유림으로 계몽운동에 앞장선 만산(晩山) 도갑모(都甲模)의 아들로, 1920년대 성주지역의 청년운동과 신간회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음. 이 집은 1938년에 건립되었고, '만산고가(晩山古家)'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			
의미해석			
의미	저물녘의 산		
출처	만산은 도갑모의 호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은거

098		기초정보	
유형	전라남도시도기념물	지정번호	38호
명칭(한글)	빙월당	명칭(한자)	氷月堂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452	지정일	1979. 08. 03.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기대승(奇大升)		
인물(호)	고봉(高峯), 존재(存齋)		
연대	1527~1572		
인물정보	<p>본관은 행주, 자는 명언(明彦). 1558년(명종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이 됨. 1563년 사가독서하고 사정(司正)으로 있을 때 신진사류로 지목되어 훈구파에 의해 삭직되었다가 복직됨. 1568년 선조가 즉위하자 집의, 전한이 되고 조광조와 이언적에 대한 추증을 건의함. 1570년 대사성으로 있을 때 영의정 이준경과의 불화로 해직되었다가 부제학으로 복직됨. 1572년 대사간으로 복직되었다가 병으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전라도 고부에서 객사했음. 독학으로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하여 『주자문록(朱子文錄)』을 편찬했고, 이황의 제자가 되어 8년 동안 12차례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의론을 펼침으로써 조선 성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저서로 『고봉집』 등이 있음. 이 집의 편액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썼음.</p> <p><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0782&amp;cid=40942&amp;categoryId=3920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0782&amp;cid=40942&amp;categoryId=39201</a></p>		
의미해석			
의미	얼음처럼 맑은 달을 맞이하는 집		
출처	<p>『고봉집』 「치제문(致祭文)」에 보면, 효종이 을미년(1655, 효종 6) 4월 을묘삭 2일에 예조좌랑 원격(元格)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글에 “물 속의 달과 얼음으로 만든 호로병[수월빙호(水月氷壺)]”이라고 했음. 또한 후손인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송사집(松沙集)』 「빙월당중수상량문(氷月堂重修上梁文)」에서도 같은 말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곧 고봉 기대승의 고결한 인품을 형용하는 말이다. 일찍이 『송사(宋史)』 「이동열전(李侗列傳)」에서 주자(朱子)의 스승인 이동(李侗)의 인품을 “얼음으로 만든 호로병과 가을달[빙호추월(氷壺秋月)]과 같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니 우리들이 미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유래함.</p>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심신 수양
099		기초정보	
유형	경상북도시도기념물	지정번호	69호
명칭(한글)	사현정	명칭(한자)	四賢井
지역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540외 2필	지정일	1986. 12. 1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안축(安軸)		
인물(호)	근재(謹齋)		
연대	1282~1348		
인물정보	<p>고려시대 후기 안석(安碩)과 그의 세 아들인 안축, 안보(安輔, 1303~1357), 안집(安輯)이 쓰던 우물임. 이곳에는 현재 ‘사현정각(四賢井閣)’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음.</p> <p><a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3,00690000,37">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amp;VdkVgwKey=23,00690000,37</a></p>		
의미해석			
의미	네 분 현인들의 우물		
출처	네 분이란 안석과 그 아들들인 안축, 안보, 안집을 가리킨다.		
분류			
원문분류	인물	의미분류	조상 숭배

100		기초정보	
유형	충청북도시도기념물	지정번호	74호
명칭(한글)	괴산 수월정	명칭(한자)	槐山 水月亭
지역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245	지정일	1987. 03. 31.
관련인물			출처
인물(이름)	노수신(盧守愼)		
인물(호)	소재(蘇齋), 이재(伊齋), 암실(暗室), 여봉노인(茹峰老人)		
연대	1515~1590		
인물정보	본관은 광주, 자는 과회(寡梅). 1543년(중종 38) 식년문과에 장원하고 전적, 수찬, 시강원사서를 거쳐서 사가독서함. 명종 즉위 초에 대윤(大尹) 편에 있다가 소윤(小尹)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파직되어 순천으로 유배 감. 다시 양재역 벽서사간으로 연루되어 진도로 이배(移配)되어 19년 동안 귀양살이를 함. 이 사이에 이황, 김인후 등과 서신으로 학문을 토론했음. 1565년 괴산으로 이배되었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풀려난 뒤에 교리, 대사간,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과거에 정여립을 천거한 일로 파직됨. 저서로 『소재집』이 있고, 시호는 문의(文懿)인데 문간(文簡)으로 고쳐짐. 이 집은 괴산에 이배되었을 때 그가 귀양살이하던 곳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2812		
의미해석			
의미	물 속에 잠긴 달의 집		
출처	물 속에 잠긴 달은 물속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비유한다.		
분류			
원문분류	자연	의미분류	심신 수련

## 2. 당호관련 조사대상 건축물 목록

□ 총 337개소 : 국가지정 57개소, 지방지정 280개소

	주소	당호	지정	
1	경북 안동시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306호
2	경북 경주시	경주 양동 향단	보물	412호
3	경북 안동시	안동 하회 충효당	보물	414호
4	경북 안동시	안동 소호헌	보물	475호
5	경북 영천시	영천 송렬당	보물	521호
6	경북 안동시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553호
7	대구 달성군	달성 태고정	보물	554호
8	경북 상주시	상주 양진당	보물	1568호
9	전남 해남군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사적	167호
10	서울 성북구	성락원	사적	378호
11	강원 강릉시	강릉 임영관	사적	388호
12	강원 강릉시	강릉 선교장	중요민속문화재	5호
13	강원 강릉시	강릉 선교장 열화당	중요민속문화재	5-1호
14	경북 경주시	양동 서백당	중요민속문화재	23호
15	경북 영천시	영천 매산고택및산수정	중요민속문화재	24호
16	경북 경주시	양동 낙선당	중요민속문화재	73호
17	경북 경주시	양동 사호당고택	중요민속문화재	74호
18	경북 경주시	양동 상춘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75호
19	경북 경주시	양동 근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76호
20	경북 경주시	양동 두곡고택	중요민속문화재	77호
21	경북 경주시	양동 수졸당	중요민속문화재	78호
22	경북 경주시	양동 강학당	중요민속문화재	83호
23	경북 안동시	하회 빈연정사	중요민속문화재	86호
24	경북 안동시	하회 옥연정사	중요민속문화재	88호
25	경북 안동시	하회 겸암정사	중요민속문화재	89호
26	경북 구미시	구미 쌍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05호
27	경북 청도군	청도운강 고택및만화정	중요민속문화재	106호
28	경북 영천시	일심당	중요민속문화재	107호
29	충북 영동군	영동 소석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32호
30	충북 영동군	영동 규당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40호
31	전남 곡성군	군지촌정사	중요민속문화재	155호
32	전남 장흥군	장흥 존재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61호
33	경북 영덕군	영덕 충효당	중요민속문화재	168호
34	경북 봉화군	해저 만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69호
35	경북 봉화군	거촌리 쌍벽당	중요민속문화재	170호

	주소	당호	지정	
36	경북 청송군	청운동 성천덕	중요민속문화재	172호
37	경북 예천군	울현동 물체당	중요민속문화재	174호
38	경북 영천시	영천만취당	중요민속문화재	175호
39	경북 안동시	가일수곡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76호
40	경북 안동시	하회동하동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77호
41	경북 안동시	안동 학암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79호
42	경북 안동시	만운동 모선루	중요민속문화재	180호
43	경남 함양군	함양일두고택	중요민속문화재	186호
44	경북 안동시	안동송소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03호
45	경남 합천군	합천묘산묵와고가	중요민속문화재	206호
46	경북 의성군	의성 소우당	중요민속문화재	237호
47	경북 예천군	예천의성김씨남약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48호
48	경북 봉화군	송석헌	중요민속문화재	249호
49	경북 안동시	안동송소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03호
50	경북 영주시	영주 괴현고택	중요민속문화재	262호
51	전남 나주시	나주 남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263호
52	경북 안동시	안동 귀봉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67호
53	경북 안동시	안동 변남택	중요민속문화재	268호
54	전남 장흥군	장흥 신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269호
55	경북 영덕군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71호
56	전남 장흥군	장흥 오현고택	중요민속문화재	270호
57	충남 논산시	논산 백일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273호
58	경기 광주시	광주 송혈전	경기도시도유형문화재	2호
59	제주 제주시	제주 향사당	제주특별자치도시도유형문화재	6호
60	인천 강화군	강화 용흥궁	인천광역시시도유형문화재	20호
61	서울 종로구	석파정 별당	서울특별시시도유형문화재	23호
62	경북 안동시	안동 탁청정 종가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6호
63	대구 달성군	달성 도곡재	대구광역시시도유형문화재	32호
64	강원 강릉시	강릉 계련당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39호
65	강원 강릉시	강릉 임경당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46호
66	경북 고령군	고령 만남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48호
67	충북 괴산군	괴산 애한정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50호
68	경북 영양군	영양 월담헌 및 사월종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52호
69	강원 강릉시	강릉 상임경당	강원도시도유형문화재	55호
70	경북 영천시	영천 오회당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76호
71	경북 영천시	영천 동린각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77호
72	경북 경산시	경산 난포고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80호
73	경북 영주시	영주 우금촌 두암고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81호
74	경북 영천시	영천 호수종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90호



	주소	당호	지정	
75	서울 종로구	종로 침류각	서울특별시시도유형문화재	103호
76	충북 청주시	청주 망선루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110호
77	충북 영동군	영동 사로당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151호
78	충남 청양군	청양 영모재	충청남도시도유형문화재	154호
79	경북 성주군	성주 백세각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163호
80	경북 예천군	예천 대지재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173호
81	충북 영동군	영동 영모재	충청북도시도유형문화재	176호
82	경남 밀양시	밀양 어변당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190호
83	경북 영덕군	영덕 덕후루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34호
84	경북 포항시	포항 용계정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43호
85	경북 상주시	상주 효곡재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56호
86	경남 창녕군	창녕 금호재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262호
87	경남 합천군	합천 추본사.명곡사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264호
88	경북 영천시	영천 모고헌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71호
89	경북 청송군	청송 금대정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77호
90	경북 영주시	영주 종릉재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78호
91	경북 영덕군	영덕 경수당 종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297호
92	경북 포항시	포항 남성재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302호
93	경남 거창군	거창 모리재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307호
94	경북 영천시	영천 금산당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333호
95	경북 영양군	영양 취수당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340호
96	경남 거창군	거창 만월당	경상남도시도유형문화재	370호
97	경북 성주군	성주 예산리 만산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389호
98	광주 광산구	광산 빙월당	전라남도시도기념물	38호
99	경북 영주시	영주 사현정	경상북도시도기념물	69호
100	충북 괴산군	괴산 수월정	충청북도시도기념물	74호
101	충북 청주시	청주 무농정	충청북도시도기념물	85호
102	전남 화순군	화순 학포당	전라남도시도기념물	92호
103	경북 안동시	안동 의성김씨 학봉종택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12호
104	경북 안동시	안동 백하구려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37호
105	경북 봉화군	봉화 개암종택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38호
106	경북 고령군	고령 죽유고택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39호
107	경북 안동시	안동 자태사공 성곡재사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55호
108	경북 울진군	울진 대풍헌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65호
109	경북 안동시	안동 정재종택	경상북도시도기념물	170호
110	경북 안동시	안동 서부동 송곡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호
111	전북 전주시	전주 학인당	전라북도시도민속문화재	8호
112	경북 안동시	안동 토계동 계남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호
113	충북 청원군	청원 과필헌	충청북도시도민속문화재	8호

	주소	당호	지정	
114	경북 안동시	안동 토계동 향산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호
115	서울 광진구	광진 도정궁 경원당	서울특별시시도민속문화재	9호
116	제주 서귀포시	수산 본향당	제주특별자치도시도민속문화재	9-4호
117	경북 안동시	안동 원촌동 치암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1호
118	전남 영암군	영암 집영재	전라남도시도민속문화재	16호
119	서울 노원구	월계동 각심재	서울특별시시도민속문화재	16호
120	경북 구미시	구미 용와종택 및 침간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8호
121	경북 안동시	안동 목계서원 및 안동김씨 목계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9호
122	경북 영천시	영천 완귀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0호
123	경북 안동시	안동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1호
124	서울 종로구	송보사	서울특별시시도민속문화재	21호
125	경북 안동시	안동 태장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6-2호
126	경북 안동시	안동 고직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6-3호
127	경북 안동시	안동 태고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7-2호
128	경북 안동시	안동 남흥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28호
129	경북 안동시	안동 광감루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0-3호
130	경북 안동시	안동 동서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0-4호
131	경북 상주시	상주 우복 종가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1호
132	경북 안동시	안동 구봉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5호
133	경북 안동시	안동 전주유씨 삼산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6호
134	전남 담양군	담양 미암사당	전라남도시도민속문화재	36호
135	경북 안동시	안동 세덕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37호
136	경북 영양군	주곡동 옥천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2호
137	경북 성주군	성주 응와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4호
138	경북 성주군	대산동 한주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5호
139	전남 장흥군	장흥 방촌리 근암고택	전라남도시도민속문화재	46호
140	경북 성주군	대산동 월곡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6호
141	전남 강진군	강진 효정재	전라남도시도민속문화재	47호
142	전남 보성군	보성 충의당	전라남도시도민속문화재	48호
143	경북 안동시	안동 이우당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49호
144	경북 안동시	안동 의성김씨 운암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0호
145	경북 봉화군	봉화 오고당구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2호
146	경북 봉화군	봉화 경암한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3호
147	경북 봉화군	봉화 도암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4호
148	경북 안동시	지례동 양동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8호
149	경북 구미시	망천동 임당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59호
150	경북 영덕군	인량리 용암종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61호
151	경북 고령군	고령 점필재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62호

	주소	당호	지정	
152	경북 영양군	영양 학초정 및 정집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64호
153	경북 영주시	영주 괴현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65호
154	경북 안동시	안동 삼소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66호
155	경북 상주시	상주 수암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70호
156	경북 안동시	안동 주하동 경류정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72호
157	경북 영양군	영양 회곡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79호
158	경북 포항시	포항 오덕리 애은당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0호
159	경북 포항시	포항 오덕리 사우정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1호
160	경북 영덕군	영덕 도곡동충효당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83호
161	경북 안동시	안동 목재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5호
162	경북 성주군	성주 수성리 중매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6호
163	경북 영천시	영천 환구 세덕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7호
164	경북 영천시	영천 양계정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88호
165	경북 청도군	청도 윤곡정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0호
166	경북 영양군	영양 석계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1호
167	경북 영주시	영주 해우당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2호
168	경북 영주시	영주 만죽재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3호
169	경북 경주시	경주 귀래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4호
170	경북 영덕군	영덕 면운재고택	경상북도시도유형문화재	96호
171	경북 봉화군	봉화 빈동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97호
172	경북 청송군	청송 서벽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01호
173	경북 예천군	예천 춘우재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02호
174	경북 예천군	예천 연곡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03호
175	경북 봉화군	봉화 서설당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04호
176	경북 영양군	영양 원리 주곡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14호
177	경북 봉화군	봉화 만산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21호
178	경북 안동시	안동 산수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22호
179	경북 영덕군	영덕 곡강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23호
180	경북 안동시	안동 풍산유씨 수동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27호
181	경북 안동시	안동 제산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29호
182	경북 안동시	안동 수줄당 및 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30호
183	경북 안동시	안동 원주변씨 간재공종택 및 간재정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31호
184	경북 성주군	성주 대산리 도동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32호
185	경북 영양군	영양 송조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37호
186	경북 포항시	포항 달전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43호
187	경북 안동시	안동 송석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45호
188	경북 안동시	안동 죽현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46호
189	경북 안동시	안동 소산동 동야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47호
190	경북 안동시	안동 삼벽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3호

	주소	당호	지정	
191	경북 영주시	영주 평은리 양지암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2호
192	경북 상주시	상주 의암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3호
193	경북 청송군	청송 사남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4호
194	경북 청송군	청송 기곡재사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5호
195	경북 울진군	울진 평해항씨 해월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61호
196	경북 포항시	포항 여연당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8호
197	경북 성주군	성주 대산리 하회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76호
198	경북 성주군	성주 극와고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77호
199	경남 창원시	창원 월영대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호
200	강원 강릉시	강릉 보진당	강원도문화재자료	6호
201	경남 통영시	통영 백운서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9호
202	경남 진주시	진주 동산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4호
203	경기 광주시	광주 지수당	경기도문화재자료	14호
204	대구 수성구	수성 야수정	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	14호
205	대전 서구	수정재	대전광역시문화재자료	30호
206	대전 동구	월송재	대전광역시문화재자료	31호
207	경북 안동시	안동 지촌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4호
208	경북 안동시	안동 국탄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5호
209	경북 안동시	안동 윤천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8호
210	경북 구미시	구미 삼가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0호
211	경북 구미시	구미 수남위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1호
212	경북 구미시	구미 임하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3호
213	경북 구미시	구미 근암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5호
214	경북 안동시	안동 수애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6호
215	경북 구미시	구미 호고와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7호
216	충북 보은군	보은 고현재	충청북도문화재자료	72호
217	충북 옥천군	옥천 영모재	충청북도문화재자료	75호
218	경북 영양군	영양 약산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81호
219	충북 청원군	청원 백석정	충청북도문화재자료	82호
220	경남 창원시	창원 몽고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82호
221	경북 영양군	영양 오류정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82호
222	경북 영덕군	송천 세례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86호
223	경기 광명시	오리 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경기도문화재자료	90호
224	경북 경주시	경주 종덕재정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91호
225	경기 안산시	안산 청문당	경기도문화재자료	94호
226	경북 영천시	영천 지산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99호
227	경남 합천군	합천 사의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03호
228	충남 부여군	부여 팔각정	충청남도문화재자료	103호
229	경기 화성시	남양 풍화당	경기도문화재자료	112호

	주소	당호	지정	
230	경남 밀양시	밀양 의첨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30호
231	경남 창원시	창원 경행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32호
232	전남 보성군	보성 취송정	전라남도문화재자료	136호
233	경북 예천군	예천 미산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37호
234	전남 순천시	순천 향약재	전라남도문화재자료	141호
235	경북 봉화군	봉화 무진장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52호
236	경남 밀양시	밀양 추원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59호
237	경북 울진군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경상북도시도민속문화재	156호
238	전남 장흥군	장흥 무계고택	전라남도문화재자료	161호
239	경북 성주군	성주 완정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63호
240	경북 안동시	안동 죽헌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64호
241	경남 합천군	합천 덕암정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68호
242	전북 남원시	남원 양대박부자 충의문	전라북도문화재자료	170호
243	경남 합천군	합천 주필각 및 월화당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73호
244	경북 영양군	영양 가곡동 월암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95호
245	경북 영덕군	괴시동 대남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97호
246	경남 산청군	산청 송계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199호
247	경북 영덕군	괴시동 해촌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199호
248	경북 포항시	포항 영일 기천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05호
249	경북 영덕군	영덕 만괴헌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09호
250	경북 영덕군	영덕 수정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10호
251	경북 군위군	귀위 광석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14호
252	경북 봉화군	봉화 상리 추원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18호
253	전남 장성군	장성 이진화가옥사랑채[야은재]	전라남도문화재자료	242호
254	경북 칠곡군	칠곡 묵헌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45호
255	경북 안동시	안동 반구정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58호
256	경북 안동시	안동 두릉구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59호
257	경북 청도군	청도 섬암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68호
258	경북 청도군	청도 명종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69호
259	경북 청도군	청도 운남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0호
260	경북 청도군	청도 도일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1호
261	경남 밀양시	밀양 만운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272호
262	경북 안동시	안동 금곡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2호
263	경북 칠곡군	칠곡 해은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5호
264	경북 영덕군	영덕 대은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78호
265	경북 성주군	봉두리 영모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81호
266	경북 영양군	영양 유우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85호
267	경북 청송군	청송 기곡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91호

	주소	당호	지정	
268	경북 영덕군	영덕 존재종택 및 명서암 우현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	293호
269	경남 고성군	고성 소산정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293호
270	경북 봉화군	봉화 백암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03호
271	경북 영덕군	영덕 사암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06호
272	충남 논산시	논산 모선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307호
273	경북 경주시	경주 덕봉정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13호
274	경남 합천군	합천 영사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323호
275	경북 안동시	안동 남천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24호
276	경북 청송군	화지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25호
277	경북 성주군	대산리 하회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26호
278	경남 산청군	산천 이사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328호
279	경북 안동시	인금리 월오헌 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30호
280	경북 예천군	상금곡 사괴당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37호
281	경북 봉화군	봉화군 해와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38호
282	경북 청송군	청송 사남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40호
283	경남 진주시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경상남도문화재자료	345호
284	경북 군위군	군위 상매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57호
285	경북 영덕군	영덕 강파헌정침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58호
286	경북 의성군	의성 윤곡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74호
287	경북 의성군	의성 소계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76호
288	경북 의성군	의성 서계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77호
289	경북 영덕군	영덕 천전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78호
290	충남 논산시	논산 영사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383호
291	경북 영덕군	영덕 번호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79호
292	충남 계룡시	두마 신원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379호
293	경북 영덕군	영덕 대봉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81호
294	경북 성주군	성주 기국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82호
295	충남 논산시	연산 영사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378호
296	경북 봉화군	봉화 남호구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85호
297	경북 김천시	김천 성산여씨 하회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88호
298	경북 구미시	구미 모원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0호
299	경북 영덕군	영해 주곡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3호
300	경북 영덕군	영해 구계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6호
301	경북 영덕군	괴시리 괴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7호
302	경북 영덕군	각리 언곡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8호
303	경북 영덕군	오촌리 갈암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399호
304	경남 김해시	김해 시례리 염수당	경상남도문화재자료	402호
305	경북 포항시	포항 월동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06호
306	경북 안동시	안동 한산이씨 대산종가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08호

	주소	당호	지정	
307	경북 안동시	전주류시 호암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09호
308	경북 영덕군	영덕 화재 및 육영루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16호
309	경북 봉화군	봉화 기현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19호
310	경남 창녕군	창녕 우천리 반곡고택	경상남도문화재자료	420호
311	경북 청송군	청송 초전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21호
312	경북 청송군	청송 덕양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29호
313	경북 영양군	영양 월잠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30호
314	경북 성주군	성주 추원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31호
315	경북 안동시	안동 천전리 추파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32호
316	경북 안동시	안동 칩와당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36호
317	경북 영양군	영양 하담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41호
318	경북 봉화군	봉화 팔오헌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45호
319	경남 산청군	산청 안봉리 수월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454호
320	경북 영양군	영양 태화당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77호
321	경남 의령군	의령 벽계리 청금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484호
322	경북 예천군	예천 석문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92호
323	경북 영양군	영양 주강정 및 사고종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499호
324	경남 의령군	의령 입산리 고산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517호
325	경남 의령군	의령 전화리 칠우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518호
326	경남 의령군	의령 전화리 의동정	경상남도문화재자료	519호
327	경남 의령군	의령 전화리 운곡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520호
328	경남 의령군	의령 내재리 소강재	경상남도문화재자료	523호
329	경북 봉화군	봉화 옥류암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31호
330	경북 봉화군	봉화 와선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32호
331	경북 봉화군	봉화 공북헌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37호
332	경북 봉화군	봉화 해은구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60호
333	경북 상주시	상주 취은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82호
334	경북 칠곡군	칠곡 경수당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83호
335	경북 안동시	안동 진성이씨 두솔원재사	경상북도문화재자료	588호
336	경북 성주군	성주 죽백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602호
337	경북 영양군	영양 석간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603호

## 부록 3. 국가지정문화재 안내문안 분석 기초자료

1. 국가지정문화재 안내문안 사례현황
2. 경상북도 내 주거건축 중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문안  
현황 분석

### 1. 국가지정문화재 안내문안 사례현황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주거건축’ 분야에서 검색되는 문화재수는 총 1069개
- 주거건축 문화재중 2013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는 184개로 확인
  - 184개 중 우물, 굴뚝, 마을, 터, 연못, 사찰시설 등 전통한옥이 아닌 것 22개 제외
- 국내 주거건축 문화재 중 전통한옥은 162개로 확인되고 그 중 43%인 69개(보물 11개, 중요민속문화재 58개)가 경상북도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내의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통한옥의 안내문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향후 전국단위의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2. 경상북도 내 주거건축 중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문안 현황 분석(총 69개)

명칭	안내문안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306호	<p>(인물)이 건물은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 1539 ~ 1601)이 살던 집으로 풍산류씨 대종가이다. (건립)160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회 북촌(北村)을 대표하는 가옥으로 안채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그 후에 다시 지었다 한다. (배치)이 건물은 ‘口’ 자형의 안채와 ‘一’ 자형의 사랑채, 그리고 一 자형의 행랑채로 고성되어 있다. (지붕)사랑채의 구조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 지붕이다. (가구)높은 축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주위에 난간을 둘러 마치 누각(樓閣)과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평면)사랑채의 앞에는 넓은 사랑마당을 사이에 두고 一 자형 행랑채가 있는데 출입문의 역할을 한다. (배치)안채는 큰 안방과 안대청이 있으며 사랑채와는 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 뒤에는 두 개의 사당이 있다.</p>
글자수	378자
양동 무침당  보물 제411호	<p>(인물)이 집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며 문신이었던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의 (건립)종가 별당으로 세운 건물이다. (기능)이 집은 상류주택에 속해있는 사랑채의 연장 건물로 손님 접대, 휴식, 책 읽기 등 여러 용도로 쓰이던 곳이다. (입지)마을 서북쪽 산등성에 남향하여 있다. (배치)우측에는 사랑채, 안채, 행랑채로 이루어진 ‘口’ 자형 본채가 있고 그 뒤편 높은 곳에 사당이 있다. (평면)이 건물에는 ‘ㄱ’ 자형 평면에 온돌방, 대청, 누마루를 두었으며, (가구)등근 기둥과 네모기둥을 함께 쓴 것이 특징이다. (구성)은퇴한 주인이 여생을 즐기는 별당으로 난간, 초석 등을 화려하게 꾸몄을 뿐 아니라 공간의 확장 등 다목적의 들문을 적절히 시설하여 건물의 기능을 한껏 살린 뛰어난 집이다. (기타)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별당건축의 기능에 충실하게 지은 건축물이다.</p>
글자수	407자
경주 양동 향단  보물 제412호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있을 때, (건립)모친의 병간호를 하도록 중종(中宗)이 지어 준 집이다. (배치)두 곳에 뜰을 두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를 붙여 한 몸체를 이루고 2개의 마당이 있는 독특한 평면형태를 구성하였다. (가구)그리고 개인집으로서 건물 전체에 등근 기둥을 사용하여 상류층 주택의 격식을 갖추었다. (건립)원래 99칸이었다고 전하나 일부는 불타 없어지고 현재 50여 칸이 보존되고 있다. (구성)이 건물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와 모습뿐만 아니라 상류주택의 일반적 격식에서 과감히 벗어난 형식으로, 주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한 우수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p>
글자수	353자
경주 독락당	<p>(입지)이 건물은 옥산서원(玉山書院) 뒤편에 있으며 (인물)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지은 사랑채이다.</p>

명칭	안내문안
보물 제413호	<p>(건립)조선 중종(中宗) 11년(1516)에 세웠으며, 일명 옥산정사(玉山精舍)라고도 한다.</p> <p>(평면)낮은 단위에 세워진 건물로 앞면이 4칸, 옆면이 2칸이다.</p> <p>(지붕)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八作)지붕이다.</p> <p>(평면)3칸은 대청이고 나머지는 칸을 막아 온돌방으로 하였다.</p> <p>(가구)건물은 등근 기둥을 세우고 대청 천장은 뼈대가 모두 노출된 연등천장이다.</p> <p>(구성)이 건물 옆쪽 담장에는 좁은 나무로 살을 대어 만든 창을 달아서 대청에서 살창을 통해 앞 계곡의 냇물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아주 특별한 공간구성(空間構成)이며, 뒤쪽의 계정(溪亭) 또한 자연에 융화시키고자 한 의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p>
글자수	408자
안동 하회 충효당	<p>(인물)이 건물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후손과 문하생들이 그의 덕을 기리는 뜻에서 (건립)1600년대에 지은 가옥이다. 출재(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1674)가 처음 건립하였고, 그 후 그의 증손 익찬(翼贊) 류의하(柳宜河)가 전체 52칸으로 확장한 목조 건물이다.</p> <p>(배치)집 앞에 행랑채가 길게 가로 놓여 있고 그 뒷편에 ‘ㄱ’ 자형 안채와 ‘ㄷ’ 자형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 뒤쪽에는 따로 사당이 마련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서애의 유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영모각 永慕閣)이 있다.</p>
보물 제414호	
글자수	276자
안동 의성김씨 종택	<p>(건립)이 건물은 16세기에 불타 없어졌던 것을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다시 건립한 것이다.</p> <p>(인물)16세기 말 학봉이 명나라 사행길에 북경(北京)에서 그곳 상류층 주택의 설계도를 가져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 배치나 구조에 있어서 독특한 점이 많다.</p> <p>(배치)‘ㄱ’ 자형 안채와 ‘ㄷ’ 자형 사랑채가 행랑채 및 다른 건물과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ㅁ’ 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다른 ‘ㄱ’ 자형 안채와 달리 안방이 사랑채보다 외부에 있다.</p> <p>(구성)사랑채는 별채처럼 외진 곳에 배치되어 손님이 행랑채의 대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지만 주인이 거처하는 방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p> <p>(가구)사랑채와 안채는 1.6m가량의 기단 위에 세워져 바깥채보다 높다. 사랑채에 이어지는 부속채는 완전한 2층 구조인데</p> <p>(기능)윗층은 서고(書庫)로 아래층은 헛간으로 되어 있다.</p>
보물 제450호	
글자수	427자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p>(인물)이 집은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조부인 권오상(權五常)이 지었다고 전한다.</p> <p>(가구)평지 위에 집을 세우고 난간을 돌려서 다락집 모양으로 꾸민 별당 형식의 집이다.</p> <p>(평면)평면의 구성은 왼쪽에 온돌방을 꾸미고, 오른쪽 3칸에 넓은 대청을 들였는데, 대청 앞면은 문짝 없이 그대로 개방하고 옆면과 뒷면은 판벽을 쳤다.</p> <p>(가구)기둥은 네모로 다듬고 주두만을 얹어 지붕틀을 받치도록 해서 외모는 간소하게 처리했으나 (구성)집 내부는 상당히 공을 들여 꾸몄다.</p> <p>(입지)죽림리 마을은 풍수지리상 명당자리로도 유명하다.</p>
보물 제457호	
글자수	278자
안동 소호헌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중종(中宗)때의 학자 함재(涵齋) 서해(徐海)가</p> <p>(건립)서실(書室)로 쓰기 위해 명종(明宗)때 지은 별당이다.</p> <p>(지붕)단층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p>

명칭	안내문안
보물 제475호	(평면)정면 4칸, 측면 2칸의 별당건축으로 오른쪽 3칸은 넓은 대청이 되고 오른쪽 1칸은 누마루로 만들었다. 대청에는 ‘ㄱ’ 자형으로 2칸×1칸의 방이 있다. 전체의 평면은 ‘ㄷ’ 자형이다. (인물)동편 건물은 함재 서해의 아들인 약봉(藥峯) 서성(徐成, 1558~1631)의 태실(胎室)이다.
글자수	240자
영천 승렬당	(건립)이 건물은 조선 세종(世宗) 15년(1433)에 건립된 중국식 건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아름답고 특이하다. (인물)세종 원년(1419)에 쓰시마(대마도)정벌과 야인(野人) 토벌 등에 큰 공적을 남겨 일명 북장군이라 불리었던 위양공(威讓公) 이순몽(李順蒙)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평면)민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면 5칸, 측면 3칸의 15칸으로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중앙의 3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2통칸 온돌방을 둔 강당형 구성이다.
보물 제521호	(가구)조선 초기 2익공계(翼工系)의 구조를 잘 보여 주며, (구성)온돌방의 불박이 광창은 옛날 양식을 보여준다. (지붕)맞배지붕으로 좌우 온돌방 상부는 가적 지붕을 설치한 독특한 양식이다. (인물)이순몽 장군이 후손을 두지 못함으로써 영천의 유림들이 장군의 위패를 받들고 봄·가을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글자수	393자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인물)이 집은 예안이씨 16세손 근재공(近齋公)의 둘째 아들 풍은(豐隱) 이홍인(李洪仁, 1528~1594)의 종택이다. (건립)조선 명종(明宗) 16년(1551)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치)안동지방에서 ‘ㄱ’ 자형 몸체와 ‘ㄷ’ 자형 별당인 쌍수당(雙修堂)으로 구성되었다. 남쪽과 서쪽에 외부로 통하는 대문이 있다. 남쪽은 본래 대문이고 서쪽은 현재 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깥채가 철거된 후에 출입문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보물 제553호	(당호) ‘쌍수당’ 이란 한 집안에 충과 효가 함께 전해 내려온다는 의미로 충신 이홍인과 그의 8세손 이한오(李漢伍)의 효를 기리는 곳이다.
글자수	304자
상주 양진당	(인물)이 건물은 조선 중기 문신인 금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건립)인조(仁祖) 4년(1626)에 짓기 시작하여 동왕 6년(1628)에 건립한 가옥이다. 순조(純祖) 7년(1807) 중수와 함께 옛 모습을 유지해 오다가 1966년 대흥수로 사랑채 등이 유실되었다 한다. 그 후 1980년 해체하고 이듬해 부분 복원과 함께 재정비 공사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물 제1568호	(입지)승곡리의 넓은 들판 한쪽 평지에 낮은 구릉을 뒤로 한 곳에 동남향하고 있다. (배치)들판쪽으로 나 있는 대문을 들어서면 본채와 날개채가 ‘ㄷ’ 자형을 이루고 있다. 원래 99칸의 ‘튼 ㅁ자’ 형 큰 집이었으나, 지금은 ‘ㄷ’ 자집 앞의 ‘ㄷ’ 자형 문간채와 뒤의 사당 그리고 포사채 등 부속채가 철거되고 없다. (구성)상습적 침수지역에 마치 누각처럼 지은 외관과 다소 복잡하면서 치밀한 내부 공간구성 그리고 정성어린 조형 사상을 읽게 하는 목조 수법들이 돋보이는 보기 드문 상류주택이다.
글자수	467자
양동 서백당	(건립)이 가옥은 월성 손씨 종택으로 양민공 손소(1433~1484)가 지은 것이다. (인물)그의 아들인 우재 손중돈(1463~1529)과 그의 외손이자 동당오현 중 한 사람인 회재 이언

명칭	안내문안
중요민속 문화재 제23호	<p>적이 태어난 곳으로 송첨이라고도 불리운다.</p> <p>(배치) ‘一’ 자형의 대문채 안에 ‘口’ 자형의 안채가 있는데</p> <p>(평면)대청 6칸, 안방 3칸, 부엌 2칸이다. 아래채의 중심칸이 안대문이고 그 왼쪽은 2칸마루 고방이며, 오른쪽은 큰사랑방과 사랑대청이다.</p> <p>(가구)높은 돌기단 위에 있는 사랑대청은 마루 둘레에 난간을 돌린 누마루이다.</p> <p>(조경)사랑대청 옆 정원쪽으로 짙막한 상징적 담장이 있으며, 정원 위쪽에는 사당이 있다.</p> <p>(기타)조선 초기 양반집의 일반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종가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춘 큰 가옥이며, (조경)사랑마당에 있는 향나무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p>
글자수	453자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p>(건립)이 건물은 18세기 중엽 매산(梅山) 정중기(鄭重器, 1685~1757)가 건축을 시작하여 그의 둘째 아들 정일찬(鄭一鑠)이 완성하였다고 전한다.</p> <p>(배치)건물은 대문간채, 정침, 사당, 산수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방앗간채, 아랫 사랑채가 있었다.</p> <p>(가구)3칸의 솥대문을 들어서면 약 1.5m 높이의 기단 위에 본채가 서 있다.</p> <p>(평면)본채는 안동 지방의 전형적인 ‘口’ 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p> <p>(구성)안채의 대청은 둥근 기둥을 쓰고 머리에는 초익공(初翼工)의 공포를 짜는 등의 장식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법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이 가옥은 북부지방의 뜰집형으로서 안대청을 흰칠하게 한것 과 사랑채에 누마루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양쪽 온돌방은 앞쪽 과 뒷쪽에 뒷마루를 두었고 가운데 청(廳)과 연결되어 정(亭)의 앞면에서 옆면으로 꺾어 난간(欄干)을 만들었다.</p> <p>(기타)이 집의 서북(西北)쪽 산골짜기 바위벽에는 ‘산수정(山水亭)’ 이라는 3칸 정자(亭子)를 두었다.</p>
글자수	475자
경주교동 최씨고택	<p>(건립)이 가옥은 경주최씨(慶州崔氏)의 종가로서 1700년경에 건립되었다고 한다.</p> <p>(입지)월성(月城)을 끼고 흐르는 남천(南川) 옆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았고,</p> <p>(배치)문간채 · 사랑채 · 안채 · 사당 · 고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99칸이었다고 하는데 사랑채와 별당은 1970년 불타고 주춧돌만 남았다.</p> <p>(평면)안채는 ‘口’ 자 모양이고 대문채는 ‘一’ 자 모양이다.</p> <p>(구성)사당(祠堂)은 사랑채와 서당으로 이용된 별당 사이에 배치되어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한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p> <p>(인물)최씨 집안이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이곳 교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은 조선 중기 무렵이다. 여기에서 만석지기 재산을 12대 동안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하였다고 한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7호	
글자수	385자
경주 김호장군 고택	<p>(건립)이 가옥은 400여년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집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이다.</p> <p>(인물)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던 부산첨사(釜山僉使) 김호(金虎)장군의 생가로 전해지고 있다.</p> <p>(배치)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기와집 안채가 있고, 서쪽에 초가집 행랑채를 두었으며 동북쪽에 사당(祠堂)을 두었다.</p>
중요민속 문화재	

명칭	안내문안
제34호	<p>(평면)안채는 앞면 5칸, 옆면 1칸 규모에 왼쪽부터 부엌, 방, 대청, 방으로 단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p> <p>(구성)집을 처리한 기법들은 옛 법식을 따르고 있고 대청 앞에는 문짝을 달았다.</p> <p>(평면)안채는 앞으로 퇴칸이 없는 4칸집으로 가운데에 대청이 있는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이다. 아래채는 앞면 3칸·옆면 1칸이며</p> <p>(지붕)지붕은 초가지붕이다.</p> <p>(평면)왼쪽부터 방, 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 <p>(구성)굴뚝을 부뚜막 한쪽에 설치하여 구성의 특이함을 보이고 있다. 사당은 낮은 토담에 문을 달았다.</p> <p>(기타)이 곳은 원래 신라시대의 절터로 추정되며, 많은 돌 자재들이 있다. 특히 집안의 우물들은 원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된다.</p>
글자수	500자
양동 낙선당	<p>(건립)이 건물은 조선 중종(中宗) 35년(1540)에 입향조 손소(孫昭)의 셋째 아들 손숙돈(孫叔墩)이 살림날 때 지었다고 전한다.</p> <p>(인물)현재는 병자호란 때 순절한 손종로(孫宗老, 1598~1636)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으로,</p> <p>(당호)사랑채에 낙선당이란 당호가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73호	<p>(배치)건물구조는 안채, 대문채, 사랑채 등이 ‘ㄱ’ 형으로 배치되었다.</p> <p>(평면)대문채는 앞면 3칸, 옆면 1칸 크기로 ‘一’ 자형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앞면 5칸, 옆면 1칸반 크기로 대청과 사랑방을 두었는데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p> <p>(구성)조선시대 상류층 가옥들에 비하여 안채와 사랑채 모두가 나지막한 기단 위에 세워진 것이 특이하다.</p>
글자수	313자
양동 사호당 고택	<p>(건립)이 가옥은 조선 헌종(憲宗) 6년(1840)경에 세워졌다.</p> <p>(인물)진사를 지낸 사호당(沙湖堂) 이능승(李能升)이 살던 집으로 사호당고택이라고도 한다.</p> <p>(배치) ‘一’ 모양의 행랑채, 앞이 터진 ‘ㄱ’ 자 모양의 안채와 여기에 일자모양으로 이어지는 사랑채가 있다. 전체적으로 ‘ㄱ’ 자 모양 평면에서 사랑채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p> <p>(기능)사랑채 앞으로 넓은 공간을 두어 그 기능을 강조하였다. 안 사랑방과 사랑방 옆에 각각 누마루를 두고 있어 대청으로 한 점이 특이하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74호	<p>(가구)안채와 사랑채 모두 네모기둥을 세운</p> <p>(지붕)흙처마 맞배집이다.</p> <p>(가구)안대청과 사랑대청의 앞면 가운데, 사랑방과 사랑대청 사이의 가운데, 사랑 누마루 앞 네 곳 등에는 특히 둥근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둥근 기둥을 부분적으로 세워 영남지방의 큰 집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다.</p>
글자수	406자
양동 상춘헌고 택	<p>(건립)이 가옥은 조선 영조(英祖) 6년(1730)경에 세웠다고 전하는데, 상춘고택(賞春古宅)이라고도 한다.</p> <p>(배치)안채와 사랑채를 앞이 ‘터진 ㄱ’ 자 모양으로 배치하였고 앞에 일자 모양의 행랑채가 있어 ‘ㄱ’ 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p>(평면)몸채의 가운데에 2칸 안대청과 1칸 건넌방이 있고 안대청의 왼쪽으로 반칸 찬방, 1칸 반 안방, 2칸 부엌이 자리하고 있다.</p>

명칭	안내문안
제75호	<p>(구성)이렇게 건넌방과 부엌을 배치하는 것은 서울지방 일반 서민의 주택 구조라는 점에서 이채롭다.</p> <p>(가구)안대청과 사랑대청의 가운데 기둥을 동근 기둥으로 쓴 점은 큰집들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p> <p>(배치)사랑마당 북쪽 높은 곳에 사당이 있다.</p> <p>(조경)이 북쪽 돌 축대에 3단으로 꽃 계단을 조성하고 꽃나무를 심어 사랑채의 조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랑 뒷마당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p>
글자수	406자
양동 근암고택	<p>(건립)이 가옥은 조선 정조(正祖) 4년(1780)경 이정수(李鼎壽)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한다.</p> <p>(인물)이희구(李熙久)가 홍릉참봉(弘陵參奉)을 지냈으므로 참봉택이라고 하고 혹은 근암고택(謹庵古宅)이라고도 한다.</p> <p>(배치)전체 모양은 일반적인 ‘ㄱ’ 자 또는 ‘앞뜰 ㅁ’ 자 모양을 따르지 않고, 대문채 뒷편으로 ‘ㄱ’ 자 모양 안채가, 그 오른쪽에 거리를 두고 사랑채가 놓여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76호	<p>(구성)이렇게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를 떼어서 배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p> <p>(가구)각 건물의 규모나 안채, 사랑채에 전혀 동근 기둥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p> <p>(배치)안채의 북쪽에 사당을 두었는데, 앞면은 3칸이고 옆면은 1칸으로</p> <p>(지붕)흙처마 맞배집이다.</p>
글자수	353자
양동 두곡고택	<p>(인물)이 가옥은 조선 영조(英祖) 9년(1733)경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6대손인 이식중(李湜中)의 분문가(分門家)로 세워졌다. 그 후 이희태의 할아버지인 두곡(杜谷) 이조원(李祖源)이 사서 옮겨 그 후손들이 살면서 두곡고택이라 부르게 되었다.</p> <p>(입지)양동 남쪽마을의 대표적인 큰 가옥으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p> <p>(배치)‘ㄱ’ 모양의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마당이고 그 왼쪽으로 마구간채가 있다. 건너편에 사랑채,아랫채,안채가 ‘ㅁ’ 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몸채 뒷편으로 방앗간채와 창고채를 좌우에 배치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77호	<p>(구성)앞면에 대문간채와 마구간채를, 뒷면에 행랑채와 방앗간을 비교적 넓게 배치한 것이 아주 독특한 점이다.</p> <p>(조경)사랑마당에는 산의 경사지를 그대로 두고 과일나무를 심어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다.</p> <p>(기타)부엌 뒤의 초가에 있는 디딜 방앗간은 마을에 몇 개 안 남은 것 중의 하나이다.</p>
글자수	431자
양동 수졸당	<p>(인물)이 가옥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4대손인 수졸당(守拙堂) 이의잠(李宜潛)이</p> <p>(건립)조선 광해군(光海君) 8년(1616)에 세운 것이다.</p> <p>(인물)그의 호를 따서 수졸당이라고 하였으며,</p> <p>(건립)사랑채는 영조(英祖) 20년(1744)에 6대손인 대사헌(大司憲) 양한당(養閑堂) 이정규(李鼎揆)가 세운 것이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78호	<p>(배치)앞쪽에 사랑채와 대문채가 일자로 놓여 있고 그 뒷편에 안채와 아랫채가 있어 전체가 앞을 ‘ㄱ’ 자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다.</p> <p>(평면)사랑채는 앞면이 4칸이고 옆면은 2칸이다. 안채는 ‘ㄱ’ 자 모양으로 사랑채 뒤쪽에서부터 건넌방·안대청·안방을 놓고 아랫채 쪽으로 꺾인 건물에 부엌·광·찬창고·창고를 배치하</p>

명칭	안내문안
	<p>였다.</p> <p>(구성)사랑채와 떼어서, 사랑채보다 지붕을 낮추어 대문간채를 세운 것은 두 건물의 격에 차이를 둔 특이한 것이다. 사당은 안채 뒤쪽 언덕 위에 동쪽을 향하여 있으며 따로 담장을 쌓아 지었다.</p>
글자수	434자
양동강학당	<p>(건립)이 건물은 조선 고종(高宗) 7년(1870)에 세운 여강이씨(驪江李氏) 문중의 서당으로 손씨문중의 안락정(安樂亭)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p> <p>(인물)대사간을 지낸 지족당 이연상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다.</p> <p>(입지)이곳에서 보면 건너편 향단과 그 일대가 잘 보인다. 지금 양동마을에는 이씨문중의 서당이 두 채가 되는데, 이는 1970년 안계댐을 건설하면서 경산서당(景山書堂)을 옮겨왔기 때문이다.</p>
중요민속문화재 제83호	<p>(지붕)대문과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ㄱ’ 자 건물로 각기 맞배집을 붙인 것이다.</p> <p>(평면)오른쪽 본채에는 2칸의 대청이 있고 그 왼쪽에 온돌 안방, 오른쪽에 온돌 건넌방이 있다. 대청 앞으로 마루방과 경판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대청과 마루방은 여름에, 온돌방은 겨울에 대비한 것이다.</p> <p>(기타)소박하고 간결하게 지어 서당 공부에 맞는 구성을 하였다. 동쪽에 있는 행랑채는 남부지방의 백성들 집으로 하나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다.</p>
글자수	437자
하회북촌덕	<p>(인물)이 건물은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를 지낸 류도성(柳道性)이</p> <p>(건립)조선 철종(哲宗) 13년(1862)에 처음 건립한 것으로</p> <p>(배치)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사당 등을 갖춘 전형적인 양반의 주택이다.</p> <p>(평면)대문간채는 정면 7칸, 측면 1칸으로 중앙에 솟을 대문을 두었으며 몸채의 대문간과는 축을 달리하고 있다.</p> <p>(가구)안채에는 높은 기둥을 사용하여 겹으로 구성한 안방과 안대청이 안마당을 메우고 있다.</p>
중요민속문화재 제84호	<p>(평면)안방 왼쪽에 3칸이 넘는 큰 규모의 부엌이 있다.</p> <p>(기능)안방은 독특한 ‘田’ 자형 4칸 방으로 앞줄의 2개 방은 평소 거처하는 곳이고 뒷줄 2개의 방은 옷가지와 살림을 수납하는 곳이다.</p> <p>(배치)별당채는 은퇴한 바깥주인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은 것으로 몸채와 평행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대문과 사랑채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p> <p>(평면)사당은 3칸으로</p> <p>(지붕)흙처마 맞배집이다.</p>
글자수	405자
하회원지정사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선조(宣祖) 6년(1573)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 재직 중 부친상을 당하자 고향에 내려와 지내면서 세운 정사이다.</p> <p>(건립)정조(正祖) 5년(1781)에 다시 연좌루(燕坐樓)를 지었으며, 1979년에 전체를 보수하고 사주문을 신축하였다.</p>
중요민속문화재 제85호	<p>(당호)현판 글씨는 일성(一聲) 권응룡(權應龍)이 썼다.</p> <p>(평면)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대청 1칸에 2개의 온돌방을 두었고, 3칸 정면에 모두 반 칸 규모의 툇마루가 있다. 연좌루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건물로</p>

명칭	안내문안
	(기능)기둥을 마루 아래 가운데에 세워 마루를 넓게 사용하게 했다. (구성)사방을 개방하여 난간을 설치하였고 앞쪽으로는 부용대(芙蓉臺)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글자수	373자
하회 빈연정사	(인물)이 건물은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이 (건립)조선 선조(宣祖) 16년(1583)에 지어서 서재로 사용하던 정사이다. (당호)당호(堂號)는 부용대(芙蓉臺) 절벽 아래의 깊은 물을 빈연(賓淵)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되었 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86호	(평면)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왼쪽 1칸에는 앞뒤로 온돌방을 두고 오른쪽의 2칸은 모두 대청으 로 꾸몄다. (가구)온돌방 앞쪽 기단(基壇)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뒤쪽 기단에 굴뚝을 내었다. 대청은 앞면은 개방하고 오른쪽과 뒷면은 쌍여닫이문을 달았다. (당호)정사 안에는 완송문(玩松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인물)류운룡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말형으로 청백리(淸白吏)로 이름난 분이다.
글자수	334자
하회 풍산류씨 작천택	(건립)이 집은 지어진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건축수법이나 양식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건축으로 짐작된다. (배치)처음에는 2동이었으나 1934년 대흥수에 쓸려 나가고 지금은 ‘一’ 자형 안채만 남아 있 다.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작은 규모지만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이 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87호	(평면)왼쪽부터 차례로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이 안채공간으로 이용되고, 건너방 오른쪽에 사 랑방이 있다. 안채는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민가의 모습을 보인다. (기능)안방과 사랑방 뒷벽에는 각기 벽장이 있으며 대청 뒤쪽에 큰 쌍여닫이 문을 달아 여름에 문을 열어 두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다.
글자수	303자
하회 옥연정사	(인물)이 건물은 조선 선조(宣祖) 19년(1586)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건립)평소 가까이 지내던 승려 탄홍(誕弘)의 도움으로 지었다. (배치)오른쪽에서 차례로 대문채, 안채, 별당채,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문채와 사랑채가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은 멀리 떨어져 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88호	(당호)서당은 대청을 두고 좌우에 방을 두었는데 방은 완적재(玩寂齋), 마루는 원락재(遠樂齋)라 하고 정문은 간죽문(看竹門)이라 하였다.
글자수	241자
하회 겸암정사	(인물)이 건물은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이 (건립)조선 명종(明宗) 22년(1567)에 학문 정진과 제자 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정사이다. (당호)당호(堂號)는 퇴계 이황이 공의 학문적 자질과 성실함에 감복하여 지어준 것으로, 공이 이 를 귀하게 여겨 자신의 호로 삼았다고 한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89호	(배치)절벽 가장자리에 ‘一’ 자형 정사가 있고 그 뒷편에 딸린 살림채가 ‘ㄱ’ 자형을 이루고 있다. 살림채 좌측에는 초가 방앗간채가 있다. (평면)누 형식의 정사는 대청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오른편 뒤에는 1칸 방과 넓은 대청을 두었다. 살림채는 왼쪽으로부터 부엌, 안방, 대청, 찬광방이 ‘一’ 자형을 이루



명칭	안내문안
	고 있다. (기능)찬광방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인데 규모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글자수	398자
하회 남촌택	(기타)이 건물은 충효당(忠孝堂)과 함께 하회마을의 남촌을 대표하는 주택이다. (건립)조선 정조(正祖) 21년(1797)에 형조좌랑(刑曹佐郎) 류기영(柳琪榮)이 건립한 것인데 1954년 화재로 일부가 타버리고, 현재는 문간채와 별당·사당만이 남아 있다. 건립 당시에는 대문채·몸채·별당·사당이 있는 전형적인 양반주택이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90호	(배치)별당채는 마당에서 멀리 떨어져 후원 별당의 정취를 지니고 있으며, (기능)손님을 맞는 공간으로서 부엌이 없는 큰 대청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부엌은 개조된 것이다. (평면)정면 4칸, 측면 1칸의 ‘ㄱ’ 자형 평면으로 사당과 직각으로 놓인 남향집이다. (지붕)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이다.
글자수	329자
하회 주일재	(건립)이 건물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1~1607)의 증손 류만하(柳萬河)가 충효당(忠孝堂)에서 분가하여 지은 것으로, 그의 아들 주일재(主一齋) 류후장(柳後章)이 증축하였다. (배치)이 집은 ‘ㄱ’ 자형 사랑채와 중문간채, 그리고 ‘ㄴ’ 자형 안채에 곳간채가 붙어 있고 사당이 있는 전형적인 양반집이다. 대문채를 두지 않고 길을 따라 담장을 쌓은 다음 트임대문을 내어 출입하였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91호	(구성)대문이 없기 때문에 노출되기 쉬운 안채를 보호하기 위해 안채 출입 통로에 짧은 담을 두고 있다. (배치)안채 오른쪽 뒷편에는 사당이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면)안채에는 왼쪽으로부터 부엌·안방·안대청·전년방이 있다. 사랑채 왼편에 있는 중문간채는 부엌과 작은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호)현판인 운송설매(雲松雪梅)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썼다고 한다.
글자수	408자
구미 쌍암고택	(인물)이 건물은 검재(儉齋) 최수지(崔水智)의 후손인 최광익(崔光翊)이 (건립)조선 영조(英祖) 7년(1731)에 아들의 살림집으로 건축했다고 전한다. (조경)집 앞에 큰 바위가 2개 있어 ‘쌍암고가(雙岩古家)’라고도 불리는 가옥이다. (배치)동서로 긴 대지에 앞에서부터 대문채, 사랑채, 중문간채, 안채, 사당을 차례로 배치했다. 사랑채만 남향이고 나머지는 동향이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05호	(평면)안채는 비교적 큰 6칸통으로 대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방과 부엌 등이 ‘ㄷ’ 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방 뒤편에 찬방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면구성이다. 사랑채는 좌측에 4칸으로 구분되어 田자를 이룬 온돌방을 두고 3칸 대청과 1칸 제청을 배열한 겹집이다. (가구)사당은 막돌 주춧돌 위에 네모 기둥을 세운 (지붕)흙처마 맞배집이다.
글자수	384자
청도 운강고택	(인물)이 건물은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이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며 서당을

명칭	안내문안
<p>및 만화정</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06호</p>	<p>지어 후학을 양성했던 옛터에 (건립)조선 순조 9년(1809)에 현재 소유자의 6대조인 박정주(1789~1850)가 분가하면서 살림집으로 건립한 가옥이다. 이후 동왕 24년(1824)에 윤강 박시묵, 1905년에는 박순병이 크게 다시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p> <p>(배치)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口’ 자형으로 되어 있는 대주택이다. 짜임새 있는 구조와 필요에 따라 세분된 각 건물의 평면배치와 합리적인 공간구성 등이 한층 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류주택이다. 만화정은 숲이 울창한 낮은 언덕에 서남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자이다.</p> <p>(평면)마루를 중심으로 서측에 한칸의 방과 동측에 2칸의 통방을 배치하고 누마루에는 3면에 현합을 돌려 바닥을 확장하였다.</p> <p>(기타)주변경관이 아름답고 건물 또한 섬세하고 말끔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p> <p>(인물)이 곳은 6·25전쟁 때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숙식했던 곳이기도 하다.</p>
글자수	490자
<p>영천 정용준씨 가옥</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07호</p>	<p>(건립)이 고택은 현 소유주의 8대조가 조선 영조(英祖)원년(1725)에 지은 것으로 본래 본채와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본채만 남아 있다.</p> <p>(배치)본채는 사랑채와 문간채가 일자형으로 합쳐있고, 문을 들어서면 ‘ㄱ’자 형 평면의 안채와 곳간채, 그리고 아랫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口’자 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p> <p>(평면)사랑채는 대문간 좌우측으로 고방, 중사랑방, 마루방, 서고, 큰사랑방이 연달아 붙어 있는데 이들 방의 뒤쪽에는 문을 설치하여 안채로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p> <p>(기타)배치 및 평면구성, 벽감, 수장공간의 구성수법과 세간 등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한다.</p>
글자수	335자
<p>영덕 충효당</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68호</p>	<p>(건립)이 건물은 재령이씨(載寧李氏) 입향조인 이애(李曖)가 조선 성종(成宗) 때 건립한 가옥이다.</p> <p>(배치)일각대문을 바라보고 충효당이라 편액된 사랑채와 정침(正寢)이 남향으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며, 사랑과 정침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는 사당이 마련되어 있다.</p> <p>(평면)정침은 정면 7칸, 측면 6칸 규모의 ‘口’ 자형 건물이나, 내실 왼쪽 사랑방이 안채보다 1칸 벗어나 있어 ‘튼口’자 형을 이루고 있다.</p> <p>(당호)충효당이라 편액된 사랑채는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p> <p>(평면)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p> <p>(지붕)팔작 기와집이다. 정자와 같은 구성을 보이며,</p> <p>(기능)후학의 교육장으로 사용되었다.</p> <p>(기타)안채와 사랑채, 사당이 존재하는 조선시대 양반가로서 안채는 다소 변형이 있었으나, 가구수법이 조선시대 주택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p>
글자수	383자
<p>해저 만회고택</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69호</p>	<p>(인물)해저 만회고택은 조선 순조 때의 문신인 김건수(金建誅, 1790~1854)가 살던 집으로,</p> <p>(입지)해저마을 오른쪽 깊은 곳에 우거진 뒷동산을 배경으로 남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p> <p>(인물)그의 본관은 의성(義城)으로서 자는 공립(公立)이고 호는 만회(晩悔)이며, 순조 30년(1830년) 문과에 급제하고 봉화현감, 김해부사를 거쳐 우부승지를 지냈다.</p> <p>(배치)이 건물은 현재 김건수의 6대조가 이 집에 살던 여씨로부터 매입한 ‘ㄷ’ 자형의 안채와 그가 직접 건립한 ‘T’ 자형의 사랑채인 명월루(明月樓)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ㄱ’ 자</p>

명칭	안내문안
	<p>형 중문간채와 함께 튼 ‘ㄱ’ 자 형태로 된 맞배 기와집이었으나,  (평면)1981년에 중문간채가 철거되어 현재는 남쪽이 트인 상태이고, 안채는 남향한 중앙에 대청이 있으며, 대청 양쪽에 안방과 상방(주인이 거처하는 방)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타)1919년 3.1만세운동 직후 심산 김창숙(心山 金昌淑)선생 등이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 파리長書)를 작성하였던 곳인 해저 만회고택은 역사적인 의의와 더불어 옛 경북지방의 ‘ㄱ’ 자 집 평면배치법 등 조선시대 주택연구에 좋은 자료이다.</p>
글자수	559자
거촌리 쌍벽당	<p>(인물)조선조 중기 연산군(燕山君) 때의 성리학자 쌍벽당(雙碧堂) 김언구(金彦球, 1507~ ?)선생이 살던 곳에  (건립)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유림(儒林)에서 명종(明宗) 21년(1566)에 건립한 정자이다.  (인물)선생은 연산군 폭정으로 향리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주변 빈터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배치)현재 쌍벽당과 함께 있는 본채는 ‘ㄱ’ 자형 평면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연이어져 있는데 안채는 선생의 부친 죽헌(竹軒) 김균(金筠) 선생이 1450년경에 건립한 것이라 한다.  (지붕)쌍벽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단층팔작(單層八作) 기와집으로 무익공계(無翼工系) 건축으로  (가구)전면에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돌렸으며,  (건립)중수기(重修記)에 가정 병인(명종 21년, 1566)창건, 임진(효종 3년, 1652) 수증축(修增築) 등의 기록이 보인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170호	
글자수	332자
청운동 성천덕	<p>(입지)이 가옥은 뒤편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좋은 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평면)평면구성은 산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쇄형의 ‘ㄱ’ 자 형이다. 2칸 대청의 좌우에 사랑방과 뒷방, 큰방이 배치되고, 대청의 앞채에는 부엌, 고방, 외양간이 배치되었는데 작은 규모이며 안마당이 매우 좁다. 이 안마당을 지붕으로 처리한다면 일반적인 까치구멍집의 평면과 흡사해진다.  (건립)이 가옥은 18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치)집터의 남쪽으로는 길을 향하여 초가 3칸의 대문간이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172호	
글자수	261자
창양동후송당	<p>(건립)이 건물은 1920년경 후송(後松) 조용정(趙鏞正)이 건립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배치) ‘ㄱ’ 자형의 안채와 ‘ㄴ’ 자형의 중문간채 그리고 ‘ㄴ’ 자형의 사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튼 ‘ㄱ’ 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평면)안채는 우측부의 부엌을 제외한 각 면에는 툇마루를 돌렸으며,  (가구)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구의 네귀에 모두 추녀를 단 집이다.  (건립)종도리 하면의 「단기사천이백팔십년.....상량, 檀紀四千二百八十年 上樑」 이란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기록으로 미루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던 것을 해방 후 1947년에 다시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사랑채는 안채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물로 앞면 툇기둥만은 둥근 기둥을 세웠으며,  (당호)후송헌(後送軒)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배치)중문간채는 대청과 좌측의 사랑방이 다같이 ‘ㄴ’ 자형으로 안채의 앞에 서 있고 사랑채와 함께 ‘튼 ㄱ’ 자로 내정을 에워싸고 있으며, 내정으로 출입하는 중문을 비롯하여 마굿간,</p>
중요민속 문화재 제173호	

명칭	안내문안
	<p>방앗간, 하인들이 거처하던 방과 부엌 등이 설치되어 있다.</p> <p>(기타)건립 연대는 오래되지 않으나 50칸이 넘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전통한옥이 변천해 온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각 건물의 배치 관계가 좋고 비교적 간소한 외관을 보여 주고 있다.</p>
글자수	620자
<p>울현동 물채당</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74호</p>	<p>(건립)이 건물은 조선 후기에 세운 주택으로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다.</p> <p>(배치)구조는 4면이 5칸인 ‘口’ 자집 앞면 양쪽에 1칸씩 날개를 달고, 뒷면에도 양쪽 끝에 1칸씩 도장방을 달아 영남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口’ 자집을 약간 변형시킨 모습을 하고 있다.</p> <p>(평면)정면 7칸 대문채의 좌측에서 셋째칸에 안마당에 출입하는 대문간을 설치했다. 앞면 위쪽 2칸에 사랑마루를 들이고, 뒷면 가운데 3칸에 대청마루를 두었다. 대청은 3칸 모두 개방되어 있으나 기둥 언저리의 흔적으로 보아 원래는 양 협간은 현재의 뒷면과 같은 토벽에 판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p> <p>(구성)뒷면 양 끝에 도장방을 1칸씩 돌출시킨 것도 특이한 구조로, 안 대청의 폐쇄적인 구성과 함께 주목되는 점이다.</p>
글자수	364자
<p>영천 만취당</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75호</p>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정조(正祖) 5년(1781)에 전라도(全羅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조학신(曹學臣, 1732~1800)이 젊은 시절에 살던 집으로, 만취당은 사랑채의 이름이다.</p> <p>(건립)전면의 길쪽으로 나앉은 광명헌(光明軒)과 뒤쪽에 배치(配置)된 별묘(別廟), 보본재(報本齋)는 후대에 지은 것으로 전하며, 사대부(士大夫) 저택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광명헌은 1909년 현 소유자의 증조부가 고쳐지었고, 사랑채는 1915년에 고쳐지었다.</p> <p>(평면)큰 사랑채는 전면에 퇴칸을 두고 좌우에 동일한 사랑방과 제방을 배치하였는데 그 구성이 특이하다.</p> <p>(구성)제방(祭房)은 제례시 여성제관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랑채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한 예는 매우 드물다.</p>
글자수	357자
<p>가일 수곡고택</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76호</p>	<p>(건립)이 건물은 조선 정조(正祖) 16년(1792) 권조(權眺)가 할아버지 권보(權補)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집이다.</p> <p>(배치) ‘ㄷ’ 자형 안채와 ‘ㄱ’ 자형의 사랑채, ‘ㄴ’ 자형의 별당채와 문간채가 있다.</p> <p>(평면)안채는 4칸인데 이중에 2칸은 전면이 개방된 안대청이고 왼쪽 2칸은 안방이다. 사랑채는 8칸으로서 4칸은 큰 사랑방이고 왼쪽의 4칸은 작은 사랑방과 마루방으로 되어 있다.</p> <p>(기능)별당인 일지재(一枝齋)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p> <p>(건립)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일지재를 비롯하여 안채를 보수하였다.</p>
글자수	289자
<p>하회동 하동고택</p> <p>중요민속 문화재 제177호</p>	<p>(건립)이 건물은 조선 헌종(憲宗) 2년(1836)에 건축되었다.</p> <p>(당호)하동고택이라는 이름은 하회마을의 동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p> <p>(입지)남촌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남촌과 북촌을 가르는 길가에 자리잡고 있다.</p> <p>(배치)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독립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튼 ‘口’ 자형을 이루고 있다.</p> <p>(기능)행랑채는 대문채 구실을 겸하는데, 여기에 머슴방 2칸과 마구간이 있다.</p> <p>(구성)안대청에 있는 다층의 수납공간과 건넌방과 중방사이에 있는 마루 등은 조선후기 주거 계</p>

명칭	안내문안
	희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글자수	255자
하리동 일성당	(건립)이 건물은 조선 숙종(肅宗) 6년(1680)경에 이문한(李文漢)이 지었다. (당호)집의 이름은 외당(外堂)에 독서실을 두고 이곳에서 하루를 반성한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78호	(가구)높은 자연석 축대 위에 세워진 ‘ㄱ’ 자집으로, (입지)참나무 숲이 우거진 뒷동산을 배경으로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평면)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같이 이어져 있다. (가구)안채는 기둥상부 보아지, 기둥 치목수법에서 고졸한 수법이 보인다.
글자수	226자
안동 학암고택	(건립)이 집은 학암(鶴庵) 김중휴(金重休, 1797~1863)가 분가할 때 지은 것이다. (배치)안채와 사랑채가 ‘ㄱ’ 자형을 이루고 곳간, 별당채, 문간채, 방앗간채 등이 더 지어졌다. (평면)안채에는 안마당과 같은 폭의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건넌방, 오른쪽에 안방을 배치 하였다. 앞마당 서쪽에 있는 새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로 2칸통 사랑방과 1칸 반의 마루가 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79호	(기타)조선 후기 건축물로 안동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며, ‘ㄱ’ 자 집에서는 후대에 사랑채 부분을 확장하여 개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집은 사랑채를 따로 증축하였다.
글자수	301자
만운동 모선루	(건립)이 건물은 근재(近齋) 이전(李筌, 1487~1531)의 덕을 기리는 재실으로 조선 선조(宣祖) 24년(1591)에 건립되었다. (인물)이전은 자(字)가 무선(茂先)으로 조선 성종(成宗) 18년에 태어나서 조선 중종(中宗) 26년(1531)에 타계하였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80호	(당호)모선루(慕先樓)는 죽은 무선(茂先)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평면) ‘ㄱ’ 자 평면을 가진 재실로 (가구)기둥과 보아지 등에서 오래된 수법이 보인다. (인물)그는 기묘사화(己卯士禍)때 고향에 내려와 풍산현에 은거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쓴 인물이다. (평면)안채에는 정면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우측에 사랑방이 있고 안방 앞마당 쪽으로 부엌 2칸과 찬방 1칸을 달았다.
글자수	337자
의성김씨 율리종택	(건립)이 집은 조선 인조(仁祖) 8년(1630)에 세워진 것으로 의성김씨 23대손인 김후(金煦, 1613~1696)의 집이다. (당호)옛 지명을 따라 의성김씨 율리종택이라 하였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81호	(가구)평지에 축대를 높이 쌓아 올려서 집 전체가 솟아 있으며, 집 앞쪽 시야가 넓게 열려 있다. (배치)사랑, 대문간 및 외양간 등으로 구성된 ‘一’ 자형 앞채와 ‘ㄱ’ 자형 안채가 결합되어 ‘ㄱ’ 자를 이루고 있다. (가구)앞채는 높게 축대를 쌓고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 사랑채의 앞면 3칸에는 마루를 놓고 낮은 난간을 설치하였다. (평면)안채의 가운데 2칸은 안대청이다. 대청의 왼쪽에는 도장방과 사랑방이 있고 마당을 따라 부엌과 책방이 연달아 배치되어 있다.

명칭	안내문안
	(건립)사랑채 부분은 다시 지어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채는 처음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글자수	391자
의성김씨 서지재사	(인물)이 건물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묘제(墓祭)를 지내기 위한 재사로서, (입지)학봉의 묘소가 있는 산 동편 기슭 동남향에 위치해 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82호	(평면)정면 5칸, 측면 5칸 ‘口’ 자형이다. 평지 건축수법이므로 2층 건물로 아래에는 광, 대문간, 외양간 등을 두고 위에는 누마루를 두었다. (기능)이 곳은 제사 후에 음복석(飮福席)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구성)그리고 전면을 다락집으로 꾸며 ‘口’ 자형 재사(齋舍)를 경사지에 건축한 수법이 특이하다. (건립)1700년대 건축물로 추정한다.
글자수	254자
안동권씨 능동재사	(기능)이 집은 고려 삼태사(三太師) 중 한 사람인 권행(權幸)의 묘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건립)조선 효종(孝宗) 4년(1653)에 마루·방·곳간 등 16칸을 건립하였고, 숙종(肅宗) 9년(1683) 관찰사 권시경(權是經)이 누각 7칸을 더 지었다. 영조(英祖) 19년(1743)에 불탄 것을 다시 지었고, 1896년에 다시 화재를 입었다. 안채, 안사랑채, 사랑채, 대문간채, 별당, 곳간채 등 총 70여 칸의 건물중 지금은 임사청(任事廳) 전사청(典祀廳) 등 몇 칸만 남았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83호	(기타)재사로는 보기 드물게 큰 건물로 제례(祭禮)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글자수	299자
안동 오류현	(인물)이 집은 조선 숙종(肅宗) 때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지촌(芝村) 김방절(金邦杰, 1623~1695)의
중요민속 문화재 제184호	(건립)셋째 아들인 목와(木窩) 김원중(金遠重, 1658~1724)이 1678년 분가할 때 세운 건물이다. (배치)안채는 안마당을 향한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부엌이 마당을 향하고 있다. 사랑채 5칸은 모두 뒷마루가 있다. 건물의 전체 구조는 ‘口’ 자형이다.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등이 내외 생활영역에 따라 건물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구)그리고 사랑채와 대문채의 구조가 섬세하고 우아하다. (건립)안채는 원래의 것으로 추정되나 사랑채는 1920년 개축되었으며 1989년 임하댐 건설로 수몰을 피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글자수	344자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건립)이 집의 본채는 조선 숙종(肅宗) 30년(1704)에 좌승지(左承旨) 이후직(李後直)이 지었고, 북정(北亭)은 영조(英祖) 51년(1775)에 진사 이종주(李宗周)가 지었다고 한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185호	(배치)솟을대문채, 사랑채, 안채, 정자와 연못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나중에 방앗간채, 사랑채, 외양간채가 더 지어졌다. 사랑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안채의 동쪽에는 3칸 사당이 있다. (가구)안채는 정면 8칸, 측면 6칸으로 높은 자연석 축대 위에 세워졌다. (조경)이 집은 숲이 우거진 야산과 계곡에 흐르는 물을 건물과 잘 조화시킨 사대부 저택으로서 전통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글자수	305자
예천권씨 초간종택	(건립)이 건물은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조부 권오상(權五常)이 조선 선조(宣祖) 22년(1589)에 세운 가옥이다. 원래는 대문간채와 사랑채의 좌측에 연결된 부속채가 있었

명칭	안내문안
중요민속 문화재 제201호	<p>으나 철거되었다.</p> <p>(입지)대수마을의 숲이 우거진 낮은 뒷동산을 배경삼아 다소 경사진 대지에 동남향으로 위치해 있다.</p> <p>(평면)안채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口’ 자형 구조로 되어 있다.</p> <p>(기타)조선 초기의 우수한 건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선 초·중기 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p>
글자수	265자
안동 권성백 고택	<p>(건립)이 집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양식으로 보아 1800년대 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짐작된다.</p> <p>(배치)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져서 ‘口’ 자형 평면을 이루고</p> <p>(조경)뜰에는 연못과 정원수가 조화를 이루어 양반집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02호	<p>(평면)안방의 왼쪽에는 3칸이 넘는 부엌이 있고 안대청 앞에는 사랑방이 있다. 이 사랑방은 원래 마루방이던 것을 개조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랑은 앞 3칸에 장마루를 깔고 뒤 3칸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p>
글자수	242자
안동 송소종택	<p>(인물)이 건물은 퇴계(退溪) 문인이며 광해군 사부를 지낸 송소(松巢) 권우(權宇, 1552~1590)의 종택이다. 그러나 대청 서쪽 대들보에는 1824년 개기(開基)라고 적혀 있어 송소의 종손 종택으로 보인다.</p> <p>(배치) ‘口’ 자형의 몸채와 ‘一’ 자형의 강당과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03호	<p>(기능)『이계재사도록, 伊溪齋舍圖錄』에 의하면 몸채는 재사(齋舍)로 쓰였고, 강당은 이계서당(伊溪書堂)으로 쓰이던 곳으로 판단된다.</p> <p>(평면)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一’ 자형 동향이며 중앙 4칸이 대청이고 양끝에 각 2칸씩의 온돌방이 있다.</p>
글자수	281자
안동권씨 소동재사	<p>(기능)이 건물은 안동권씨 18대손 권곤(權琨)의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p> <p>(건립)처음에는 절이었으나 폐사(廢寺)된 것을 조선 영조(英祖) 2년(1726)에 내당(內堂)인 추원재(追遠齋)를 세우고 다음 해에 ‘口’ 자형으로 확장하여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04호	<p>(평면)아랫채는 정면 7칸 측면 1칸이다.</p> <p>(건립)건물 양쪽 대들보에는 재사의 건립에 관한 기록과 옮겨 세울 때의 기록이 남아 있다. 건물의 구조도 처음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글자수	248자
후조당	<p>(기타)이 건물은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에 딸린 별당이다.</p> <p>(건립)조선 선조 때에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1577~1654)이 처음 건립하였다고 하며, 1972년 안동댐 건설로 현 위치로 옮겼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27호	<p>(당호)현판은 그의 스승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친필이다.</p> <p>(평면)정면 4칸, 측면 2칸의 ‘ㄱ’ 자형 건물로 왼쪽으로부터 6칸의 대청을 두었다. 6칸 대청 동쪽에는 2칸의 온돌방이 있고 튀어나온 마루 1칸과 온돌방 1칸이 있다.</p> <p>(구성)이러한 구조는 이 지방에서 흔하지 않은 형식이다. 가구의 구성수법이 고려 말 조선초 양식으로 매우 고식이며 화려하다.</p>
글자수	294자

명칭	안내문안
<p>의성 소우당</p> <p>중요민속 문화재 제237호</p>	<p>(건립)이 건물은 소우(素宇) 이가발(李家發)이 19세기초에 건립하였고, 안채는 1880년대에 고쳐지었다고 전한다.</p> <p>(입지)나지막한 구릉과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p> <p>(인물)조선 명종(明宗) 년간에 영천이씨(永川李氏)가 처음 고향에 들어와 집성촌(集成村)을 이루고 있다.</p> <p>(배치)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어 ‘튼 ㄱ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남측 전면에는 ‘ㅡ자형’ 문간채가 있고 문간채의 서쪽에는 외측간이, 안채의 북서쪽에는 내측간이 있다. 안채, 사랑채 일곽(一郭)의 서쪽으로는 별도의 담장을 둘러 공간을 형성하고 원림(園林)을 조성하였다. 원림 중앙부에는 안사랑채 또는 별당(別堂)으로 불리는 건물을 배치하고,</p> <p>(조경)그 남쪽으로는 연못과 수림(樹林) 및 보도(步道)를 조성하여 정원(庭園)으로 꾸몄다.</p> <p>(기타)19세기 상류가옥의 멋과 함께 별서건축(別墅建築)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p>
글자수	448자
<p>청도 임당리 김씨고택</p> <p>중요민속 문화재 제245호</p>	<p>(인물)조선시대 궁중 내시로 봉직한 김일륜이 통정대부 정3품의 관직까지 지내다 만년에 낙향하여 집을 짓고 이 곳에서 여생을 마친 후 후손들이 줄 곳 이 곳에 거주해 왔다. 청도 임당리에는 1592년의 임진왜란 이전부터 400년간 16대에 걸친 내시가계(內侍家系)가 이어져 왔다.</p> <p>(건립)이 건물은 내시종가(宗家)의 가옥이며, 건물 전체의 구조로 보아 19세기 건축으로 추정되고 있다.</p> <p>(배치)이 집의 특징은 안채의 출입을 잘 살필 수 있게 사랑채가 배치된 점, 안채와 안마당이 건물과 담장으로 완전히 폐쇄된 점, 그리고 안채가 북향으로 놓여 있다는 점 등이다.</p> <p>(구성)이 건물은 내외공간이 일반 사대부의 저택보다 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건물 배치도 출입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구성한 것 등 특이한 주택형식을 보여 주고 있어 내시주택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p>
글자수	412자
<p>봉화 설매리 3겹까치 구명집</p> <p>중요민속 문화재 제247호</p>	<p>(입지)이 건물의 마을의 북쪽 옥녀봉의 얇은 산자락의 남서향에 자리하고 있는 까치구명집이다.</p> <p>(기타)이 건물은 강원도 일대의 추위가 심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서민들의 가옥 형태인데,</p> <p>(평면)집의 구조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를 깔고 앞쪽으로 외양간과 부엌을 두어 추위로부터 사람과 가축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였다.</p>
글자수	164자
<p>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p> <p>중요민속 문화재 제248호</p>	<p>(인물)이 건물은 남악(南嶽) 김복일(金復一, 1541~1591)의 종질이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척화신으로 활약했던 불구당(不求堂) 김주(金周, 1606~1681)와 관계가 깊은 가옥이다.</p> <p>(건립)건립연대는 조선 중기로 구전되고 있다.</p> <p>(입지)국사봉 지맥을 배경으로 동남향하여 배치된 이 집은</p> <p>(가구)정면 9칸, 측면 7칸 ‘ㄱ’ 형으로 구성되었다. 앞에는 ‘ㄴ’ 자형의 문간채가 배치되어 있다.</p> <p>(건립)1981년 지붕을 고칠 때 ‘송정칠년 갑술 삼월일 용문사승 윤보조, 崇禎七年 甲戌 三月日</p>



명칭	안내문안
	<p>龍門寺僧 雲補造' 라고 새겨진 명문(銘文) 기와가 발견되어 이 종택은 인조(仁祖) 12년(1634)에 처음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p> <p>(기타)조선 중기 건축물로 구조의 변동이 없고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어 민가 연구의 중요한 건물이다.</p>
글자수	385자
송석헌	<p>(인물)이 건물은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된 동암(東巖) 권이번(權以蕃, 1678~1763)선생이</p> <p>(건립)뒷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아들인 선암(仙巖) 권명신(權命申)에게 지어준 가옥으로 정침과 사랑채, 영풍루(迎風樓), 선암재(仙巖齋), 사당 못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입지)선돌마을 입구에 산을 등지고 자리잡은 송석헌은</p> <p>(배치)경사지반을 이용하여 정침(正寢)채를 세웠고, 우측 사랑채를 두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49호	<p>(가구)경사가 심한 관계로 앞면에 기단을 높게 조성하여 축대를 쌓았는데, 마당에서 볼 때 건물이 크게 보이게 되어 기둥 높이를 최대한 낮추었으며, 이는 건립당시 권이번 선생이 벼슬을 하지 않아 당시 가옥 규제에 따른 것이다.</p> <p>(구성)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높은 기단 및 사랑채를 누각에 연결시키는 특이한 평면 배치는 이 건물이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대부 저택의 면모를 보여준은 물론 송석헌 내부에는 민간에게 전해 내려오는 일상생활 용구인 민구 등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후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다.</p>
글자수	468자
송소고택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영조때 만석의 부(富를) 누린 심처대(沈處大)의 7대손 송소 심호택(沈號澤)이</p> <p>(건립)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마을에 이거하면서 지은 99칸의 대규모 저택(邸宅)으로 1880년경에 건립되었다.</p> <p>(구성)대문은 솟을대문에 홍살을 설치하였으며</p> <p>(지붕)큰 사랑채는 정면5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의 크고 화려한 건물로 주인이 거처하는 곳이며 우측에 작은 사랑이 있다.</p> <p>(평면)안채는 안주인이 거처하던 곳으로 'ㄱ'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p> <p>(구성)대청마루에는 세살문 위에 빗살무늬 교창을 달았고 건물마다 독립된 마당이 있으며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등 조선후기 상류층 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p> <p>(인물)청송 심부자는 조선시대 12대 만석꾼인 경주 최부자와 함께 9대에 걸쳐 무려 250여년간 만석의부(富)를 누렸던 영남의 대부호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대표적인 집안이다.</p>
글자수	421자
울릉나리 동너와집 및투막집	<p>(건립)이 집은 울릉도 개척 당시(1882)에 있던 울릉도 재래의 집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너와집으로서 1940년대에 건축한 것이다.</p> <p>(지붕)이 집은 4칸 일자 집으로 지붕은 너와로 있었다.</p> <p>(평면)큰 방, 중간방, 갓방은 전부 귀를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큰방과 중간방은 정지에서 내굴로 되었고,</p> <p>(가구)갓방은 집 외부에 우대기를 돌출시켜 별도의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집 주위는 전부 우대기를 돌리고 앞부분에는 폭을 넓게 잡은 죽담이 있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56호	
글자수	229자
울릉나리 동투막집	<p>(건립)이 건물은 해방 당시 건립된 울릉도 재래의 가옥이다. 지정 당시에는 김봉출씨 소유였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후 1987년에 울릉군에서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보수 관리해 오고 있다.</p>

명칭	안내문안
중요민속 문화재 제257호	<p>(평면)부엌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마굿간이, 우측에는 큰방과 머릿방이 각각 귀틀구조를 이루며 정면 4칸의 평면을 이루었다.</p> <p>(가구)부엌에는 바닥을 낮게 하여 부뚜막을 설치하고, 내굴로 구들장을 놓았다. 4칸의 몸체 주위에 우데기를 둘러쳤는데, 우데기는 지붕의 처마끝 안쪽에 처마를 따라가며 여러 개 가는 기둥을 집 주위에 세우고 출입구만은 비워둔 채 새로 이엉을 엮어 가는 기둥에 붙여 만든 외벽을 말한다. 출입구에는 새를 발같이 엮어서 매어달고 말아올렸다 내렸다하여 개폐를 하게 하였다.</p> <p>(기타)4칸 규모의 투막집으로 올릉도 특유의 주거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p>
글자수	405자
영주 괴현고택	<p>(인물)이 건물은 조선 정조(正祖) 3년(1779) 덕산공(德山公) 괴현 김영(金瑩)의 가옥으로 (건립)고종(高宗) 8년(1871)에 일부를 중수하였다.</p> <p>(평면)정침(正寢)은 정면 6칸, 측면 2칸에 겹집형이나 부엌과 안방 뒤쪽으로 2칸이 더 붙어 좌측으로는 3겹집이 되어 있다.</p> <p>(평면)사랑 부분은 중문간채의 우측에 연결하여 ‘ㄱ’ 형으로 배치되었는데, 정면 3칸과 측면 4칸 반 규모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퇴칸에 마루를 설치하였으나 뒤에 한 듯하다.</p> <p>(기능)집에는 용도에 따라 창고 방, 고방, 광 등의 수납공간이 설치되었고,</p> <p>(구성)안방의 피난다락과 사랑방 다락 뒷벽에 은신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62호	
글자수	338자
안동 귀봉종택	<p>(인물)이 건물은 안동김씨 귀봉 김수일(金守一)의 종택으로,</p> <p>(건립)조선 현종(顯宗) 원년(1660)에 건립하였고, 고종(高宗) 25년(1888)에 김주병(金周秉)이 중건하였다.</p> <p>(배치)조선중기의 전형적인 종택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ㄱ’ 자형으로 대문채, 사랑채, 안채, 사당채 건물이 있다. 사당에는 윤천 김용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p> <p>(평면)큰 사랑채는 대문의 동쪽에 위치하며, 방 3칸과 대청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물마루를 깬 대청이 매우 넓다.</p> <p>(기타)이 건물은 같은 마을에 있는 의성 김씨 대종택과는 서로 다르지만 그 맥이 흡사함은 가문의 일관성 때문이다. 대종택과 이 집은 형상의 대소와 정교함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법식과 기법에는 차이가 없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67호	
글자수	349자
안동 변남택	<p>(건립)이 건물은 안동에서 가장 큰 집중의 하나로, 조선 고종(高宗) 대에 지어진 가옥이다. 창덕궁을 모방하였다고 하며, 원래 99칸이었는데 6.25 전쟁으로 일부가 없어지고 지금은 50칸 정도가 남아 있다.</p> <p>(배치) ‘ㄱ’ 자형 구조를 이룬 본채와 왼쪽에 ‘ㄱ’ 자형 사랑채가 있고 그 사이에 행랑채가 있다. 원래 왼쪽으로 안사랑채가 있었으나 없어졌다.</p> <p>(가구)본채 뒤쪽에 굴뚝을 쌓아서 연기가 이 하나의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하였다.</p> <p>(기타)영남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집이라 알려지며, 다양한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p> <p>(평면)몸채는 5칸이며, 대청이 상당히 넓다.</p> <p>(기능)바깥채는 사랑채 전면에 있으며 고방 · 행랑방 · 마굿간 · 헛간의 기능을 한다.</p>
중요민속 문화재 제268호	

명칭	안내문안
	(평면)사랑채에는 큰 사랑, 작은 사랑, 부엌, 마루방이 마련되어 있고, 큰 사랑과 작은사랑에 각각 부엌이 있고, 작은 사랑의 부엌은 안방 부엌 가까이에 있다. (기타)이 집은 최소한 3대가 동거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글자수	461자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배치)조선시대 경상북도 상류주택의 생활상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특히 종택의 건축용도에 따른 가옥배치법은 경북 내륙북부지역과 다른 북동부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타)유형적 요소인 건축뿐만 아니라 무형적 요소인 제례, 민속품, 동제 등 민속신앙 및 행위들이 잘 보존 전승되고 있으며 문서 등 기록물도 잘 남아있으며, 400년간의 영양남씨 가문의 역사성을 유지·전승하고 있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271호	
글자수	210자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 파 종택	(건립)이 종택은 조선 중종 36년(1541)에 최초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기존 위치에서 2km 떨어진 외곽 산 중턱인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 종택의 좌향(坐向)은 달라졌지만 기존 배치를 따라 건물의 형식은 원형과 동일한 형태로 이축됐다. (배치)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좌·우익사가 연결된 안동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口’ 자형 평면의 전형적 배치를 보여주며, 조선 중기 안동지방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건축에 대한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유서 깊은 종가이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272호	(인물)또 탁청정(濯淸亭) 김유(金綏·1481~1552)가 쓴 조선 전기 전통 음식의 조리과 가공법을 기록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요리서 수운잡방(需雲雜方)을 비롯하여 (기타)종가의 고문서 등 다양한 민속자료가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생활사와 함께 사회사, 경제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글자수	457자
봉화 만산고택	(인물)이 건물은 조선 말기의 문신인 만산(晩山) 강용(1846~1934)이 (건립)고종 15년(1878)에 지은 것이다.
중요민속 문화재 제279호	(인물)강용은 증추원 의관과 도산서원장 등을 지냈고, 1910년 이후에는 망국의 한을 학문으로 달래면서 마을 뒷산에 망미대를 쌓고 그곳에 올라 국운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를 읊었다고 한다. (배치)가옥 구조는 앞면에 11칸의 긴 행랑채가 있고, 가운데에 솟을대문이 있다. 안쪽에 사랑마당, 서쪽에 사랑채와 안채가 ‘口’ 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왼쪽에 서당을 두고 오른쪽에 별도의 담장을 돌려서 별당을 배치하였다. (당호)사랑채의 앞면에는 ‘만산(晩山)’이라는 대원군이 쓴 현판이 걸려있고 서당의 ‘한묵청연(翰墨淸緣)’이라는 편액은 영천왕이 8세에 쓴 글씨라 전한다.
글자수	366자